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1 호 (405)

차 례

신년사

김 일 성

동지들!

우리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장식한 커다란 영예와 기쁨을 안고 새해 1976년을 맞이합니다.

나는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새해를 맞이하면서 당과 혁명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투쟁하고있는 우리의 로동자, 농민, 병사,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열렬한 축하와 인사를 드립니다.

나는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면서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혁명가들과 애국적민주인사들, 청년학생들과 각계각층 인민들에게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나는 또한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사회주의조국을 위하여 용감히 투쟁하고있는 60만 재일동포들과 해외의 모든 동포들에게 새해의 인사와 축복을 보냅니다.

1975년은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을 기념한 매우 뜻깊은 해였습니다.

지난해에 당창건 30돐을 맞으며 전당과 온 나라가 드높은 정치적열의로 들끓었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적대고조가 일어났습니다.

지난해에 앙양된 정치적분위기속에서 우리 당의 통일과 단결이 더욱 강화되고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전례없이 두터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는 더욱 강화되고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반석같이 다져졌습니다.

전체 인민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힘찬 투쟁을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공업전선에서는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성과적으로 점령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완수하는 기적을 창조하였습니다.

농업전선에서는 매우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대풍작을 이룩하여 1974년보다 70만톤이상의 알곡을 더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수송전선에서도 많은 일을 하였습니다. 철도의 수송능력을 더욱 강화하고 무산—청진사이 대규모정광수송관과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 건설을 완공함으로써 수송혁명에서 커다란 전진을 이룩하였습니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다른 전선들에서도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였으며 전반적인민경제의 높은 장성속도를 보장하였습니다. 오늘 심각한 경제적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고 많은 나라들에서 생산이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

서 사회주의건설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경제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장성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는것입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완전히 실시하였으며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양성할데 대한 당 제5차대회의 결정을 빛나게 관철하였습니다.

나는 지난해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불멸의 로력적위훈을 세운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협동농민, 근로인테리를 비롯한 전체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외교전선에서도 커다란 승리를 이룩하였습니다.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공화국의 국제관계는 매우 넓어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 참가하여 훌륭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모든 쁠럭불가담나라들의 한결같은 지지밑에 쁠럭불가담운동에 떳떳이 참가할수 있게 되였습니다.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우리 당의 자주적조국통일방침을 반영하고있는 조선문제에 관한 우리측 결의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였습니다. 이것은 유엔력사에서 류례없는 획기적인 사변이였습니다. 우리는 세계적으로 더 많은 벗들과 동정자들을 가지게 되였으며 조국통일위업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게 되였습니다.

나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주고있는 세계의 모든 친선적인 나라 지도자들과 인민들에게 뜨거운 감사를 드리며 새해의 인사를 보냅니다.

참으로 지난해는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우리 나라의 혁명발전에서 위대한 전변이 일어난 력사적인 해였습니다. 1975년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한 승리의 해로, 주체조선의 영예를 온 누리에 떨친 영광의 해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빛나게 기록될것입니다.

동지들!

올해에 우리앞에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힘있게 지원하며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먼저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야 합니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중심과업은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들을 점령하며 새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것입니다.

우리는 흑색야금공업과 세멘트공업에 힘을 넣어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진행중에 있는 건설대상들을 하루빨리 완공함으로써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와 세멘트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려야 하겠습니다.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최근년간 생산잠재력이 비상히 커진 가공공업이 은을 내게 하며 나라의 경제를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고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며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석탄과 광물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하겠습니다. 특히 올해에 검덕광산개발에 큰 힘을 넣어 유색금속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늘여야 하겠습니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형기계와 대상설비 생산능력을 늘이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며 새로운 중기계공장건설을 다그쳐 올해에 적어도 제1단계공사를 완성하여야 하겠습니다.

농업전선은 여전히 우리의 주공전선의 하나입니다. 불리한 자연기후조건이 지속되고 세계적으로 식량사정이 날로 긴장해지는 조건에서 우리는 농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야 합니다. 올해에 농업부문에서는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모든 농기계와 기술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며 비탈진 땅을 다락밭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농업생산을 더욱 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에도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합니다. 아직 수송의 긴장성은 완전히 풀리지 않았으며 빨리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요구에 수송사업이 따라가지 못하고있습니다. 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고 선박수송을 늘이며 3화수송을 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대건설의 수송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할것입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는것은 현시기 경제사업분야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더잘 이바지할수 있도록 쓸모있고 알뜰하게 만들며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습니다. 우리는 적들의 침략과 도발 책동에 대하여 혁명적경각성을 높여야 하며 원쑤들의 그 어떤 침공으로부터도 조국의 안전과 혁명의 전취물을 튼튼히 지켜낼수 있도록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합니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절대로 안일해이하지 말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앞에 나서고있는 주되는 혁명과업이며 바로 3대혁명을 잘하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적폭압이 그처럼 가혹한 어려운 조건에서도 굴하지 않고 반파쑈민주화투쟁을 줄기차게 벌렸습니다. 남조선인민들은 올해에도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하여, 조국의 통일과 혁명의 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가야 할것입니다. 공화국북반부인민들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파쑈통치밑에서 신음하는 남녘의 동포들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남조선인민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모든 힘을 다하여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합니다.

올해에 총련조직들과 재일조선동포들은 민주주의적민족권리를 튼튼히 지키며 조국의 통일과 사회주의조국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며 일본인민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친선단결을 강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오늘 전반적국제정세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에 유리하게 발전하고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세계혁명력량은 장성강화되고있으며 대세는 진보적인민들의 편에 유리하게 전변되고있습니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올해에도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견결히 반대하며 제3세계인민들을 분렬, 리간하여 자기의 정치경제적야욕을 채우려는 제국주의자들과 신식민주의자들의 음모책동을 분쇄하기 위하여 투쟁하며 세계 진보적인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고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함으로써 우리 혁명에 더욱더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하며 세계혁명의 승리를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할것입니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정당하며 우리 인민이 나아갈 앞길은 휘황찬란합니다.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입니다.

모두다 맑스-레닌주의기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갑시다.

☆ ☆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을 높이 받들고 3대혁명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켜 올해 전투에서 더 큰 승리를 이룩하자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끝없는 행복과 영광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은 커다란 기쁨과 희망을 안고 새해 1976년을 맞이한다.

새로운 승리와 영광으로 빛날 새해를 맞는 온 나라 전체 인민은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은덕을 가슴깊이 되새기면서 가장 경건하고 가장 뜨거운 충성의 마음을 담아 경애하는 수령님께 새해 인사를 드리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부디 만수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하고있다.

지금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를 받아안고 북받쳐오르는 감격과 흥분에 휩싸여있으며 수령님을 위하여, 당과 혁명을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갈 불같은 결의에 가득차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력사적인 신년사에서 지난해의 자랑찬 승리를 총화하시고 올해에 우리앞에 나서는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신년사는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장식한 지난해의 력사적승리의 기록이며 사회주의대건설의 휘황한 앞길을 밝혀주는 빛나는 설계도이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한 전투적기치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청사에 길이 빛날 찬란한 승리를 이룩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1975년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한 승리의 해로, 주체조선의 영예를 온 누리에 떨친 영광의 해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력사에 빛나게 기록될것입니다.》

지난해는 우리 인민의 정치생활과 우리 나라의 혁명발전에서 위대한 전변이 일어난 력사적인 해였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은 당의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시고 당을 세우신 당의 창건자, 당을 키우시고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령도자, 영명하신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창건 30돐을 맞이하여 드높은 정치적열의와 혁명적고조로 들끓었으며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사회주의건설의 웅대한 강령인 6개년계획을 기한전에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으며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를 높이는데서 류례없는 획기적전진을 이룩하고 주체조선의 영예를 온 누리에 떨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는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이 반석같이 다져진것이다. 지난해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빛나는 로력적성과로 맞이하자!》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높이 들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다그치기 위한 혁명적고조의 불길, 충성의 총진군운동을 벌리였다. 력사적인 우리 당 창건 30돐을 뜻깊은 혁명적명절로, 자랑찬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장엄한 실천투쟁의 불길속에서 당대렬이 계급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더욱 튼튼히 꾸려지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철저히 확

립되였으며 수령님을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였다. 또한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이 비상히 제고되였다. 뜻깊은 10월의 명절을 높은 정치적열의와 로력적성과로 맞이하기 위한 불꽃튀는 실천투쟁속에서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전례없이 두터워졌으며 일편단심 어버이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나아가려는 우리 인민의 정치적각오가 한층 높아졌다. 우리의 혁명대오는 불패의것으로 다져지고 우리 혁명의 정치적력량은 전례없이 강화되였다.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영광스러운 당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힘찬 투쟁을 벌린 결과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 공업전선에서는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이 성과적으로 점령되고 6개년계획이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완수됨으로써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6개년계획의 완수,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사회주의, 공산주의에로의 전진도상에서 또하나의 높은 령마루를 점령하였다는것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테제의 휘황한 빛발따라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가 힘있게 추진되여 지난해에 매우 불리한 기후조건에서도 1974년보다 70만톤이상의 알곡을 더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또한 수송전선에서 철도의 수송능력이 제고되고 무산－청진사이 대규모정광수송관과 은률광산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건설이 완공됨으로써 수송혁명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지난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의 다른 전선들에서도 비약과 혁신이 일어났으며 전반적인민경제의 빠른 발전속도가 보장되였다. 오늘 전례없이 심각한 경제적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고 많은 나라들에서 연료, 동력 위기를 비롯한 파국적인 경제적난관을 겪고있는 때에 우리 나라에서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사회주의건설이 끊임없는 상승의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은 우리 당의 주체적인 경제건설로선의 정당성과 우리 나라 자립적민족경제의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증명하여주는것이다.

지난해에 우리는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선진적인민교육제도인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이 완전히 실시되였으며 100만의 인테리대군을 키워낼데 대한 당 제5차대회의 결정이 빛나게 관철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진행하신 대외활동과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관계는 매우 넓어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다. 우리 나라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쁠럭불가담운동의 당당한 성원으로 되고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우리측결의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됨으로써 조국통일위업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 유리한 국제적환경이 조성되였다.

지난해에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과 인민이 이룩한 모든 승리와 성과들은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우리 혁명의 앞길을 밝히시고 불면불휴의 정력적인 활동으로 우리 인민을 끊임없이 새로운 승리에로 이끌어주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탁월하고 세련된 령도의 빛나는 결실이다.

지난해에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은 매우 어려운 환경속에서 진행되였다. 일찌기 없었던 경제적 침체와 파동 속에서 허덕이고있으며 인도지나에서 참패를

당하고 쫓겨난 미제국주의는 출로를 새로운 침략과 전쟁에서 찾고 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소동을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하였으며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매달려 우리 민족을 영원히 남북으로 갈라놓으려고 악랄하게 책동하였다.

안팎의 온갖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을 진행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빨리 다그쳐야만 하였던 지난해의 우리 인민의 투쟁은 참으로 간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두리에 굳게 뭉쳐 힘차게 달리나아감으로써 원쑤들의 온갖 범죄적책동을 물리치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의 신년사에서 우리 당 창건 30돐을 맞는 영광의 1975년을 우리 인민의 력사에서 가장 빛나는 한해로 되게 할데 대한 전투적과업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인민을 6개년계획을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최후돌격전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뜨거운 호소는 우리 인민대중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았으며 온 나라를 충성의 열정으로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지난해 정초부터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와 공업 및 농업 부문 일군들의 전국적회의를 비롯한 여러 회의들을 마련하시여 모든 일군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명확한 방향과 방도를 밝혀주시였으며 3대혁명소조운동의 불길을 더욱더 세차게 지펴올리시여 혁명과 건설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나라일에 그처럼 바쁘신가운데서도 온 나라의 공장과 농촌, 건설장들을 몸소 찾으시여 돌격전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을 힘있게 고무하여주시였으며 따뜻이 보살펴주시였다. 잠도 휴식도 미루시고 오로지 나라의 륭성발전을 위하여,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쉬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이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한량없는 로고로하여, 인민에 대한 헌신적복무의 정신을 지니시고 나라의 크고작은 모든 일을 세심히 돌보아주시는 수령님의 크나큰 심려로 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그처럼 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과 혁신이 이룩될수 있었다.

10월의 혁명적명절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돌격에로 전당과 인민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당중앙이 제시한 우리 당창건 30돐구호는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 좋아하는 우리 인민의 억센 의지로, 확고한 신념으로 되였다. 당은 웅대한 6개년계획을 훨씬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진공적인 조직정치사업을 벌렸으며 나라의 모든 전투장마다에 경제선동의 북소리,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끊임없이 높이 울려퍼지도록 하였으며 검덕을 비롯한 여러곳에서 혁신의 봉화를 지펴올림으로써 온 나라가 혁명적앙양으로 계속 들끓게 하였다.

어버이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 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가지고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앞당겨완수하기 위한 충성의 총돌격전을 벌렸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이 새로운 혁신을 일으키고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빛나는 위훈을 떨치였다. 참으로 지난해에 이룩된 모든 승리와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을 따라 억세게 싸워나가는 우리 인민의 무궁무진한 창조력의 발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지난해에 우리 나라의 위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우리의 혁명기지는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겨나갈수 있는 믿음직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이룩된 이 커다란 성과, 이 위력한 밑천이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오늘

나라와 민족 앞에 지닌 숭고한 사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을뿐아니라 제국주의 침략으로부터 사회주의동방초소를 지키고 세계혁명을 발전시키는 국제적임무도 영예롭게 수행하고있는것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자랑찬 성과는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남조선 인민들과 반제자주의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차게 나아가는 제3세계인민들을 끝없이 고무하고있으며 새 전쟁 도발을 위하여 미쳐날뛰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무서운 공포속에 몰아넣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참으로 우리 인민은 혁명과 건설에서 눈부신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의 영예와 존엄을 온 누리에 떨치였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우리 혁명의 앞길을 휘황히 밝히시고 우리 당과 인민이 수행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우리앞에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욱 다그치며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힘있게 지원하며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을 관철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을 관철하는것은 올해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중대한 과업이다.

3대로선을 빛나게 관철하는것은 우리 민족의 최대의 념원이며 숙망인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기 위한 참으로 보람차고 영광스러운 일이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잘하여 혁명의 근거지를 튼튼히 꾸리며 남조선 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함으로써만 세계반동의 원흉인 미제를 내쫓고 조국을 통일할수 있으며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첫째가는 중요한 과업이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혁명기지를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올해에 사회주의경제건설에서의 중심과업은 6개년계획의 미완충고지들을 점령하며 새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것입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경제건설에서의 중심과업은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와 세멘트고지를 점령하는 동시에 채취공업을 비상히 커진 가공공업에 확고히 앞세우며 새로운 중기계생산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농업생산에서 보다 높은 앙양을 이룩하며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새 전망계획수행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빈틈없이 갖추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올해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은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는 우리 나라 경제발전의 합법칙적요구를 반영한 가장 정확한 투쟁과업이며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의 위력을 한층더 강화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하기 위한 경제건설방침이다.

흑색야금공업과 세멘트공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마련하여놓은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하고 진행중에 있는 건설대상들을 하루빨리 완공하여 6개년계획의 강철고지와 세멘트고

치를 하루빨리 점령하여야 하며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고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며 경착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석탄과 광물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일으켜야 한다. 특히 올해에 검덕광산에 큰 힘을 넣어 유색금속광물생산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 검덕의 광부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향도의 빛발따라 대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를 떠메고나가는 긍지높이 충성의 총돌격전을 벌림으로써 수령님께서 주신 영예로운 과업을 어김없이 관철하여야 하며 전국이 달라붙어 검덕을 힘있게 지원하여야 한다.

기계공업부문에서는 대형기계와 대상설비 생산능력을 늘이고 새로운 중기계공장건설을 다그쳐 올해에 적어도 제1단계공사를 완성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농업전선은 여전히 우리의 주공전선의 하나이다. 전체 농업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지난해에 얻은 성과와 경험을 공고히 하면서 농업발전에 계속 큰 힘을 넣어 한랭전선의 영향을 이겨내기 위한 대책을 철저히 세우며 모든 농기계와 기술수단들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영농작업의 기계화수준을 높이며 비탈진땅을 다락밭으로 만들기 위한 운동을 대대적으로 벌려 농업생산을 더욱 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올해에도 수송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고 선박수송을 늘이며 3화수송을 발전시킴으로써 빨리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원만히 풀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신년사에서 인민경제의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는것을 현시기 경제사업분야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으로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높이 받들고 우리는 청산리방법,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경제관리를 개선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며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도 나라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에 더 잘 이바지할수 있도록 쓸모있고 알뜰하게 만들며 온갖 랑비현상을 없애고 있는 자재, 있는 설비, 있는 로력으로 더 많이 생산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올해 전투목표는 명백하며 우리의 앞길은 휘황찬란하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올해의 전투적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한 투쟁에서 다시한번 충성의 위훈을 떨쳐야 한다.

올해 전투과업을 완수하기 위한 우리의 투쟁은 우리 나라 혁명과 건설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전진시키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 참으로 보람차고도 영예로운 투쟁이다.

올해의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과 부문별과업이 수행될 때 경제건설분야에서 우리가 이룩한 승리와 성과들이 더욱 공고화되고 우리의 자립적 민족경제의 위력이 한층더 굳건히 다져지게 될것이다.

이 과업이 빛나게 수행될 때 또한 인민경제부문들사이에 새로운 보다 적극적인 균형이 이루어지게 될것이며 따라서 우리의 경제건설속도를 더욱 높이게 되고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우리 나라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다시한번 시위하게 될것이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될 때 우리 나라에는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길에서 새로운 빛나는 리정표가 마련되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물질적힘이 더욱더 굳건히 다져질것이다.

우리는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새 전쟁 도발책동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조건에서 사회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우리는 미제와 박정희매국역적들의 그 어떤 침공도 제때에 짓부실수 있는 만단의 준비를 갖추고있어야 한다. 인민군대와 인민경비대 장병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차위사상을 높이 받들고 절대로 안일해이하지 말고 언제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를 견지하며 부대의 전투준비와 전투력을 백방으로 강화하여야 한다.

올해 우리앞에 나선 영예로운 전투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주되는 혁명과업이며 바로 3대혁명을 잘하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습니다.》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은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다. 로동계급의 당은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더욱 세차게 타번지게 하는것이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인 대진군운동이며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높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 모든 전투장마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앙양을 일으키기 위한 일대 혁신운동이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한다.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을 관철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은 또한 남조선인민들의 민주주의운동을 적극 지원하여 남조선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이다.

우리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면서 생존의 권리와 민주주의적자유를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투쟁과 민주주의적민족권리와 조국통일을 위한 재일동포들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여야 한다.

국제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남조선에서 미제국주의자들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실현하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우리는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는것과 함께 올해에도 반제자주의 혁명적기치밑에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더욱 강화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는 올해 우리앞에 나선 이 영예롭고도 보람찬 혁명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시키며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묶어세워야 한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역경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시련속에서도 굴하지 않으며 오직 당과 혁명을 위하여 살아도 같이 살고 죽어도 같이 죽을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일편단심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따라 주체의 붉은 기치를 끝까지 지켜나가도록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함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혁명위업수행에서 력사적의의를 가지게 될 올해의 전투과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촉진시킬수 있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건설의 보다 큰 승리를 위하여,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아가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발기하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자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의 력사적인 보고와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전투적 강령을 높이 받들고 지금 전당, 전국, 전민은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높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치고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이미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고 3대혁명로선이 대중자신의 신념으로 확고하게 된 오늘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벌리도록 하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킬수 있는 휘황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릴데 대한 탁월한 방침은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실현을 앞당기기 위한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본질과 내용, 그 의의와 과업들을 옳게 인식하고 이 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1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전투적호소에 따라 오늘 온 나라에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더욱 다그쳐나가야 할 우리 혁명의 절실한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혁명적운동이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자연과 사회, 인간을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한다는것을 의미한다.

우리가 나아가는 공산주의사회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이 완전히 구현된 사회이며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함으로써만 공산주의를 실현할수 있다.

다시말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상과 도덕, 경제와 문화를 개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수 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게 한다.

현시기 우리앞에는 3대혁명의 기치따라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커다란 성과에 토대하여 보다 높은 단계에서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적으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야 할 과업이 전면에 나서고있다. 사상혁명을 힘있게 벌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공산주의적

인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며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생산공정을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하며 문화혁명을 적극 다그쳐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전면적으로 실현하는것이 오늘 우리 혁명의 일정에 오른 절실한 문제로 제기되고있다.

우리 나라 혁명발전의 이러한 현실은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철저히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기 위한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벌리기 위한 사회적운동을 조직하여 그것을 대중자신의것으로 확고히 전환시키고 발전시켜나갈것을 절박하게 요구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바로 이러한 요구를 반영하여나온 혁명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나라에서 이룩된 사회경제적변혁에 기초하여 일어난 합법칙적현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습니다.》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커다란 성과가 이룩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국제, 국내적으로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3대혁명소조운동을 발기하시고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였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혁명적방침을 제시하시고 전당과 전체 인민을 그 관철을 위한 장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시였다.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사회주의대건설투쟁에서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이 전면적으로 발양되고 온 나라는 새로운 혁명적대고조로 끓어번지고있다. 전체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는 길에서는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으로 싸워 이르는곳마다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대중적영웅주의를 발휘하였다. 이 거세찬 혁명적앙양의 불길속에서 생산과 건설이 비상히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 6개년계획의 방대한 과업이 성과적으로 완수되였다.

주체공업을 골간으로 하는 우리의 사회주의자립적민족경제가 더욱 튼튼히 다져짐으로써 오늘 우리 나라에는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와 그 어떤 국제적경제파동에도 끄떡하지 않고 나라의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키며 국방력을 철벽으로 다지며 인민생활을 높이면서도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창한 투쟁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는 확고한 물질적토대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밑에 지난기간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된 이러한 전례없는 앙양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일어날수 있는 객관적요인으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우리 당의 발전과 인민대중의 혁명적지향을 반영하여 일어난 일대 혁명적운동이다. 당의 강화발전과 인민대중의 혁명적각오, 이것은 사회적운동,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일어나게 한 근본요인으로 되고있다.

혁명운동, 사회적운동이 혁명과 건설의 절박한 문제로 제기되고 그 객관적조건이 마련되였다하여 아무때나 일어날수 있는것은 아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또한 주체적인 혁명력량, 당이 대중을 혁명투쟁에로 이끌수 있는 힘을 가지고있어야 하며 당의 의도를 관철하려는 대중의 확고한 결심이 있어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수 있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언제나 생기발랄하

게 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강화발전 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을 통하여, 안팎의 원쑤들을 반대하는 치렬한 투쟁을 통하여 더욱 세련되고 단련되였으며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습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02페지)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다. 당의 대중적지반이 강화되고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위신이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전당에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개선되였다.

당중앙의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육성된 우리 나라 전체 근로자들은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로선을 자신의 확고한 신념으로 하고 그를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섰다. 3대혁명로선은 그를 관철하는 실천투쟁을 통하여 그 정당성이 확증되였으며 대중에 의하여 완전히 파악되고 그들의 확고한 투쟁신조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영광스러운 당의 손길따라 3대혁명의 붉은기치높이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끝까지 수행하여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완성하려는것은 우리 인민의 확고한 의지이며 신념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사회경제생활에서 이룩된 거대한 변화와 우리 당과 혁명 발전의 새로운 요구,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을 통찰하시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를 지펴주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전례없는 새로운 대고조가 일어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대중의 혁명적 지향을 제때에 포착하시여 대중의 심장을 울리는 옳바른 로선과 투쟁구호를 제시하시고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적진군운동을 발기하시여 우리 당과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에로 현명하게 이끌어주고계신다. 오늘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마련된것으로서 그것은 수령님의 대중령도의 또하나의 탁월한 모범으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본질에 있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심화시키고 자연과 사회, 인간을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공산주의적진군운동이다. 이 운동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침으로 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와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새로운 일대 앙양을 일으키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대중적혁명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과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인 속도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있다.

이 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비롯하여 우리 나라에서 널리 벌어지고있는 사회적운동의 내용과 형식을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키고 발전시킨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운동으로 된다.

이 운동의 기본과업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이 기본과업으로 제기하고있는 사람과의 사업, 설비자재와의 사업, 책과의 사업을 사회주의건설이 높은 단계에 오른 오늘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발전시켜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높은 문화기술을 소유한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며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의 모든 분야를 공산주의의

본질적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조해나가는것이다.

이 운동에서 승리자가 되여 《3대혁명붉은기》를 쟁취하는 단위에서는 영웅칭호를 받으면 금별메달에 국기훈장 1급이 따라가듯이 천리마기발을 비롯하여 다른 기발들도 다 수여받는 영예를 지니게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의 요구도 전면적으로 구현한 높은 형태의 운동이다. 이 운동은 사상사업을 더욱 심화시키고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끊임없이 높이며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힘있게 추진시킴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력사에 류례없는 속도를 창조하고 위대한 비약과 기적을 이룩하게 한다. 근로자들의 사상이 최대한으로 발동되고 거기에 선진과학기술이 결합될 때 속도전의 요구는 빛나게 실현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종래의 사회적운동보다 높은 요구와 목표를 제기하고있을뿐아니라 그 포괄범위를 설정하고있는데서도 일련의 특성을 가지고있다. 이 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 《피바다》근위대운동, 《꽃파는 처녀》근위대운동 등 종래의 사회적운동에서와 같이 작업반을 기본단위로 하여 진행되는것이 아니라 공장, 기업소, 농장 등 보다 넓은 범위를 단위로 하여 벌어지게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이렇듯 종래의 여러가지 사회적운동의 요구를 새로운 높이에서 구현하고 발전시킨 가장 높은 형태의 대중적혁명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발단, 이것은 사상, 기술, 문화의 모든 령역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혁명투쟁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의 계기를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으로 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더 잘 준비하게 하며 온 사회에 주체형의 맑은 피가 더욱 세차게 맥박치게 할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심으로 교양하는것을 제1차적인 과업으로 제기하고있다. 이 운동에서는 무엇보다도먼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열도가 얼마나 높은가하는데 따라 사업이 평가되며 영예의 붉은기를 쟁취하게 된다.

그러므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의 대부대가 도처에서 믿음직하게 자라나게 하고 온 사회에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더욱 세차게 맥박치게 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차넘치게 할것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촉진시켜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우리의 근로자들을 어렵고 힘든 로동에서 영원히 벗어나게 하며 높은 문화기술수준을 가진 전면적으로 발전되고 준비된 공산주의 건설자로 되게 할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인민을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려가는 가장 힘있고 존엄있는 인민으로 되게 할것이다.

이 운동은 또한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고 우리 혁명기지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반석같이 다지게 함으로써 우리 인민의 최대의 민족적과업인 조국의 자주적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기게 할것이다.

참으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사회주의대건설과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위업을 비상히 다그쳐나가게 할것이다.

2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독창적인 방침에 따라 당중앙이 내놓은 전투적호소를 높이 받들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벌어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대중적운동으로 힘있게 벌려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건설을 더 빨리 다그치며 우리의 혁명력량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더욱 튼튼히 다져야 하겠습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리는것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 우리 혁명력량을 더욱 반석같이 다지며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사회를 앞당겨오기 위한 참말로 성스러운 일이다.

수천년의 자기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우러러모시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시대에 사는 우리 인민들에게 있어서 이 거창한 공산주의적대중운동에 떨쳐나서 약동하는 힘과 지혜와 재능을 다 바치는것보다 더 자랑스럽고 영예로운 일은 없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임무를 깊이 자각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적극 참가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수행에서 일대 앙양을 이룩하여야 한다.

우리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통하여 무엇보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더욱 튼튼히 준비시키는것은 현시기 우리앞에 나선 가장 중요한 과업이며 우리의 모든 승리의 기본열쇠이다.

일군들과 당원들, 근로자들 모두가 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조화하며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고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분야에서 전반적앙양과 일대 번혁을 가져올수 있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주체사상교양과 당정책교양,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확고히 무장시키며 언제 어디서나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하며 혁명의 주인다운 립장을 가지고 일하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도록 튼튼히 준비시켜야 한다.

우리는 또한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실속있게 진행하여 그들이 항상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는 지금 혁명의 시대에 살고있으며 계급적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건설하고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근로자들에 대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혁명운동을 승리적으로 전진시킬수 없으며 이미 이룩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튼튼히 지켜낼수 없다. 이것은 력사적경험이 실증하는 확고한 진리이다.

우리는 어떠한 복잡하고 간고한 투쟁속에서도 추호의 동요없이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견결히 지키도록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원칙밑에 벌어지는 대중운동이다.

우리는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성실히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3대혁

명붉은기쟁취운동》의 중요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우리는 기술혁명을 힘있게 벌려 모든 공업부문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공정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를 전반적으로 실시하여 힘든 로동을 적극 줄이며 농업부문에서 농촌기술혁명을 힘있게 다그쳐 이미 이룩한 성과를 공고히하고 화학화와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녀성들을 가정일의 무거운 부담에서 완전히 해방하기 위하여 힘차게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단위, 모든 부문에서 증산과 절약투쟁을 힘있게 벌려 1인당생산액을 결정적으로 늘이며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계획을 일별, 월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넘쳐수행하기 위한 투쟁을 끊임없이 벌림으로써 생산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게 하여야 한다.

문화혁명은 근로자들의 기술문화수준을 높이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필수적과업이다.

우리는 전반적11년제의무교육을 질적으로 실시하고 성인교육사업을 더욱 개선하며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성과적으로 수행하도록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사회주의적생활양식을 철저히 확립하고 공산주의적 생활문화, 생산문화를 세워나가야 하며 생활을 검박하면서도 문화성이 높게 꾸려나가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을 강화하고 당조직들의 기능과 역할을 더욱 높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위원회들은 해당단위에서 최고지도기관이며 모든 부문사업의 참모부입니다. 어느 부문에서나 당정책을 옳게 관철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당위원회들의 령도적역할에 결정적으로 달려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3권, 170페지)

당은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운동의 추진력이다. 다른 모든 사업이 그러하듯이 사회의 심장이며 혁명의 참모부인 당의 전투력이 강화되고 역할이 높아질때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힘있게 벌어지게 된다.

각급 당조직들은 행정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없애고 청산리정신, 청산리방법을 철저히 구현하여 당사업을 사람과의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켜야 한다.

당조직들은 지도일군들로 하여금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대중속에 들어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목적과 의의를 해설하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군중을 이끌어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온갖 대중적혁신운동이 그러한것처럼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낡은것과의 투쟁을 통하여서만 힘차게 발전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사상전을 힘있게 벌려 간부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소극성과 보수주의, 기술에 대한 신비주의 등 온갖 잡탕사상들을 반대하여 강한 사상투쟁을 벌려 그들을 계속전진, 계속혁신하는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대중의 대담한 발기와 창발성을 적극 지지해주어야 한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비롯하여 여러가지 대중운동을 잘 벌려나감으로써만 성과적으로 발전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천리마작업반운동과 《피바다》근위대운동, 《꽃파는 처녀》근위대운동 등을 발전시키면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가야 한다.

모두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을 힘있게 벌려나감으로써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주체의 기치높이 세기를 주름잡아 천리마의 기세로 달려온 영웅조선의 혁명적기상을 온 세상에 다시한번 떨치자.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주체 시대의 혁명사상을 창시하신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오늘 우리 나라에서 혁명과 건설은 끊임없이 전진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더욱 심화발전하고있다.

일찌기 우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로부터 시작된 조선혁명의 행군길은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단계에 이르렀으며 우리 인민은 이 혁명적구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구호를 높이 들고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힘차게 나가고있다.

우리 혁명과 건설이 앞으로 멀리 전진하고 우리 당과 인민이 자기의 존엄과 영예를 세계에 떨칠수 있게 된것은 전적으로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의 결과이며 그이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이 우리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기때문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우리 시대와 혁명실천이 제기한 절박한 요구에 대답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으며 간고하고 시련에 찬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통하여 끊임없는 사상리론활동으로 비상히 풍부하고 다방면적이며 심오한 사상과 리론들을 제시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리시고 우리 혁명과 전세계 피압박근로대중의 혁명위업에 불멸의 공적을 쌓아올리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심으로써 사람들의 사상관점과 사고방식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으며 로동계급과 인민들에게는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 인류해방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가 마련되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위대한 혁명사상으로 온 누리를 비쳐주시고 시대와 혁명의 진로를 개척해나가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가장 큰 영예이며 숭고한 의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주체시대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였다

시대를 대표하는 새로운 혁명사상은 인민의 진두에 서서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로동계급의 위대한 수령에 의하여 창시된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력사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구체적환경, 먼 앞날에 대한 천재적인 분석과 통찰에 기초하여 혁명발전의 매 시기마다 과학적인 투쟁강령과 전략전술을 작성하고 옳은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며 시대적요구에 맞는 새로운 혁명사상을 체계화하고 완성한다. 위대한 수령은 이처럼 거창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함으로써 시대발전의 앞길을 열어놓고 로동계급의 혁명투쟁, 인류해방위업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간다. 그러므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오직 위대한 수령을 높이 모셔야만 비로소 광명을 맞이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언제나 백전백승할수 있다.

우리 인민이 수천년 력사에서 처음으

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반세기의 기나긴 혁명투쟁의 전로정을 오로지 인민의 자유와 해방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에 바치시면서 시대와 혁명이 제기한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시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전일적인 사상리론체계로 완성하심으로써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에게 력사의 새시대를 대표하는 혁명사상을 안겨주시였다.

우리 시대는 선행한 모든 력사적시대와 구별되는 새로운 시대, 주체시대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인민들이 자주의 길로 나가는것은 막을수 없는 세계적조류로 되고있습니다. 현시대는 지난날 큰 나라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억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세계의 주인으로 등장하여 자기의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자주성의 시대라고 말할수 있습니다.》(《페루조선친선문화협회 서기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24페지)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무엇보다도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였다는데 있다.

지난날 근로인민대중은 착취계급과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자주성을 유린당하고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였으며 오직 력사의 대상으로만 간주되여왔다.

우리 시대에 와서 사정은 달라졌다. 인민들은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원치 않으며 자기 민족의 존엄이 짓밟히는것을 허용하려 하지 않는다. 여러 세기동안 자주성을 짓밟히고 천대와 멸시를 받아오던 인민대중은 각성하였으며 자유와 민족적독립을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결연히 떨쳐나서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인민대중의 력사적인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 식민주의는 종국적인 멸망의 길에 더욱더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였으며 근로인민대중은 력사를 창조하고 전진시키는 위대한 혁명력량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게 되였다.

제국주의와 착취계급들이 인민들을 제멋대로 억압하고 착취하며 세계를 좌지우지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다. 이제는 력사무대에서 주역이 바뀌여졌으며 발언권이 지난날 억압당하고 착취당하던 인민대중에게 넘어왔다.

우리 시대, 주체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다는데 있다.

지난시기 근로인민대중은 자기의 앞길을 자신이 개척하며 자기의 요구에 맞게 사회를 개조하고 전진시켜나갈수 있는 무궁무진한 힘을 가지고있으면서도 그것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 이르러 자기의 운명을 자기의 손에 틀어쥔 근로인민대중은 사회를 자기의 의사와 리익에 맞게 변혁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용감히 떨쳐나 투쟁하고있으며 자기스스로 자기의 앞길을 열어나가고있다.

참으로 우리 시대와 같이 세계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이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자주성에 대한 그들의 지향이 막을수 없는 힘으로 전환되여본적은 일찌기 없었다.

이 모든것은 우리 시대야말로 지난날 세기적잠에서 깨여나지 못하고 력사밖에 서있던 근로인민대중이 력사무대에 당당히 출현하여 자기 운명을 자신이 틀어쥐고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의 시대, 자주성의 시대라는것을 말하여준다.

이러한 우리 시대는 선행시대에 제기되지 않았고 또 제기될수도 없었던 수많은 리론실천적문제들을 력사의 일정에 제기하였다. 우리 시대는 근로인민대중에 대한 새로운 관점과 태도를 세우며 모든 문제해결의 기본을 근로인민대중에게서 찾고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풀어나가는 혁명의 근본원리와 전략전술, 혁명과 건설의 주인으로

서의 근로인민대중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옳은 립장과 방법을 밝힐것을 요구하였다.

우리 시대에 이르러 각이한 단계에 놓여있는 각국의 혁명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구체적실정도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이 혁명투쟁에서 옳은 립장과 방법을 견지하며 자기 나라의 혁명과 건설을 로동계급의 계급적리익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주체적으로 풀어나갈것을 요구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옹호하며 그것을 철저히 구현해나갈수 있는 로동계급의 새로운 혁명사상, 지도사상에 대한 요구는 우리 나라 혁명운동발전에서 더욱 절실하게 제기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4페지)

우리 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일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기 힘을 믿지 않고 남을 덮어놓고 숭배하며 큰 나라를 섬기는 비굴한 사대주의사상이 생겨났다. 이러한 사상에 물젖은 사람들은 나라가 위험에 빠졌을 때에도 자기 인민의 힘을 굳게 믿고 그들에 의거하여 나라를 구원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만 쳐다보면서 제가끔 자기 상전을 업고 당파싸움만 일삼아왔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는 결국 외래제국주의자들의 침략을 막아내지 못하고 남에게 먹히우게 되였다.

사대주의는 그후에도 가셔지지 않았으며 거기에 교조주의까지 겹치다보니 우리 나라 혁명발전에 커다란 해독을 끼쳤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주의운동이 좌절되고 초기공산주의운동이 실패한것도 그 주되는 원인은 사대주의와 그로부터 흘러나온 종파주의에 있었다.

우리 나라에서 민족주의운동은 물론 초기공산주의운동도 대중속에 깊이 뿌리박지 못하고 주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의연히 대중과 동떨어져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종파행위만 벌려왔다.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이 가지고있던 이러한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극복하고 쓰라린 실패와 곡절을 겪던 조선혁명을 위기에서 구원하며 혁명의 새로운 발전을 가져오기 위하여서는 새로운 혁명적세계관, 혁명의 참다운 지도사상을 가져야 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이와 같이 우리 시대의 객관적요구와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과 교훈을 사상리론적으로 심오하게 총화한데 기초하여 제시된 로동계급의 위대한 혁명사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은 간고하고 복잡한 항일혁명투쟁과정에 창시되고 발전풍부화된 필승불패의 혁명사상이다. 주체사상은 고요한 서재에서가 아니라 험난한 혁명의 실천투쟁속에서 창시되였으며 준엄한 혁명의 폭풍우속에서 발전풍부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혁명투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조건에서 처음으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가장 영광스러운 투쟁이였다. 이 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력사상 류례없이 간고하고 시련에 찬 투쟁이였다.

이 투쟁과정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투쟁로선과 방법도 혁명의 전략과

전술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으며 무기와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여기서 믿을것이란 오직 근로인민대중밖에 없었으며 그들의 지혜와 힘뿐이였다. 장기적이고 고난에 찬 항일혁명투쟁의 전행정은 모든 문제를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을 튼튼히 지켜나갈것을 요구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이 엄혹한 현실속에서 혁명의 위대한 진리,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이 투쟁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주체사상의 위대성과 진리성을 검증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주체사상은 해방후 새 조국, 새 사회 건설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였으며 새로운 내용으로 그 보물고를 풍부히 하였다.

주체사상은 오늘 우리 나라에서 빛나게 승리하고있을뿐아니라 세계인민들속에서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주체사상은 전세계 로동계급과 피압박근로대중의 한결같은 지향과 공통된 념원을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있는것으로 하여 시대의 혁명정신을 상징하고 시대의 발전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불패의 전투적기치로 되고있으며 커다란 견인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전세계 혁명가들과 진보적인류의 심장을 틀어잡고있다. 오늘 세계인민들이 한결같이 주체사상을 지지하고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 하는것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막을수 없는 우리 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한 주체사상의 창시는 인류사상사에서 획기적의의를 가지는 세계사적발견이다. 그것은 자주성의 시대, 영광스러운 주체시대의 새 력사를 펼쳐놓은 위대한 사변이며 로동계급의 혁명위업과 혁명사상발전에서 불멸의 공헌으로 되는 뜻깊은 사변이다.

바로 이것으로 하여 로동계급과 인류의 해방위업에 바치신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공적은 주체사상과 더불어 찬란히 빛나고있으며 주체시대의 모든 혁명투쟁을 승리에로 고무하는 끝없이 귀중한 혁명적재부로 되고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은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 리론,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를 전면적으로 포괄하고있는 완성된 혁명사상으로서 오직 수령님의 존귀하신 성함과만 결부시켜 부를수 있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리론체계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은 한마디로 말하여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이다. 다시말하여 주체사상과 그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과 방법의 전일적인 체계이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하여 혁명리론과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된 여기에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과 리론이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사상, 혁명리론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다.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의 체계, 이것은 주체시대가 요구하는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체계이며 주체시대의 혁명과 건설, 사회발전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전면적인 해명을 주는 위대한 사상리론체계이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불멸의 주체사상이다.

주체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의 진수를 이루며 그 근본초석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철두철미 주체사상으로부터 출발하고있으며 주체사상으로 일관되여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은 인류사상사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불멸의 주체사상을 진수로 하고있음으로 하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에서 가장 높은 단계를 이룬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위대성과 창조성, 혁명성과 전투성, 불패의 생활력은 바로 불멸의 주체사상에 그 원천을 두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7페지)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를 자기의 기초로 하고있으며 그로부터 출발하고있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는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해명해줌으로써 무엇이 세계에서 기본을 이루며 모든것을 결정하는가 하는 세계관의 근본문제를 과학적으로 밝혀주고있다.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적세계관확립에서 새로운 위대한 전환으로 되며 인류철학사상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전취물이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전면적으로 밝히고 사람을 기본으로 세계를 보며 사람을 중심으로 모든것을 풀어나갈데 대한 전혀 새로운 사상을 제기함으로써 로동계급의 세계관을 완성하고 그것을 가장 힘있는 혁명적 개조와 변혁의 무기로 되게 하였다.

근로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였으며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고있는 우리 시대의 현실은 세계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인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모든것을 고찰하며 그들의 혁명적역할에 의하여 해결해나갈것을 요구하고있다.

혁명의 폭풍이 세계를 휘몰아치며 인민들의 생활에서 세기적변혁이 련이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혁명적실천은 오직 사람의 주도적지위와 그 결정적역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는 사상만이 객관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자연과 사회를 혁명적으로 개조해나가는 위력한 무기로 될수 있다는것을 실증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은 세계에서 사람이 차지하는 지위와 역할을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주며 주위세계를 정확히 인식하고 개조하는 강력한 무기를 준다.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에 의하여 세계의 모든것은 사람을 위한것이며 사람을 떠나서는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않는다는 주위세계에 대한 가장 정확한 견해가 주어지게 되였으며 세계는 오직 사람들의 적극적인 역할에 의해서만 개조되고 변혁되여나간다는 옳바른 리해가 주어지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또한 혁명실천에서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며 사람을 가장 힘있는 존재로 봄으로써 주위세계를 과학적으로 인식하고 혁명적으로 개조하는 위력한 무기를 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이와 함께 인간의 자주성에 관한 불멸의 사상을 밝힘으로써 혁명의 근본목적과 동인, 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새롭게 해명해주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독창성과 위대성은 바로 종전의 철학적원리와는 달리 자주성을 생명으로 하는 사람, 세계의 중심에 서있는 근로인민대중을 기본으로 하여 세계를 설명하고 변혁하는 새로운 철학적원리를 밝혀주고있는데 있다.

위대한 주체사상이 사람을 기본으로 하는 전혀 새롭고 독창적인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는데로부터 이 사상은 시대가 제기하는 모든 성숙된 문제에 옳은 해답을 줄수 있으며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리론과 전략전술을 제시할수 있

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한 혁명리론이며 근로대중의 역할에 기초한 혁명의 전략과 전술입니다.》(우와 같은 책, 7폐지)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고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에게 있으며 세상에서 가장 귀중하고 가장 힘있는 존재도 인민대중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고있다.

불멸의 주체사상에 의하여 모든것을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역할과 책임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전혀 새로운 혁명리론이 전면적으로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주체사상은 또한 근로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줌으로써 그들이 력사의 주인으로서의 사명을 옳게 자각하고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주체사상은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지킬것을 요구한다. 주체사상이 밝혀주는 자주적립장은 혁명과 건설에서 근로인민대중이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이며 창조적립장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근로인민대중이 의거하여야 할 근본방법이다.

자주적립장은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모든 문제를 자신의 신념과 판단에 기초하여 풀어나가는 립장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는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혁명적립장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자주적립장을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으로 규정하심으로써 혁명과 건설에서 인민대중이 주인으로서의 권리를 옹호하며 주인으로서의 책임을 다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주체사상이 밝혀준 창조적립장은 인민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자기 나라 실정에 맞게 풀어나가는 립장이다.

매개 나라 당과 인민은 서로 다른 환경과 력사적조건에서 혁명투쟁을 수행하며 그 앞에 나선 혁명과업도 서로 다르다. 이러한 조건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인민은 창조적립장을 견지하여야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배격하고 기성리론, 기존경험에 구애됨이 없이 자기 나라의 구체적실정과 인민대중의 리익에 맞는 과학적인 로선과 정책을 수립할수 있으며 인민대중의 창조적열의에 의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에로 이끌어나갈수 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이와 같이 근로인민대중이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서 튼튼히 견지하여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을 밝혀줌으로써 우리 시대의 가장 힘있는 지도사상으로 되고있다.

주체시대의 혁명적기치인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은 또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을 그 중요한 구성내용으로 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혁명리론은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전면적으로 완성되고 체계화된 혁명적학설이며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가 하여놓은것 가운데서 많은 것들은 우리 당이 맑스-레닌주의의 보

편적진리를 우리 나라의 력사적조건과 민족적특성에 맞게 창조적으로 적용하여 독창적으로 해결한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문제들은 맑스나 레닌의 단계에서 제기되지 않았고 또 시대적조건으로 말미암아 예견할수도 없었던것들을 우리가 자기의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힘으로 해결하여놓았습니다.》(《사회과학의 임무에 대하여》, 157~15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로운 사상리론적기초우에서 전면적으로 완성하시고 체계화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이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완수하는데서 거쳐야 할 모든 단계의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으며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근본적인 전환을 이룩하시였다.

혁명과 건설에 관한 선행 혁명리론은 사람들의 물질적생활조건, 경제관계에 의하여 모든것이 결정된다는데 기초하고있다면 주체사상에 의하여 밝혀진 혁명리론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하는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으로 하여 사물을 보고 그들의 혁명적역할에 기초하여 혁명과 건설의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는 리론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놓으신 혁명리론에서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에 관한 리론은 매우 중요한 자리를 차지한다.

제국주의의 침략과 계급적압박은 민족과 인민대중의 자주성을 짓밟는 근본화근이다. 그러므로 제국주의와 온갖 착취제도를 청산하는것은 인류해방위업을 수행하는데서 가장 선차적이며 근본적인 문제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시여 새형의 사회혁명으로서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내놓으시고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제시하심으로써 민족해방, 계급해방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새롭게 체계화하시고 완성하시였으며 인류해방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식민지, 반식민지 나라들의 사회경제적 및 계급적 제관계와 력사발전의 특수성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에 기초하시여 이러한 나라들에서의 혁명은 반제민족해방의 과업과 반봉건민주주의적과업을 결합한 혁명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이라는것을 새롭게 밝히시고 이 혁명단계에서의 혁명의 대상과 동력으로부터 정권형태와 모든 사회경제적변혁에 이르기까지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심오히 해명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시대의 새형의 사회혁명에 관한 리론이 처음으로 개척되였으며 사회경제제도의 식민지적 및 봉건적 성격을 철저히 없애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자주독립국가를 세우는 넓은 길이 환히 열리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혁명의 합법칙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식민지예속에서 벗어난 인민들이 민족적독립을 공고히 하고 온갖 계급적예속을 완전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혁명을 계속하여 반드시 사회주의길로 나가야 한다는것을 밝히시고 우리 시대의 력사적조건에 맞게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을 발전풍부화시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인민민주주의독재정권을 과도기임무를 수행하는 프로레타리아독재정권으로 강화발전시킬데 대한 문제, 농촌경리의 기술적개조에 앞서 경리형태를 사회주의적으로 개조하며 자본주의적상공업을 수탈이 아니라 협동화하는 문제를 비롯한 독창적인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리론들은 로동계급의 당이 사람에 의한 사람의

착취와 억압을 종국적으로 청산하기 위한 혁명적변혁을 성과적으로 이룩하고 인민대중이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된다. 이것은 오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제국주의식민지기반에서 벗어나 민족적독립을 이룩하였으며 사회주의를 지향하여 나서고있는 력사적조건에서 그들에게 커다란 신심과 고무를 안겨주며 그들을 사회주의길로 확신성있게 이끌어주는 불패의 혁명적 기치로 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주체의 혁명리론을 창시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 기여하신 가장 위대한 업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해명하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은 인류가 자연과 사회의 온갖 구속에서 완전히 해방되고 자기의 자주성을 종국적으로 실현하는 휘황한 공산주의사회에로 가는 길을 가르쳐준 과학적인 혁명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혁명을 계속해야 할 력사적필연성과 공산주의사회의 면모, 공산주의 건설의 혁명적로정,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전략적과업과 그 수행방도 등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독창적인 해답을 주심으로써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인 체계를 갖춘 과학적학설로 만드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리론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공산주의건설의 두 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한 기본전략로선으로서의 3대혁명에 관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려면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 걸쳐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여야 합니다.…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합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8페지)

두 요새 점령에 관한 사상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나서는 방대하고 복잡한 과업들을 천재적으로 집약하고 명철하게 정식화한 탁월한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두 요새 점령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총적내용이 명백히 되였으며 그 전반적 로정이 비로소 선명하게 해명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점령하기 위하여서는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고 가르치시면서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으로,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으로 규정하시였다. 이것은 사회혁명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새롭게 발전풍부화시킨것으로서 공산주의혁명리론을 완성하는데서 불멸의 세계사적공적으로 된다.

3대혁명에 관한 리론에 의하여 선행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공백으로 남아있던 사회주의혁명 이후시기의 혁명의 길,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혁명투쟁의 로정과 방향 및 방도들이 명백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 공산주의 혁명리론은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전력사적시대를 대표하는 과학적인 혁명리론이며 완성된 공산주의혁명리론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리론은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를 담고있으며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여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 공산주의사회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밝혀주고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리론은 실로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을 가장 정확하게 해명해주는 공산주의건설의 불멸의 혁명적기치이다.

로동계급과 인민들은 오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혁명리론을 빛나게 구현해나갈 때에만 혁명투쟁과 공산주의건설위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편향없이 성과적으로 풀어나갈수 있다.

창조와 건설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회주의, 공산주의건설에 관한 리론을 전면적으로 완성하고 체계화하심으로써 착취와 압박에서 해방된 인민들이 참말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는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를 성과적으로 건설할수 있는 휘황한 길을 펼쳐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또한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을 강화발전시키며 국제무대에서 제국주의를 종국적으로 멸망시키고 전반적세계혁명의 승리를 위한 가장 정확한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제시하시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렇듯 주체시대의 혁명과 건설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고 완성하심으로써 우리 시대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에게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의 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나라와 민족의 자주성을 튼튼히 옹호고수하기 위한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여주시였다.

주체사상에 기초한 령도방법은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에서 중요한 구성내용을 이룬다.

령도방법에 관한 문제를 전면적으로 해결하는것은 주체시대에 와서 절박하게 제기되였고 해명을 기다리는 력사적과제였다.

인민대중은 력사발전의 담당자이지만 사상적으로 각성되지 못하고 조직화되지 못하고서는 위대한 력량으로 될수 없다.

인민대중은 반드시 옳은 령도를 받아야만 력사발전의 주체로서의 자기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 인민대중이 력사적운동에 더 광범히, 더 적극적으로 참가하면 할수록, 대중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질수록 혁명과 건설, 대중에 관한 령도문제는 더욱 절실한 문제로 제기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혁명적인 령도방법, 주체의 령도방법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전면적으로 완성하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사상에서 새로운 분야를 처음으로 개척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수령의 유일적령도체계와 그것을 확고히 보장하기 위한 일련의 원칙적인 문제들을 해명하시였으며 대중령도의 근본원칙으로서 혁명적군중로선을 창시하시고 그 관철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히시였다. 수령님께서는 또한 주체사상과 혁명적군중로선에 기초하시여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창조하시였다. 그리하여 주체사상에 기초한 혁명적령도체계와 대중령도의 근본원칙,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주체의 령도방법이 전일적으로 체계화되고 완성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령도방법에 관한 리론을 독창적으로 내놓으심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빛나는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는 대중령도방법문제가 과학적으로 해명되게 되였고 주체시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은 새로운 내용으로 발전풍부화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처럼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창시하시여 우리

시대 혁명의 지도사상, 지도리론, 지도방법을 과학적으로 체계화하시였으며 로동계급과 혁명적인민들에게 백전백승의 사상리론적 및 방법론적 무기를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주체의 사상, 리론, 방법을 전일적으로 체계화하시여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과 인류해방위업에 기여하신 탁월한 공적은 시대와 더불어 천대만대에 길이 빛날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것은 우리 당과 인민의 숭고한 의무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혁명투쟁의 실천속에서 그 정당성과 위대한 생활력이 남김없이 검증된 백전백승의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우리 인민의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되여 빛나는 승리를 가져왔으며 대륙과 대양을 건너 온 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다.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인민의 투쟁력사와 오늘 우리 나라에 펼쳐진 자랑찬 현실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가지온 고귀한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민족의 태양으로 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광휘로운 빛발을 받아안은 때로부터 시련을 겪던 조선혁명은 새 력사의 진군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고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우리 인민은 일제와 미제를 반대하는 두 차례의 혁명전쟁에서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여 민족의 영예를 온 세상에 떨치였으며 식민지민족해방의 새시대, 반제반미투쟁의 새로운 앙양의 시대를 열어놓을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백전백승의 혁명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은 해방후 짧은 기간에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과 사회주의혁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였으며 세기적으로 뒤떨어지고, 모든것이 파괴되였던 우리 나라에서 1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에 공업화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을뿐아니라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전변시켰다. 오늘 우리 나라는 주체조선, 천리마조선의 위용을 자랑스럽게 떨치면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위한 력사적진군을 힘차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사회와 자연, 인간을 개조하여 정치와 경제, 사상과 도덕, 교육과 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기적을 낳게 하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은 그 정당성과 진리성으로 하여 날이 갈수록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을 억세게 틀어잡고있으며 그들의 투쟁을 빛나는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해주고있다.

세계의 많은 나라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우리 시대의 가장 정확한 지도사상으로 받아들이고있으며 그를 적극 신봉하고있다. 수령님의 혁명사상은 오늘 거대한 견인력을 가지고 모든 대륙, 모든 지역에 널리 파급되고있으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따라배우는 인민들의 대렬은 끊임없이 늘어나고있다.

모든 사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을 뚜렷이 확증해준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의 기치밑에 우리 혁명은 승리와 영광의 길을 따라 멀리 전진하여왔으며 오늘 새로운 높이에 올라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온 사회를 하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7페지)

우리 당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절박한 요구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혁명적지향, 공산주의운동발전의 합법칙성을 전면적으로 반영하여 온 사회를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가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은 경애하는 수령님을 영원히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천만년 길이 꽃피워나가려는 우리 당의 강철같은 의지와 확고부동한 혁명적결심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이 충성의 전투적구호는 우리 조국의 끝없는 영예와 우리 인민의 영원한 행복의 상징이며 빛나는 승리를 위한 향도의 기치이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실현하기 위한 성스러운 투쟁에 의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우리 당과 인민의 투쟁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서게 되였다.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은 우리 당과 인민이 시대와 혁명 앞에 지닌 가장 책임적이고도 영예로운 사업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가슴깊이 간직하고 온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다그치기 위하여 모든 것을 다바쳐 투쟁하여야 한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무엇보다도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투쟁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떠나서 우리는 혁명도 할수 없고 건설도 할수 없으며 한걸음도 전진할수 없다.

전체 당원들과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수령님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의지로 더욱 굳게 뭉치며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가 하나와 같이 움직여나가는 여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결정적담보가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계시여 우리 혁명의 영광에 찬 과거와 오늘이 있는것처럼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의 향도따라 나갈 때만이 보다 휘황찬란한 래일이 있는것이다. 이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그 어떤 풍파에도 드놀지 않는 확고한 신념이며 철석같은 혁명적의지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영원히 민족의 태양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주체의 조국에서 수령님의 혁명전사로 살며 혁명하는 끝없는 긍지와 영예를 심장깊이 아로새기고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대한 충성의 한마음을 변함없이 간직하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쳐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혁명의 영재이시며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주체시대의 앞길을 빛나게 헤쳐나가는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언제나 승리와 영광만이 있을것이다.

항일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 위대한 혁명투쟁

조 근 혁

항일혁명투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승리한 위대한 혁명투쟁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을 제시하심으로써 우리 혁명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여 우리 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으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시였다. 이 영광스러운 혁명의 나날에 우리 당과 우리 혁명의 만년초석인 혁명전통이 이룩되였다.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마련된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우리 당은 정치에서 자주성을 확고히 견지하고 혁명과 건설을 자주적으로 이끌어나감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고 존엄있는 당으로 강화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주체의 모범으로 세계에 그 이름 떨치고있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마련하신 항일혁명투쟁의 빛나는 전통을 이어받은 긍지와 자부심을 간직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실현해나갈 결의를 더욱 굳게 다지고 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참다운 자주적발전의 력사적시원을 열어놓으시였다.

어리신 시절부터 우리 나라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을 몸소 체험하시였으며 참다운 공산주의혁명리론의 진수를 체득하시고 조선혁명의 원대한 구상을 무르익혀오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에서 일대 변혁을 가져올 새로운 길을 탐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새로 자라난 조선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은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았으며 새로운 혁명적세계관을 가지고 민족주의운동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전혀 다른 혁명의 길을 선택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4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의 민족해방운동과 공산주의운동의 새로운 단계의 성숙된 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시고 선행한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과는 전혀 다른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의 길을 선택하시였다.

원래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발전할것을 요구하고있다.

사회를 변혁하고 자연을 개조하는 로동계급의 혁명투쟁은 인민대중을 온갖 예속과 구속에서 해방하고 그들에게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전면적으로 마련해주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다. 이러한 보람차고 성스러운 혁명투쟁에 나선 공산주의자들은 결코 남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혁명하는것이 아니며 또 남에게 배워서 혁명하는것도 아니다. 오직 자기의 신념, 자기의 주견으로부터 자기 나라와 인민을 제국주의의 예속에서 해방하고 자주권을 가진 인민으로 자유롭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혁명을 하는것이다. 그렇기때문에 매개 나라 공산주의자들은 자기 나라 혁명의 주인

이 되여 어디까지나 자신의 힘으로 자기 나라 인민의 리익과 혁명의 요구를 기준으로 하여 투쟁의 앞길을 개척해나가야 하는것이다.

만약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혁명투쟁에서 자주성을 잃고 자기 머리를 쓰지 않는다면 자기 나라 혁명에 맞는 로선과 정책을 세울수 없는것은 물론 조그마한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면서 혁명을 승리의 한길로 꿋꿋이 이끌어갈수 없다. 뿐만아니라 자신의 힘도 믿지 못하게 되고 혁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주동적으로 풀어나갈수도 없게 된다. 바로 그렇기때문에 남에 대한 의존심을 버리고 자기 머리로 사고하며 자신의 힘을 믿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발양하여 자기 문제를 자신이 책임지고 풀어나가는 자주적립장이야말로 혁명투쟁에서 로동계급의 당과 공산주의자들이 지녀야 할 가장 옳은 립장과 태도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 선행시기의 민족해방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자주성의 원칙에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심중한 약점과 제한성을 가지고있었으며 그것으로 하여 순탄한 발전의 길을 걷지 못하였다.

우리 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은 대중속에 뿌리를 박지 못하고 주로 상층부의 몇몇 사람들을 중심으로 진행되였다.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은 인민대중을 믿고 광범한 대중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각성시킴으로써 대중자신이 주인이 되여 혁명투쟁을 하도록 조직동원할 대신에 인민대중을 떠나서 저들끼리 모여앉아 혁명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말공부로 세월을 보냈다. 또한 이자들은 자기 힘으로 조선혁명을 할 생각은 하지 않고 큰 나라, 큰 당만 쳐다보면서 3인1당, 5인1파식으로 제가끔 종파를 만들어가지고 국제당에 승인받으러 분주히 다녔다. 이러하다나니 우리 인민은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에서 피도 많이 흘렸으나 결국은 실패를 면치 못하였으며 조선혁명은 자주적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심각한 파동속에서 우여곡절을 겪지 않으면 안되였다.

참으로 일제를 반대하는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에서 과연 어떤 힘에 의거해서 강도 일제와 맞서싸우며 간고한 혁명투쟁에서 어떠한 원칙을 견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는 조선혁명의 운명을 좌우하는 근본문제였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의 주인은 우리 인민자신이며 따라서 인민대중을 믿고 대중속에 들어가야 한다는것, 누가 승인을 하든 말든 조선혁명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자신의 로선과 전략전술을 가지고 자기 신념에 따라 혁명을 벌려나가야 한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이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우리 시대 혁명발전의 근본적요구를 반영한 새로운 혁명적세계관, 혁명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불멸의 주체사상이 창시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몸소 창시하신 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지난 시기 민족주의자들이나 초기공산주의운동자들과는 달리 근로인민대중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의 힘에 의거하시여 자주적립장에서 민족적해방과 계급적해방을 위한 투쟁을 벌려나가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사대주의와 종파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의 오물에 물들지 않은 새세대의 참신한 공산주의자들로써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실현하기 위한 첫 공산주의적혁명조직인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시여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을 세상에 선포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타도제국주의동맹을 결성하심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운동과 민족해방운동은 력사상 처음으로 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발전하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위대한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 영광스러운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 *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몸소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시종일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 위대한 혁명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에 조성된 정세를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1930년 6월 카륜에서 공청 및 반제청년동맹 지도성원들의 회의를 여시고 주체적인 혁명로선인 반제반봉건민주주의혁명로선과 항일무장투쟁로선,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과 조선공산당창건방침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이 로선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에게 반제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에서 주체사상을 실현해나갈수 있는 길을 휘황히 밝혀준 가장 정확한 혁명로선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카륜회의방침에 따라 일본제국주의침략자들을 반대하는 항일무장투쟁을 조직전개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의 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조선혁명에 관한 자주적인 로선과 전략전술에 의하여 진행된 위대한 혁명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반봉건사회에서 외래침략자들을 물리치고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하며 착취와 압박을 반대하고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였습니다. 이 투쟁에서 조선의 공산주의자들은 투쟁로선과 방법도 혁명의 전략과 전술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내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우와 같은 책, 5~6페지)

항일무장투쟁은 그 첫시기부터 오직 자기 머리로 사고하고 자기 신념에 기초하여 조선혁명에 맞는 투쟁로선과 전략전술을 탐구하지 않으면 안되였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식민지나라에서 공산주의자들에 의하여 지도된 첫 민족해방전쟁이였다. 따라서 공산주의자들이 식민지민족해방전쟁을 어떻게 령도하며 그 승리를 어떻게 이룩할것인가 하는 문제는 아직 그 누구에 의해서 제기되지도, 해명되지도 않았던 문제였으며 본보기로 삼을만한 다른 나라 경험도 없었다. 더우기 우리 인민의 항일무장투쟁은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이룩해야 할뿐아니라 피압박근로대중의 계급적해방을 동시에 실현해야 하는 혁명의 기본임무로부터 종전의 혁명운동에서는 제기되지도 않았던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들이 수많이 제기되였다. 바로 항일무장투쟁은 자기앞에 나선 이 모든 문제들을 옳게 풀어나가지 않고서는 전진할수도 승리할수도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나라 민족해방투쟁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교훈과 우리 혁명이 처한 환경을 과학적으로 통찰하시고 혁명앞에 제기되는 이 모든 문제들을 오직 자주적으로 풀어나갈 때만이 비운에 처한 조국과 민족의 운명을 구원할수 있으며 혁명투쟁에서 승리할수 있다는것을 명백히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시여 독창적인 항일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였다.

당시까지만 하여도 선행경험은 로동계급의 계급적해방과 정권전취의 방도로서 전인민적폭동형식과 그것을 준비하기 위한 보조적수단으로서의 유격투쟁형식만을 알고있었다. 그러나 선행경험이나 기성리론이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의 실정에 그대로 들어맞을수 없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식민지나라들에서의 구체적인 계급관계와 력량관계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데 기초하시여 억압당하는 인민들의 자유와 해방은 오직 혁명적폭력, 무장투쟁으로써만 이룩될수 있다는 사상을 천명하시고 상비적인 무력에 의한 유격전을 기본으로 하고 그에 대중정치투쟁을 배합하는 투쟁방침을 제시하심으로써 반제민

족해방투쟁의 리론과 전략전술을 새롭게 전면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무장투쟁로선을 제시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행정에서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독창적인 로선들과 전략전술들을 창조해나가심으로써 조선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줄기차게 반전하여나갈수 있었다.

항일무장투쟁은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을 저애하는 온갖 반혁명적책동을 반대하는 견결한 투쟁속에서 더욱 승승장구하게 되였다.

조선공산주의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의 심각한 교훈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대주의, 교조주의, 종파주의 등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들을 철저히 극복하지 않고서는 혁명운동을 자주적으로 발전시킬수 없다. 종파사대주의자들은 항일무장투쟁시기에도 혁명운동에 적지 않은 해독을 끼쳤으며 좌경모험주의자들과 민족배타주의자들도 계급적립장을 떠나 민족리기주의적목적을 추구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을 각방으로 저애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이 발전하는 행정에서는 종파사대주의자들과 좌경모험주의자들의 책동으로 말미암아 혁명앞에 여러차례의 난국이 조성되였으나 그때마다 위대한 수령님의 자주적인 립장과 헌신적이며 단호한 투쟁에 의하여 조선혁명은 위기에서 구원되였다.

이렇듯 항일무장투쟁은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혁명로선을 반대하는 온갖 반혁명적사상조류들과의 비타협적인 투쟁속에서 발전하여왔으며 승리의 길을 개척하여왔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제국주의를 타승한 위대한 혁명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력량을 끊임없이 장성시키는것은 혁명투쟁에서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근본조건의 하나입니다. 그렇기때문에 우리는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에 자체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을 가장 중요한 과업으로 내세웠으며 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였습니다.》(《외국기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146페지)

우리 인민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자기 힘을 믿고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싸운다면 이며한 제국주의침략자도 능히 쳐부실수 있다는 위대한 수령님의 반제자주사상에 의해서 지도됨으로써 식민지예속국가인민이 자기 힘으로 제국주의를 타승한 세계 최초의 위대한 혁명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에 벌써 조선혁명의 주인은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며 우리 혁명의 승리의 결정적요인도 우리 인민자체의 힘에 있다는 데로부터 출발하시여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의거하여 조선혁명의 승리를 달성할데 대한 자주적인 전략사상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사상은 식민지인민들은 종주국의 혁명에 의거함으로써만 민족해방을 달성할수 있다는데로부터 종주국혁명을 돕는것을 그들의 선차적임무로 인정하던 종래의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기성리론과는 완전히 구별되는 새롭고 독창적인 사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을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벌리시기 위해서 무엇보다먼저 항일유격대를 정치사상적으로, 군사적으로 강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시였다. 항일혁명전쟁을 수행하는 상비적혁명무력이며 조선혁명의 핵심부대인 항일유격대를 튼튼히 꾸림으로써만 그에 의거하여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릴수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유격대오의 조직사상적순결성과 사상의지의 통일을 확고히 보장하며 모든 유격대원들을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장시킴으로써 항일유격대를 불패의 혁명대오로 키우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유격대를 강화하시는것과 함께 혁명의 대중적지반을 튼튼히 닦으시며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군중을 묶어세우시여 혁명투쟁에 조직동원하시였다. 특히 무장투쟁이 유격전의 형식으로 진행되는 조건에서 항일유격대와 광범한 인민들과의 련계를 강화하고 인민들로 하여금 유격대를 백방으로 지지성원하도록 하며 그들을 반일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하는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여기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전반적인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앙양시키며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는데서 커다란 역할을 놀았다. 1936년 5월 5일, 위대한 수령님에 의하여 창건된 조국광복회는 우리 나라에서 첫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로서 조국광복을 위한 공동투쟁의 기치밑에 조선의 모든 애국력량을 총동원집결하는데서와 항일유격대를 강화하고 무장투쟁을 중심으로 조선혁명을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킴에 있어서 불멸의 업적을 남기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면불휴의 투쟁에 의하여 항일유격대를 핵심부대로 하여 광범한 로동계급과 농민을 결속한 혁명의 주력군이 튼튼히 꾸려지고 반제적이며 반봉건적인 모든 력량이 일제를 반대하는 투쟁전선에 튼튼히 결속됨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이 확고하게 꾸려지게 되였으며 일제와 반동세력은 철저히 고립되고 적아간의 력량관계는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되였다.

그리하여 조선혁명은 외부의 어떠한 압력에도 드놀지 않으며 종파주의자, 사대주의자, 교조주의자들의 그 어떤 책동에도 끄떡함이 없이 확고한 주체적혁명력량에 의거하여 자주적인 길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우리 인민자체의 힘으로 강도 일제를 쳐부시기 위한 조선혁명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을뿐만아니라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양하여 투쟁에 필요한 모든것을 다 자체로 해결하는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국가적후방도 없고 정규무력의 지원도 받지 못하는 조건에서 발톱까지 무장한 강도 일제를 반대하여 싸우는 매우 간고한 투쟁이였습니다. 그때 우리가 믿을것이란 오직 근로인민대중밖에 없었으며 무기와 탄약,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싸우지 않으면 안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6페지)

항일무장투쟁은 력사상 류례없는 간고한 투쟁이였다. 다른 나라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략탈로 강대해지고 최신무기로 장비한 수백만의 침략군대를 가진 강도적인 일본제국주의를 상대로 조직전개한 항일무장투쟁은 그 첫걸음부터 간고하였다. 항일무장투쟁은 그 어떤 국가적후방도 없고 외부의 지원도 받을수 없는 조건에서 이루 형언할수 없는 곤난과 엄혹한 시련을 다 겪어야만 하였다.

그러나 항일유격대는 무기와 식량을 비롯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원쑤들과의 피어린 투쟁속에서 자체로 해결하면서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한두해도 아닌 15성상을 하루와 같이 싸워왔다.

항일무장투쟁시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은 필요한것은 찾아내고 없는것은 만들어내며 자체의 힘으로 투쟁의 길을 개척해나가는데서 높이 발양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에게 있어서 발끝까지 무장한 일제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무기가 필요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한 항일유격대원들은 그 누가 무기를 가져다줄것을 앉아서 기다린것

이 아니라 자기 힘으로, 자기의 피와 생명을 바쳐 그것을 쟁취하였다.

항일유격대원들은 적의 무기를 빼앗아 자신을 무장하였을뿐만아니라 온갖 지혜와 창발성을 발휘하여 애로와 난관을 뚫고 자기 힘으로 무기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혁명을 하자고 머리를 쓰면 방도가 나왔다. 항일유격대원들이 풍구와 메, 집게와 같은 원시적인 야장도구를 가지고 위력한 《연길폭탄》을 만들어 원쑤를 전률케 한 사실은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져있다. 물론 《연길폭탄》이 나오기까지에는 애로와 난관이 수없이 많았으나 항일유격대원들은 《억천만번 죽더라도 원쑤를 치자》라는 불굴의 혁명적투지로 끝까지 해내고야말았다.

실로 항일무장투쟁의 전과정은 혁명에 필요한 무기와 탄약, 식량과 피복 등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하면서 원쑤와 싸워온 간고한 투쟁의 길이였으며 어떠한 역경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끝까지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한 불요불굴의 투쟁의 력사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항일무장투쟁은 투쟁로선과 방법, 혁명의 전략과 전술을 다 자기 머리로 생각해냈으며 주체적힘에 의거하여 필요한 모든것을 자체로 해결한 철두철미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진행된 위대한 혁명전쟁이였다.

우리 인민의 영웅적항일무장투쟁은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투쟁의 매 단계마다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을 확고히 견지함으로써 강도 일제를 타승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었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해방후 자주성의 원칙에서 혁명앞에 제기된 모든 문제들을 독창적으로 해결하였다. 그리하여 두개의 사회혁명을 승리적으로 완수하였으며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에서 원쑤들에게 수치스러운 참패를 안겨주고 조국과 민족의 자주권을 영예롭게 지켜냈다. 우리 인민은 전쟁에 의하여 모든것이 다 파괴된 어려운 조건에서도 주체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추켜들고 힘차게 싸워나감으로써 온갖 난관과 시련을 박차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여 우리 나라를 자주, 자립, 자위의 사회주의강국으로 일떠세웠다.

참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혁명이 걸어온 빛나는 로정은 이 땅우에 위대한 창조와 변혁의 새시대를 펼쳐놓은 거창한 투쟁의 력사이며 민족의 자주권과 나라의 독립을 위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온 투쟁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창시하시고 혁명실천을 통하여 그 정당성과 불패의 생활력이 남김없이 확증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우리 혁명이 승승장구하는 불패의 힘의 원천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의 승리를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자주성의 원칙에 의해서 진행된 항일혁명투쟁의 위대성을 깊이 인식하고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대를 이어 굳건히 계승발전시켜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자

리 봉 원

오늘 조성된 정세와 당앞에 나서고 있는 혁명임무는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철통같이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릴것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다.

특히 우리 황해남도는 연선지대에 위치하고있으며 주민구성이 복잡한 사정으로부터 당을 지지하고 따르는 광범한 군중을 굳게 결속하여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져야 할 과업이 나서고있다.

우리는 군중과의 사업을 심화시킬데 대하여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우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들의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치고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앞당겨나가야 한다.

* *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당사업과 당활동의 근본원칙이며 혁명승리의 결정적담보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혁명의 참모부인 당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이 중요합니다. 군중을 묶어세우지 않고서는 당자체도 강화할수 없고 혁명도 할수 없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2폐지)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혁명과 건설을 령도함에 있어서 당은 각계각층의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튼튼히 묶어세워야만 불패의 힘을 가질수 있으며 어떠한 원쑤도 능히 타승하고 아무리 어려운 혁명과업도 훌륭히 수행할수 있다. 원래 당이란 대중적지반에 기초한 조직으로서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는것은 당 활동의 근본문제의 하나이다.

혁명에서의 승패는 결국 군중을 많이 전취하는가 못하는가에 달려있다.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려야만 온갖 계급적원쑤들의 준동을 이겨낼수 있으며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우리 당은 오늘 전당과 온 사회를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수행하고 있다.

당의 이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은 사람과 사회를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숭고한 력사적사업이다.

이 성스러운 위업은 매우 높은 요구이며 어려운 과업으로서 이를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고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움직이는 참다운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어야 한다.

오직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그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충성의 대오로 튼튼히 꾸려야만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갈수 있다.

그러므로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그들을 주체형의 혁명대오로 튼튼히 꾸리는가 못꾸리는가 하는것은 우리 혁명위업의 성과적수행을 위한 근본문

제이다.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은 또한 미제의 새 전쟁 도발책동과 조국통일의 혁명적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하여야 할 사정과 관련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지금 우리 나라에서는 미제와 남조선반동들의 민족분렬정책과 새 전쟁 도발책동을 저지파탄시키고 조국의 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을 반대하는 전민족적투쟁인 동시에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사이, 혁명과 반혁명사이의 날카로운 계급투쟁입니다. 이 투쟁에서의 승패는 결국 누가 더 많은 군중을 쟁취하는가 하는데 달려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13페지)

우리는 아직도 전국적판도에서 완전한 민족적해방을 이룩하지 못하였으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우리 혁명은 복잡성과 간고성을 띠고있다.

오늘 미제국주의자들은 남조선을 영원히 거머쥐려고 미쳐날뛰고있으며 공화국북반부를 반대하는 새로운 침략전쟁준비를 끊임없이 감행하고있다.

한편 적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뭉친 우리 인민의 통일단결을 내부로부터 와해시키려고 갖은 발악적책동을 다하고있다.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과 남조선괴뢰도당의 이러한 책동에 대처하여 광범한 군중을 굳게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대오를 불패의 대오로 더욱 튼튼히 꾸려야 적들과의 군사적대결에서나 정치적대결에서 승리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할수 있다.

광범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리는것은 우리나라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의 복잡성과도 관련된다.

우리 인민은 오랜기간에 걸치는 일제의 식민지통치와 미제에 의한 나라의 분렬로 말미암아 수난의 력사를 걸어왔으며 더우기 조국해방전쟁시기에 있은 적들의 리간책동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사회정치적구성에는 많은 복잡성이 생기게 되였다. 특히 우리 황해남도는 지역적위치로부터 적들의 만행과 리간책동이 심하였던 관계로 주민구성이 매우 복잡하다. 이러한 조건에서 광범한 군중을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시키는 한편 광범한 군중을 다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확고히 묶어세워야 하며 그들이 진심으로 당을 지지하고 따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오늘 우리 인민은 간고한 혁명투쟁의 실천투쟁속에서 단련되였으며 사회계급적처지와 각오정도에서 크게 달라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구현한 우리 당의 옳은 군중교양사업에 의하여 지난날 복잡한 성분을 가졌던 많은 사람들이 혁명투쟁과정에서 단련되고 검열되였으며 그들의 자녀들도 우리 사회주의제도하에서 혁명적교양을 받아 당에 충실한 새세대로 자라났다.

변화된 현실에 맞게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는것은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강화하는데 있어서 극히 중요하다.

각계각층 군중을 확고히 전취하여 우리의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린다면 그만큼 우리의 혁명력량을 강화할수 있을뿐아니라 남조선인민들에게도 커다란 정치적영향을 주어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을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묶어세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투쟁을 조직령도하시는 첫시기부터 군중과의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광범한 대중을 전취하는 문제를 훌륭히 해결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은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고 그들의 무궁무진한 힘을 발동하여 혁명과 건설을 밀고나갔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2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광범한 반일혁명력량을 튼튼히 묶어세워 혁명력량을 반석같이 꾸리신 풍부한 경험에 기초하시여 해방후 혁명발전의 매 시기, 매 단계마다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독창적이며 과학적인 로선과 방침을 제시하시고 안팎의 온갖 원쑤들과의 치렬한 투쟁속에서 당을 끊임없이 확대강화하여 각계각층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우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을 정확히 조직령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밀접히 결합시켜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으로써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리고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극소수의 계급적원쑤들에 대한 독재를 강화하는 원칙을 일관하게 견지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관하게 견지하여오신 군중과의 사업원칙은 대중전취와 혁명력량편성에 관한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전략전술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 바쁘신 가운데서도 사회정치적구성이 복잡한 황해남도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헤아리시고 우리 도를 현지에서 지도하시면서 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 혁명대오를 튼튼히 꾸릴데 대한 강령적인 교시들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의 원대한 구상을 실현하시기 위한 사업에 분망하신 가운데서도 1945년 11월 황해남도를 현지지도하여주시였다.

해주시에 찾아오신 수령님께서는 해주기계제작소 로동계급을 먼저 찾으시여 로동자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일제의 학정아래 얼마나 고생하였는가고 하시면서 조선의 주인은 조선로동계급이라고 크나큰 정치적신임을 안겨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해남도에 오실 때마다 공장과 광산, 산간과 벽방할것없이 로동자, 농민들이 일하는곳이라면 그 어데나 찾아가시여 기대옆에서, 논밭머리에서 로동자, 농민들과 무릎을 마주하시고 나라의 정사를 의논하시며 이름없는 로동자, 농민의 가정을 찾으시여 살림살이까지 친어버이사랑으로 보살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전사자, 피살자 유가족들을 한품에 안으시여 우리 당의 기둥으로,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유가족들은 혁명의 꽃을 계속 피우라고 간곡히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간부양성기관에 보내주시고 당과 국가의 중요한 위치에서 나라의 역군으로 일하도록 하는 가장 높은 사랑을 베풀어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복잡한 군중들도 한품에 안으시고 그들의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현지지도의 바쁘신 길에 남으로 끌려나간 사람의 가족들을 몸소 만나시여 그들의 심정을 깊이 헤아리시고 당을 믿고 일을 잘하며 공부도 더하여 로력영웅도 되고 당에도 들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상처입은 가슴마다에 새 희망과 용기를 안겨주시였다.

특히 우리 도안의 일군들에게 변천된 새로운 현실에 맞게 당조직사업을 개선강화하기 위한 강령적인 교시를 주시였을뿐아니라 군중과의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릴수 있도록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참으로 어버이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군중과의 사업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과 그이의 현명한 령도에는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제외한 광범한 군중을 튼튼히 묶어세워 우리의 혁명대오를 주체형의 참다운 공산주의자들의 집단으로 만드시려는 크나큰 사랑과 은덕이 깃들어있다.

*　　*

오늘 우리앞에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온 사회의 반석같은 통일단결을 보다 새로운 높은 단계에서 이룩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제기되고있다.

무엇보다도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결합시킬데 대한 우리 당의 일관한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확고히 전취하여야 한다.

계급로선과 군중로선을 관철하는데서 우선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기본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입니다. 기본군중을 잘 교양하여 그들의 계급적각성을 끊임없이 높여야 우리 혁명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하고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51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기본군중은 우리 당이 의거하고있는 계급적지반이다. 그러므로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을 잘 교양하고 정치적각성을 높여야 당의 계급적진지를 강화하고 혁명의 기본부대를 튼튼히 꾸릴수 있으며 각계각층 군중을 전취하는 사업도 성과적으로 진행할수 있다.

특히 당원들과 군중핵심들을 계급적으로 더욱 각성시키며 그들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만드는것은 광범한 대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서 나서는 관건적고리의 하나이다.

당조직들은 기본군중을 정치사상적으로 각성시키기 위한 사상교양사업을 부단히 강화하는 동시에 그들이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혁명의 주력군답게 자기의 역할을 일층 높이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들은 기본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각계각층 군중들과의 사업을 잘하여야 한다.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다 열렬한 혁명가,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며 그들이 주체사상의 기치따라 끝까지 싸워나가도록 하는것은 우리의 혁명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게 할뿐아니라 적들이 발붙일수 있는 지반을 없애고 적들을 와해하고 고립시키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진다.

그것은 또한 우리의 혁명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게 하며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촉진시킬수 있게 한다.

당조직들은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에서 본인의 현재의 동향을 기본으로 매 사람들을 평가하며 사람들을 믿고 실천을 통하여 검열하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군중사업원칙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혁명의 편에 설수 있는 모든 력량을 한사람이라도 더 많이 전취할수 있다.

당조직들은 간부들과 당원들 속에서 혁명적군중관점을 철저히 세우며 사회정치생활경위가 복잡한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진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계급적분해를 더욱 촉진시키며 적대분자들에게는 독재를 실시하며 쟁취할수 있는 사람들은 다 교양개조하여 혁명의 편에 튼튼히 묶어세워야 한다.

특히 군중과의 사업에서 고립선과 교양선을 틀어쥐고 각계각층의 모든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고립선과 교양선을 틀어쥐고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은 고립대상과 쟁취대상을 똑똑히 갈라놓고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에 대한 독재와 광범한 대중을 쟁취하는 사업을 다 같이 잘하게 하는것으로서 우리의 혁명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할수 있게 하는 가장 적극적인 방침이다.

우리들은 당이 제시한 이 독창적인 방침을 확고히 틀어쥐고 당의 혁명적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온 사회

의 주체사상화의 위업에 맞게 우리의 혁명대오를 반석같이 다져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하는데서 또한 중요한것은 정연한 군중사업체계를 세우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군중을 당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기 위하여서는 정연한 군중사업체계를 세워야 합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17페지)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 사업은 모든 당원들과 광범한 군중핵심들이 적극 참가하여야 성과를 거둘수 있다.

당조직들은 당원들의 선봉적역할을 높여 군중핵심들을 교양하고 그 핵심들이 군중을 교양하도록 하여 군중을 교양하고 묶어세우는 사업을 대중화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을 대중화하는데서 근로단체를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하는 대중지도의 근본원칙을 철저히 관철함으로써 정연한 군중사업체계를 세워야 한다.

당이 광범한 인민대중을 자기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자면 당밖에 있는 광범한 군중을 망라하고있는 근로단체들의 역할을 백방으로 높여야 한다.

근로단체들이 발동되여 비당원군중을 교양하고 그들을 당의 로선과 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적극 일떠세워야만 당은 인민대중을 자기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울수 있고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수령님께서는 근로단체를 통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할데 대한 혁명적인 원칙을 밝히심으로써 당이 대중에 대한 혁명적령도를 확고히 실현하며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릴수 있게 하는 위력한 지침을 마련하여주시였다.

당조직들은 정연한 군중사업체계에 의거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결정적으로 개선강화하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주체형의 열렬한 혁명가로 만드는 사업을 성과적으로 밀고나가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체계는 일군들의 정치실무수준을 높일 때 은을 나타내게 된다.

경험은 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수준이 높지 못하면 군중속에 대담하게 접근하지 못하며 군중과의 사업을 자유자재로 능란하게 벌릴수 없다는것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일군들이 군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군중과의 사업에서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에서 묘술을 찾아내고 군중과의 사업을 원만하게 벌릴수 있도록 방법론을 대주어야 한다. 그리하여 군중과의 사업이 중단됨이 없이 일상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되도록 하여야 한다.

군중과의 사업에서 중요한 다른 하나는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입니다.》(우와 같은 책, 25페지)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개선하는것은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함에 있어서 제기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당사업은 간부들과 당원들 그리고 광범한 군중을 교양하여 수령님의 두리에 튼튼히 묶어세우며 그들이 진심으로 혁명투쟁에 떨쳐나서게 하는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이다. 사람들과의 조직정치사업인 당사업은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직접적으로 의존한다.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작풍을 소유하여야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군중사업원칙과 방침을 정확히 관철할수 있으며 대중으로 하여금 당의 지도와 교양을 적극 받아들이게 할수 있다. 또한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작풍을 가져야만 광범한 군중을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고 그들을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 관철에로 힘있게 조직동원할수 있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당사업, 군중과의 사업을 개선강화하자면 바로 혁명적사업방법과 작풍을 전당에 확고히 세워야 한다.

현실은 군중을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서 초급정치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주는것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초급일군들은 군중과 일상적으로 접촉하며 그들과 함께 일하며 생활한다. 또한 당의 로선과 정책은 초급정치일군들에 의하여 직접 군중속에 침투되고 관철된다. 따라서 이들의 사업방법과 작풍을 바로잡아주는것은 광범한 군중을 당의 두리에 더욱 튼튼히 묶어세우며 당정책의 성과적관철을 보장하는 근본요구로 된다.

초급일군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속에서 인민대중이 혁명의 주인이라는 관점과 태도를 바로세우기 위한 교양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일군들이 군중에 대한 옳은 관점과 태도를 가지고 혁명의 근본원리로부터 군중을 아량있게 포섭하며 설복과 교양을 원칙적인 비판과 결합하여 군중과의 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갈수 있다.

일군들속에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을 바로세우기 위한 사업은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반대하는 사상투쟁과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사업방법과 작풍은 사람들의 사업능력이나 성격상의 문제가 아니라 사상의 표현이다. 일군들의 사상관점을 똑바로 세우지 않고서는 사업방법과 작풍을 개선할수 없다. 낡은 사업방법과 작풍을 없애기 위한 사상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모든 일군들이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가지고 당과 혁명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도록 할수 있으며 쟁취할수 있는 모든 군중을 혁명의 편에 확고히 전취하여 이끌어나갈수 있다.

당조직들은 일군들속에서 행정식사업방법, 행정대행, 당세도, 관료주의를 뿌리빼기 위한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며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도록 하게 하여야 한다.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은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을 강화할 때 더욱 성과적으로 진행될수 있다.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우는데서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방도들은 당조직들의 조직지도사업이 안받침되지 않고서는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수 없다.

당조직들은 군중과의 사업을 일상적으로 장악하면서 도와주는 사업체계를 철저히 세우고 모든 일군들이 군중과의 사업에 늘 관심을 돌리고 편향이 나타나지 않도록 도와주는 동시에 지도통제하는 사업을 일층 강화하여야 한다.

특히 군중과의 사업에서 당위원회부서들이 배합작전, 협동작전을 잘하여 본보기를 만들고 그를 일반화하며 세부교양을 들이대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군중과의 사업을 당위원회적인 사업으로 확고히 전환시키며 광범한 군중을 교양개조하기 위한 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야 한다.

모든 당조직들과 일군들은 각계각층 군중과의 사업을 강화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여 극소수의 적대분자들을 제외한 광범한 군중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철석같이 묶어세움으로써 우리의 혁명대오를 더욱 튼튼히 꾸리며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빛나게 앞당겨나가야 할것이다.

청년들은 대를 이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가 되자

장 민 룡

오늘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전체 인민들과 청년들이 승리에 대한 신심에 넘쳐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영광스러운 당의 부름따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 있는 장엄한 환경속에서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창립 30돐을 뜻깊게 맞이한다.

이날을 맞이하여 전체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몸소 사로청을 세워주시고 튼튼히 키워오시였으며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현명하게 령도하여주시는 혁명의 영재이시며 우리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 다함없는 흠모의 정을 담아 삼가 최대의 영예와 감사를 드리고있으며 어버이수령님께와 당중앙에 끝까지 충성다할 불타는 결의를 다지고있다.

오늘 지구상에는 수많은 청년조직이 있지만 직접 력사적뿌리를 마련해주시고 청년동맹을 세우시였으며 청년동맹을 당 다음가는 중요한 정치조직으로 키우시고 현명하게 이끌어나가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해빛보다 따사로운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사랑속에서 창립 30돐을 맞는 청년동맹은 오직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뿐이다.

참으로 사로청은 혁명의 영재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시며 전설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 하여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따라 승리와 영광의 길을 자랑스럽게 걸어올수 있었다.

* *

사로청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력사적뿌리를 마련하여주시고 직접 창건하여주신 어버이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청년동맹이다.

사로청은 창건된지는 30년밖에 되지 않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 몸소 이룩하신 반세기에 걸치는 청년운동의 가장 빛나는 혁명전통을 가지고있으며 조선공산주의청년운동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밀접히 결부되여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초기부터 청년들을 사회혁명과 새 사회건설에서 가장 생기있고 적극적인 부대로 보시고 청소년사업에 중요한 의의를 부여하시였으며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를 빛나게 구현하시여 청년운동을 직접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우리 나라에서 처음으로 공산주의청년운동의 길을 빛나게 개척하시였다.

특히 1926년, 위대한 수령님에 의한 타도제국주의동맹의 결성은 조선공산주의운동과 청년운동을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밑에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는 출발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을 묶어세워 반제청년동맹, 조선공산주의청년동맹을 비롯한 혁명적인 청소년조직들을 조직하시고 일찌기 그 누구도 내놓지 못한 공산주의청년운

동의 독창적인 로선과 강령을 제시하시였으며 청소년들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로 힘있게 이끄시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청년운동은 확고한 계급적립장과 철저한 반제적립장에 서게 되고 로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대중속에 깊이 들어가게 되였으며 혁명적청소년조직의 건설원칙과 고귀한 전통이 이룩됨으로써 우리 나라 공산주의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력사적뿌리가 마련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몸소 다년간 키우신 조선혁명군대원들과 공산주의청년동맹, 반제청년동맹의 핵심들을 골간으로 한 애국적청년들을 망라시켜 항일유격대를 창건하신후 간고한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속에서 공산주의청년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확대발전시키시였다.

이러한 행정에서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에 기초한 유일사상체계의 확립,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서의 혁명적청년동맹의 건설과 활동에서의 고귀한 업적과 풍부한 경험, 청년일군들의 사업작풍과 청년적인 사업방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청년운동의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이 마련되였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신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적영웅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해방직후 그처럼 복잡하고 어려운 정세하에서도 혁명의 참모부인 주체형의 당, 조선로동당을 창건하신데 뒤이어 지체없이 당의 전투적후비대인 민청을 조직하는 사업에 착수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초기혁명활동시기부터 직접 청년사업을 조직령도하여오신 풍부한 경험을 토대로 하시여 그리고 해방후 조성된 정세와 우리 나라 청년운동발전의 특성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신데 기초하시여 《민주주의기발아래 애국청년들은 단결하라!》는 구호밑에 대중적청년조직인 민청을 창건할데 대한 가장 정당하고도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청년들은 아직까지 자기의 광범한 조직체를 가지지 못하고있습니다.…

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기 위하여서는 새 민주조선 건설의 주요역군이 될 우리 청년들의 광범하고도 통일적인 민주주의적단체를 조직하는것이 필요합니다.》(《청소년사업과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의 임무에 대하여》, 제1권, 3～4페지)

애국적이며 진보적인 민주청년들을 망라하는 유일한 대중적청년조직을 건설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이 방침은 청년들의 력량을 사분오렬시키고 혁명의 전진을 가로막으려고 미쳐날뛰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파괴모략책동을 짓부시고 수백만 청년들을 굳게 결속하여 당의 두리에 묶어세울수 있게 한 가장 정당한 방침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현명한 방침과 그이의 직접적인 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청년운동을 분렬파괴하려던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의 온갖 책동은 제때에 분쇄되고 민청을 창건하는 사업이 성과있게 추진되였다.

그리하여 1946년 1월 17일,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이께서 이룩하신 청년운동의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조선민주청년동맹이 창립되였다.

이때로부터 우리 나라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가장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간직하고 자기들의 혁명조직에 망라되여 어버이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보람찬 혁명투쟁에 몸바쳐나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창건된 민주청년동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히 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그가 지닌 사명과 임무를 원만히 수행하도록 항상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혁명발전의 매시기, 매 단계마다 청년운동이 나아갈 앞길을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특히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하고 사회주의건설이 전면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민청을 사로청으로 개편하시고 청년동맹의 임무를 새롭게 제시하시였으며 주체사상으로 무장한 새세대들이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서 근위대, 선봉대로서의 역할을 놀도록 청년운동을 보다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주시였다.

사로청은 어버이수령님의 따사로운 사랑속에서 자라난 불패의 혁명조직이며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과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것을 다바쳐 투쟁하는 당의 전투적후비대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을 령도하시는 그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언제나 사로청사업에 중대한 의의를 부여하시고 혁명발전의 매 시기 청년운동의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교시들을 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청년운동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을 창시하시고 이때까지 그 누구도 제기하지 못했고 또 제기할수도 없었던 청년운동에 관한 제반 리론실천적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옳게 해명하시고 체계화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혁명의 계승자에 관한 문제 즉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하는 문제를 청년운동의 본질적요구로 보시고 청년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우고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그들을 사회변혁과 새 사회 건설의 훌륭한 역군으로, 혁명의 위력한 후비군으로 키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력사적사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며 빛내여나갈데 대한 창조적사상을 내놓으심으로써 공산주의청년운동의 임무를 력사상 처음으로 명확히 밝혀주시였다.

따라서 사로청의 가장 영예로운 력사적사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여주신 빛나는 혁명전통을 계승발전시키며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모시고 견결히 옹호보위하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들은 사로청의 모든 사업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조선청년운동의 앞길을 등대처럼 환히 밝혀주시였을뿐아니라 사로청이 자기 사업을 마음껏 벌려나갈수 있도록 가장 훌륭한 조건을 마련하여주시고 청년일군들과 청년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에도 비길수 없는 따사로운 사랑과 은정을 베풀어주고계신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오늘 당은 온 사회를 어버이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강화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향과 방도를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맡겨진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여나갈수 있는 방법론과 묘술을 찾아주며 우리 사로청일군들과 청년들에게 끝없는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고있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가 있음으로 하여 사로청일군들과 청년들은 지금 세계 그 어느 나라 청년조직도 가지지 못한 가장 좋은 사업조건에서 청년사업을 힘있게 벌려나가고있으며 사로청은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혁명적지도체제가 꽉 들어찬 전투적인 혁명조직으로, 세계청년운동의 본보기로 강화발전되였다.

*　　　　*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력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공산주의청년운동의 새 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그것을 매 혁명발전단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신 그이의 현명한 령도의 빛나는 력사이며 사로청

원들과 청년들이 오직 몸과 마음 다바쳐 어버이수령님께 충성을 다하여온 투쟁과 승리의 력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항일혁명투쟁의 깊은 뿌리에서 자라났으며 그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전체 청년들은 우리 나라에 착취와 압박이 없는 새 사회제도를 창설하는 투쟁에서, 우리 조국을 부강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일떠세우는 위대한 건설사업에서 자기들의 정력과 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였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6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여 그이께 무한히 충성다하는것은 조선청년들의 확고부동한 원칙으로, 그들의 굳은 신조로 되여있다.

조선혁명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 초기혁명활동시기와 영웅적항일혁명투쟁시기 어버이수령님께서 몸소 키우신 젊은 공산주의자들과 공청원들은 언제 어디서나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면서 혁명투쟁과정에 부닥치는 난관과 시련을 앞장서서 뚫고나갔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명령지시를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는 투쟁에서 청춘도, 생명도 서슴없이 바쳤다.

일제의 식민지통치기반에서 해방된 조선청년들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뭉쳐 그이께서 부르신 새 조국 건설을 위한 투쟁에 한결같이 일떠섰으며 인민정권을 세우고 토지개혁을 비롯한 제반 민주개혁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에 적극 참가하여 우리 나라 북반부에 혁명적민주기지를 창설하며 튼튼히 하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백전백승의 강철의 령장이시며 위대한 군사전략가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청년들은 미제와 그 주구들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에서 조국청사에 길이 빛날 영웅적위훈을 세웠다.

전후시기 우리 나라의 형편은 매우 어려웠으며 조성된 국내외정세는 매우 복잡하였다.

그러나 우리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 제시하신 사회주의경제건설의 기본로선을 높이 받들고 그이의 부르심따라 해주—하성간 철도부설공사장으로, 송남청년탄광으로, 새 발전소건설장과 철도전기화공사장으로, 대규모공장건설장과 청춘의 활무대인 바다와 천고밀림으로, 사회주의농촌과 현대적도시건설장으로 용약 진출하여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특히 청년들은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을 비롯한 온갖 계급적원쑤들이 당을 공격하여나섰을 때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고 목숨으로 사수하였으며 보수주의, 소극성, 신비주의를 짓부시며 천리마대진군의 앞장에 서서 어버이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당의 로선과 정책을 끝까지 옹호관철하였다.

또한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독창적인 공업화로선과 경제건설과 국방건설을 병진시킬데 대한 혁명적로선을 높이 받들고 언제나 어렵고 힘든 일에 앞장서서 청춘의 정력과 지혜를 다바쳐 투쟁함으로써 공업화의 어렵고 복잡한 력사적과업을 단 14년밖에 안되는 짧은 기간에 빛나게 실현하여 우리 나라를 강력한 사회주의공업국가로 전변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이 장엄하고 보람찬 혁명투쟁속에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리에 수백만 청소년들을 철석같이 결속시켰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대를 이어 빛내여가는 당의 믿음직한 전투적후비대로, 당의 유일사상체계가 꽉 들어찬 전투대오로, 어떠한 시련과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오직 앞으로만 전진하는 불패의 혁명대오로 강화발전하였다.

조선청년운동이 걸어온 빛나는 력사와 그 전투적로정우에 아로새겨진 모든 성과와 업적들은 사로청의 창건자이시며 탁월한 령도자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현명한 령도와 육친적배려에 의해서만 이룩될수 있었다.

조선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은 지난날에 그러하였던것처럼 앞으로도 영원히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으며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음으로써만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투쟁에서 오직 승리와 영광의 한길로 곧바로 전진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근위대, 결사대, 당의 친위대, 돌격대로서의 영예로운 사명을 빛나게 수행하여나갈수 있다.

*　　　*

오늘 사로청조직들과 사로청원들 앞에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더욱 높은 단계로 강화발전시킴으로써 자라나는 새세대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고 전동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야 할 영예롭고도 숭고한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국을 완전히 해방하고 나라의 통일을 실현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할 때까지 그리고 온 세상에서 제국주의를 타승할 때까지 대를 이어 혁명을 계속할 영예로운 임무가 바로 당신들, 우리 시대 청년들에게 맡겨져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63페지)

사로청이 자기앞에 나선 력사적과업을 원만히 수행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것은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소년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철저히 준비시키는것이다.

조국의 장래운명을 걸머지고나갈 혁명의 후비대인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을 당의 유일사상, 불멸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과 당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지닌 열렬한 혁명가로 키워야만 어버이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속 빛내여나갈수 있다.

사로청조직들은 자라나는 새세대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을 가장 깨끗한 량심과 가장 높은 충성의 열도를 가지고 높이 우러러모시며 그이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해서는 생명도, 청춘도 기꺼이 바치는 주체위업의 참된 혁명전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신조화하도록 하는것은 그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만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요구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사로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천재적로작과 교시들, 당중앙의 방침들을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연구학습하여 자신의 뼈와 살로, 사업과 생활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도록 하여야 한다.

당면하여 모든 사로청원들은 우리 인민과 청년들에게 혁명투쟁의 신심을 안겨주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준 위대한 강령적문헌인 경애하는 수령님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를 깊이 학습하고 그를 완전히 통달하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사로청사업부문에 주신 력사적인 교시들을 체계적으로 학습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사로청원들과 청소년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

우자!》라는 충성의 구호를 높이 들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영광스러운 청소년 시절을 꾸준히 따라배우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학습을 실속있게 조직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의 현명성과 고매한 공산주의적 덕성을 깊이 체득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사로청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김정숙동지의 충성의 모범을 본받자!》라는 구호밑에 오직 어버이수령님께 자신의 운명을 전적으로 의탁하고 어떤 역경속에서도 경애하는 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옹호보위하고 목숨으로 지키신 김정숙어머님의 빛나는 혁명적생애를 본받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 청소년들이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자로 하여 모든것을 재여보고 판단하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고하고 숨쉬고 행동하도록 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집행하는것은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의 기본요구이며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가 지녀야 할 가장 중요한 사업기풍이다.

사로청조직들은 모든 사로청원들과 청년들로 하여금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관철하지 못하고서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확고한 립장을 가지고 사소한 리유와 구실도 없이 무한한 헌신성과 희생성을 발휘하여 그를 무조건 철저히 실천에 옮겨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에 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한치의 드팀도 없이 철저히 집행함으로써 어버이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그이께 더 큰 기쁨을 드리는것은 우리 사로청원들의 최상의 영예이며 신성한 의무로 된다.

사로청조직들은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온갖 혁명적열의와 창발성을 다 발휘하며 이 보람찬 투쟁을 통하여 자신의 정치적생명을 빛내여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사로청조직들은 혁명적열의에 불타고 새것에 민감한 청년들의 힘을 옳게 조직동원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을 힘있게 다그쳐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각급 사로청조직들은 당의 조치에 호응하여 새것에 민감하고 정열에 불타는 사로청원들을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는 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함으로써 그들이 3대혁명수행에서 근위대, 선봉대가 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청소년들을 지덕체를 갖춘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키우자》, 38페지)

사로청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하신 강령적보고를 높이 받들고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을 더욱 힘있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사로청조직들은 무엇보다도 모든 청소년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당정책교양과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하여 그들이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우리의 새세대들은 지난날 지주, 자본가의 착취와 압박을 받아보지 못하였고 혁명의 시련을 겪지 못하였으며 어버이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가장 좋은 사회주의제도에서 행복만을 알고 자라났다.

그러므로 사로청조직들은 사로청원들과 청년들 속에서 혁명교양,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로 하여금 어떤 어렵고 복잡한 조건에서도 계급적립장과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지키며 제국주의자들과 계급적원쑤들을 반대하여 끝까지 투쟁하며 혁명의 전취물을 굳건히 지켜나가는 사회주의의 적극적옹호자,

견결한 보위자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속에서 집단주의교양을 더욱 강화하여 그들이 조직과 집단을 사랑하며 로동을 즐겨하고 사회와 인민의 리익,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할줄 아는 공산주의적인간이 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새것에 민감하고 진취성이 강하며 선진과학기술을 소유한 청년들의 무궁무진한 힘과 창발적지혜를 옳게 조직동원하는것은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다.

사로청조직들은 청년들이 누구나 다 한가지이상의 기술을 소유하고 선진과학기술을 널리 보급하며 공업의 기계화, 반자동화, 자동화, 농업의 공업화, 현대화를 다그쳐 3대기술혁명과업을 빠른 시일안에 완수하기 위한 투쟁에 온갖 창의창발성과 지혜를 다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사로청앞에 나선 영예로운 과업을 빛나게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사로청사업을 혁신하여 조직의 전투력을 끊임없이 높이며 모든 일을 왕성한 투지에 넘쳐 통이 크고 패기있게 와와 내밀고 나가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로청조직들은 동맹안에 당의 유일사상체계와 당의 혁명적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사업을 주선으로 틀어쥐고 청소년교양사업을 알심있게 벌려나가며 사로청의 모든 단위와 조직들이 생기발랄하게 움직이도록 하여야 한다.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사업체계와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는것은 사로청사업과 청소년교양에서의 새로운 전환을 이룩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요구이다.

사로청조직들과 일군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혁명적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관료주의와 형식주의, 행사식 사업방법을 뿌리빼고 사로청사업을 청년들의 특성에 맞게 참신하고 실속있게 벌려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으로 불타는 청년들의 드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혁명과 건설 투쟁에 옳게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전체 사로청원들과 청년들은 원쑤놈들이 함부로 날뛴다면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을 단매에 때려부실수 있게 정치사상적으로, 군사기술적으로 더욱 튼튼히 준비하며 남조선사회의 민주화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남조선인민들과 청년학생들의 정의의 애국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며 자주성을 옹호하는 전세계 청년학생들과의 단결을 강화하여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세계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더욱 억세게 싸워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실한 사회주의로동청년동맹과 우리 청년들의 힘찬 전진을 가로막을 힘은 이 세상에 없다.

사로청조직들과 청년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원수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혁명적기치를 높이 들고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어버이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숭고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가자.

생산의 정상화와 일군들의 조직사업

윤 서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창건 30돐을 기념한 매우 뜻깊은 지난해에 우리 인민이 사회주의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성과를 자랑스럽게 총화하시고 올해 우리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신년사는 온 나라에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고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이 힘차게 추진되고있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전환의 시기에 우리 당과 인민을 또다시 보람찬 투쟁에로 부르는 위대한 전투적강령이며 불패의 혁명적기치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화국북반부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올해 사회주의경제건설의 중심과업과 부문별과업을 제시하시면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데 대하여 중요하게 강조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고 제품의 질을 높이며 나라살림살이를 깐지게 하는것은 현시기 경제사업분야에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입니다.》

위대한 수령님의 이 가르치심은 사회주의경제건설의 합법칙적요구와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현실적가능성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방침으로서 현시기 경제사업분야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지침으로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경제가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는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확고한 담보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공업제품에 대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고 경제발전의 적극적인 균형을 보장할수 있으며 국가 축적과 소비를 늘여 확대재생산의 높은 속도를 이룩하고 인민생활을 더한층 높일수 있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 바로 여기에 우리 나라에서 경제를 급속히 발전시켜 사회주의경제법칙의 요구를 성과적으로 실현하며 나라의 경제토대를 강화하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 옳은 길이 있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특히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밑에 우리 인민은 지난기간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다그쳐나감으로써 나라의 경제적위력을 더욱 강화하고 경제를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을 마련해놓았다.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 때 우리는 이미 마련된 경제토대의 위력을 효과적으로 리용하여 짧은 기간내에 생산을 훨씬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또한 그렇게 하여야 보다 많은 자금을 사회주의대건설사업에 돌려 새로운 인민경제 부문들과 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울수 있고 부문구조를 완비하여 경제부문들 호상간의 균형을 더잘 맞추어나갈수 있다.

실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는것은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

처 올해 우리앞에 나선 전투적과업을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현시기 우리앞에 나서는 가장 절박한 과업의 하나로 된다.

오늘 우리에게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는 충분한 조건과 가능성이 있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혁명적인 지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 힘있게 추진된 결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되고 그들속에서 혁명과 건설에 대한 주인다운 태도가 높이 발양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을 비롯한 전체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온갖 소극과 보수, 침체와 안일, 로쇠현상을 반대하고 모두가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헌신적으로 일하고있다. 당과 혁명, 로동계급과 인민을 위하여 몸바쳐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 이것은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고 끊임없이 빠른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확고한 담보이다.

우리에게는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우리의 경제를 높은 속도로 발전시킬수 있는 경제적잠재력이 또한 대단히 많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의 혁명적인 지도밑에 최근년간 우리의 공업은 부문간, 부문내부간 균형이 더욱 강화되고 조화가 잘 잡힌 보다 위력한 공업으로 발전하였다.

국가투자에 의하여 나라의 곳곳에 대규모적이며 현대적인 공장, 기업소들이 많이 건설되였으며 이미 있던 공장, 기업소들도 현대적기술로 더잘 장비되고 그 규모가 비상히 확대되였다. 그뿐아니라 전군중적운동에 의하여 중소규모의 지방산업공장들이 도처에 수많이 일떠섰다.

오늘 우리 인민경제의 생산잠재력은 비할바없이 커졌으며 이 방대한 생산능력을 최대한으로 리용한다면 우리는 지금보다 생산을 몇배, 몇십배로 더 빨리 높일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도에 대하여서도 명확하게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경제관리를 개선하여야 한다. 여기에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가 있다.

경제관리를 개선하는데서 무엇보다 중요한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마련하여주신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대안의 사업체계는 공장, 기업소들이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밑에 모든 경영활동을 진행하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생산자대중을 발동하여 제기된 경제과업을 수행하며 우가 아래를 책임적으로 도와주며 경제를 과학적으로,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훌륭한 경제관리체계입니다.》

(《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4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대안체계는 경제관리에서 군중로선과 과학성의 원칙을 옳게 구현하고있는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에 맞는 가장 우월한 경제관리체계이다.

대안의 사업체계를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 기업소들에서 당위원회의 집체적지도를 강화하고 모든 사업에 정치사업을 앞세워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와 창의창발성을 높이 발휘시켜 생산을 빨리 발전시킬수 있으며 생산지도, 기술지도, 자재공급 등 경제관리사업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원만히 풀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설비관리사업을 잘하는것은 대안체계의 중요한 요구이며 생산을 정상화하

기 위하여 나서는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 기대, 설비는 군대로 말하면 무기와 같은것이며 그것없이는 생산을 해나갈수 없다. 설비관리사업을 잘하여야 생산을 끊임없이 정상화할수 있고 빨리 발전시킬수 있다.

설비관리를 잘하자면 사람과의 사업, 생산자대중과의 사업을 강화하여 그들모두가 기계설비를 자기의 눈동자와 같이 아끼고 사랑하며 항상 깨끗하고 알뜰히 거두도록 하여야 한다. 이와 함께 기술학습과 기술전습사업을 정상적으로 조직진행하여 생산자들의 기술기능수준을 높이며 기대공, 운전공들을 고착시켜 그들이 자기가 맡은 기계설비에 정통하도록 하여야 한다.

설비관리사업에서 중요한것은 기계설비들에 대한 계획적인 예방보수체계를 세우고 제때에 점검보수하는것이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공무동력직장을 비롯한 수리기지를 튼튼히 꾸려 부속품생산을 늘이고 그 질을 결정적으로 높여야 하며 항상 예비부속품을 넉넉히 마련해놓아야 한다. 또한 설비들에 대한 보수기일을 단축하고 보수의 질을 높여야 한다. 그래야 모든 기대, 모든 설비들의 가동률과 리용률을 최대한으로 높여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할수 있다.

생산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제때에 대주며 그를 효과있게 리용하는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나서는 중요한 과업의 하나이다.

원료, 자재 보장사업에서 중요한것은 대안의 사업체계의 요구대로 원료, 자재를 규격별, 품종별로 우에서 생산현장에까지 철저히 내리공급하는것이다. 그래야 생산을 중단함이 없이 계속 늘여나갈수 있을뿐아니라 직장장을 비롯한 공장, 기업소의 생산자들과 일군들이 원료, 자재의 구입과 관련한 잡다한 업무에서 벗어나 자기의 본신임무를 잘 수행해나갈수 있다.

이와 함께 자재를 아껴쓰며 절약하기 위한 투쟁을 전군중적운동으로 벌리는 것이 중요하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랑비현상을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경제관리의 중요한 원칙이며 오늘 우리 혁명발전의 절실한 요구이다. 이르는곳마다에서 랑비를 없애고 절약투쟁을 강화한다면 이미 주어진 자재와 설비, 로력을 가지고도 생산과 건설을 얼마든지 더 많이 할수 있다.

공장, 기업소들에서는 원료와 자재를 규격별, 재질별로 알뜰히 보관관리하며 자재를 사장시키거나 망탕 써서 랑비하는 현상을 철저히 없애야 한다. 또한 자재의 원단위소비기준을 낮추며 대용자재와 지방자재를 최대한으로 동원리용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한다.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협동생산을 강화하여야 한다.

사회주의하에서 모든 공장, 기업소들은 계획적으로 관리운영되며 서로 밀접히 련결되여있다. 그렇기때문에 어느 한 부문에서라도 협동생산품을 제때에 보장하지 못한다면 적지 않은 공장, 기업소들이 생산에서 지장을 받게 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의 지도일군들은 나라의 전반적살림살이를 책임지는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기 공장, 자기 부문 앞에 맡겨진 협동생산품을 무조건 제일먼저 생산보장하는 강한 규률을 세워야 한다.

오늘 경제의 규모가 커지고 모든 고리들의 련계가 더욱 복잡해지는 조건에서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모든 경제지도일군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경제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빈틈없이 짜고들어야 한다.

모든 지도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에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안고 자기가 맡은 혁명초소에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조직정치사업과 생산자대중이 힘껏 일할수 있는 기술경제적조건을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책임적으로

깐지게 하여나가야 한다.

공장, 기업소의 지도일군들은 기계설비들에 만부하를 걸고 그것들을 만가동시키기 위한 조직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며 쓰지 않는 기계설비들과 자재들을 필요한 부문에 돌리는 한편 기종간의 균형을 잘 맞추며 전반적기업관리를 개선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실속있게 해나가야 한다.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하여서는 채취공업을 앞세우며 수송혁명을 일으켜 인민경제의 늘어나는 수송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보장해주는것이 중요하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채취공업을 확고히 앞세우는것은 최근년간 생산잠재력이 비상히 커진 가공공업이 은을 내게 하며 나라의 경제를 계속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나서는 절박한 과업입니다.》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은 공업건설에서 하나의 원칙이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요구이다.

오늘 생산잠재력이 비상히 커진 가공공업은 더많은 석탄과 광물을 보내줄것을 요구하며 원료와 자재를 보장해주면 해주는것만큼 가공공업부문에서 생산을 정상화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다.

채취공업부문에서는 지질탐사사업을 강화하고 굴진과 박토를 앞세우며 갱작업의 종합적기계화를 빨리 완성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석탄과 광물 생산에서 일대 앙양을 가져와야 한다.

채취공업을 앞세우는것과 함께 운수부문에서 또한 혁명을 일으켜야 한다. 당의 정확한 방침에 의하여 최근년간 수송전선은 비할바없이 강화되였다. 그러나 수송의 긴장성은 아직 완전히 풀리지 않았으며 빨리 발전하는 인민경제의 요구에 수송사업이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수송혁명을 일으켜 공장, 기업소들에 필요한 원료, 연료, 기계설비들을 제때에 실어다 주어야 생산을 정상화할수 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나갈수 있다.

운수부문에서는 철도의 수송능력을 높이고 선박수송을 늘이며 3화수송을 발전시킬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강령적교시를 높이 받들고 수송사업에서 일대 전환을 가져와야 한다.

당위원회의 사업을 강화하고 그 역할을 높이는것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생산을 정상화하며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중요한 담보이다.

각급 당조직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올해 신년사에서 제시하신 강령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불러일으키기 위한 조직정치사업을 더욱 강화하며 그들모두가 혁명의 주인, 나라살림살이의 주인다운 자각을 깊이 간직하고 생산을 끊임없이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모든 정력과 지혜를 다 바치도록 하여야 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주되는 혁명과업이며 바로 3대혁명을 잘하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각급 당조직들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더욱 적극적으로 참가하도록 하며 이 운동의 거세찬 흐름속에서 그들모두가 주체형의 피만이 차고넘치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당의 친위대, 근위대로 더잘 준비하고 사회주의경제건설을 더 한층 다그쳐나가도록 하여야 한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올해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경제관리를 결정적으로 개선하여 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함으로써 올해 우리앞에 나선 방대한 과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아가자.

미제는 남조선에 자기의 침략군대를 남겨둘 어떠한 구실도 더는 찾을수 없다

정 기 구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여야 할 최대의 민족적과업이 나서고있다.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과 외세의 간섭은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물이다.

미제는 30년동안이나 남조선을 무력으로 강점하고 우리 인민에게 민족분렬의 고통과 재난을 들씌우고있는 장본인이며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영구분렬 책동을 악랄하게 감행하고있는 원흉이다.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는 지난 기간 주체적립장에 튼튼히 서서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할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기 위한 투쟁을 꾸준히 벌려왔다.

조선의 영구분렬을 꾀하며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 책동으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아세아와 세계 평화를 엄중히 위협하고있는 미제의 범죄적책동과 침략적정체는 이미 만천하에 여지없이 드러났다.

지금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킴으로써 조선에 대한 미제의 침략과 간섭을 결정적으로 종식시킬것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그 무엇으로써도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할수 없다. 더우기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며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에 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가 채택된이상 미제는 조선문제에 대한 공정한 결의를 리행할 의무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으며 자기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 남겨둘 그 어떠한 구실도 찾을수 없다.

미제는 유엔의 결의대로 자기의 침략군대를 남조선에서 모두 지체없이 철거시켜야 한다.

* *

갈라진 국토와 민족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민족적숙원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으로 말미암아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몰아내지 않고서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생각할수 없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고 외세의 간섭을 철저히 배격하는것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해결의 본질적요구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입니다. 조선인민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국토가 량단되고 민족의 자주권이 유린당하는것을 참을수 없습니다. 조선인민은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함으로써 짓밟힌 민족적자주권을 도로 찾고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되여야 합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2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바와 같이 조국통일문제의 본질은 외래제국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령토와 인민을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는데 있다.

갈라진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우리 조국과 민족의 자주성에 관한 문제이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생명이며 신성한 권리이다. 자주성이 있어야 나라와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고 자주성을 가진 민족이라야 참다운 독립과 번영을 이룩할수 있다.

그러나 우리 나라에서 민족의 생명인

자주성은 미제의 남조선강점으로 말미암아 공화국북반부에서만 확립되고 전국적범위에서는 아직 실현되지 못하고있다. 한강토우에서 하나의 말과 글을 가지고 같은 력사와 문화의 전통을 이어받으며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온 남조선인민들은 미제침략군의 강점밑에서 30년동안이나 민족적자주권을 무참히 짓밟히우고 갖은 민족적 모욕과 멸시를 강요당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외세를 물리치고 조국을 통일하여야만 짓밟힌 민족적자주권을 도로 찾고 조선의 참다운 주인으로 될수 있다.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는것을 본질적내용으로 하는 조국통일문제는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우리 인민자신이 해결하여야 할 민족적위업이다. 우리 나라의 분렬은 민족의 내부적요인에 의하여 산생된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외부적요인, 외세의 침략과 간섭에 의해 초래된것이다. 따라서 조국통일문제는 어디까지나 우리 민족, 우리 인민이 주인다운 립장에서 외세의 개입을 철저히 배격하고 오직 자기의 힘과 지혜를 동원하여 해결하여야 할 민족내부문제, 내정문제이다. 그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하여 간섭할수 없으며 함부로 이러쿵저러쿵 할수 없다.

조선의 주인은 조선인민이며 통일문제를 해결하는 힘도 조선인민에게 있다. 조국을 통일하고 완전한 민족적자주권을 확립하기 위하여서는 외래제국주의침략세력의 간섭을 추호도 허용하지 말아야 하며 철저히 반대배격하여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를 몰아내야 하는것은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간섭이 조국통일을 가로막는 기본장애물이라는데 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통일의 기본장애물인 외세의 간섭을 없애야 합니다.

우리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방해하는 주되는 외세는 미제국주의입니다.》 (우와 같은 책, 30페지)

패망한 일제를 대신하여 남조선에 기여든 미제국주의자들은 처음부터 흉악한 침략자, 횡포무도한 식민지통치자로 나타났다. 놈들은 남조선에서 악랄한 식민지예속화정책과 군사적침략정책을 실시하여 그곳을 저들의 완전한 식민지군사기지로 전변시켰으며 남조선의 력대괴뢰들을 부추겨 자유와 민주주의, 조국통일을 위한 남조선인민들의 애국투쟁을 류혈적으로 탄압하고 침략과 민족분렬을 끊임없이 감행하여왔다.

오늘도 미제는 남조선에서 물러갈 대신 조선의 분렬을 고정화하고 《두개 조선》을 조작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으며 남조선을 아세아에서 전면적으로 허물어져가는 저들의 침략적지반을 수습하기 위한 지탱점으로, 영원한 군사침략기지로 틀어쥐려고 미쳐날뛰고 있다.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그의 침략책동이야말로 남조선인민들이 겪고있는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으로 되고있을뿐아니라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기본장애물로,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 조선과 아세아에서 새 전쟁의 위험을 조성하는 항시적근원으로 되고 있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그대로 눌러있는한 조선에서 공고한 평화가 보장될수 없으며 자주적평화통일은 이룩될수 없다. 조선에서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평화를 보장하며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도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모두 지체없이 철거시켜야 한다.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선문제에 대한 외세의 간섭을 끝장내는것은 오늘에 와서 더이상 미룰수 없는 가장 성숙된 현실적요구로 나서고있다.

오늘 남북조선 전체 인민은 미제와 그 앞잡이들의 민족분렬영구화책동을 반대하고 나라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한 거세찬 투쟁을 벌리고있으며 그것은 세계인민들로부터 더욱더 커다란 지지와 공명을 불러일으키고있다. 날을 따라 미제의 침략적정체는 세계의 면전에서 여지없이 드러나고있으며 조선에서 침략의 마수를 떼라는 세계사회계의 공정한 목소리는 전례없이 높아가고있다.

지난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남조선에 있는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고 《유엔군》의 모자를 쓴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며 남북공동성명의 원칙을 지키고 북과 남사이의 군사적대치상태를 해소할데 대한 실제적조치를 취함으로써 조선에서 평화를 유지공고화하고 평화통일을 촉진할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43개국 공동결의안이 압도적다수의 찬성으로 채택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제시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비롯한 자주적조국통일방침과 우리 당 대외정책의 위대한 승리이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종식시키고 조선의 통일을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우리 인민과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에 의해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다.

그것은 또한 지난 30년동안 미제국주의자들이 해마다 저들의 거수기들을 발동하여 제멋대로 조선문제에 대한 비법적인 《결의》를 조작해내던 유엔에서의 낡은 틀을 완전히 깨여버리고 처음으로 조선문제에 대한 공정한 결의를 채택한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유엔력사에서 일대 전환으로 된다.

지난날 미제국주의자들은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가 절박한 요구로 일정에 오르고 침략자, 략탈자로서의 저들의 정체가 더욱 드러나자 조선문제를 유엔에 끌고가 제놈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법화》하였으며 유엔의 기발을 도용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침략과 분렬책동, 온갖 야수적만행을 다 감행하였다. 그러나 이제는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을 저들의 손안의 기구로서 쥐락펴락할수 없게 되였으며 유엔무대에서 미제를 비롯한 반동세력의 의사가 더는 통할수 없게 되였다.

지난 유엔총회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우리측 결의안의 가결을 막아보려고 돈과 권모술수, 위협공갈 등 갖은 비렬한 책동을 필사적으로 감행하였으나 그것은 오히려 제놈들의 더러운 침략적본성과 국제적고립을 더욱 드러내놓았을뿐이다.

유엔에서 조선문제에 관한 공정한 결의가 채택됨으로써 이때까지 유엔에서 미제의 강요에 의하여 채택되였던 조선문제에 관한 모든 비법적《결의》들은 사실상 무효화되였으며 놈들이 더는 유엔의 이름으로 조선에서 범죄적행위를 감행할수 없게 되였다.

실로 유엔에서의 조선문제토의의 전과정은 미제국주의자들이 유엔을 제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며 남의 나라를 함부로 침략하고 그 내정에 간섭할수 있었던 시대는 영원히 끝장났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으며 민족적해방과 자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투쟁은 승승장구하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고용분자들은 더욱 고립배격당하고 멸망의 궁지에 깊이 빠져들어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유엔군》의 간판을 가지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남조선에서 철거시키는것은 오늘의 시대적추세로 보아도 응당한 일이다.

현시대는 자주성의 시대이며 지난날 제국주의, 식민주의의 지배와 예속 밑에서 억압받고 착취받던 수많은 나라 인민들이 주인이 되여 자체의 힘으로 자기의 운명을 개척해나가는것은 현시대의 기본추세로 되고있다. 그 어떤 민족이든지 남에게 예속되여 살기를 원치 않으며 침략과 간섭을 반대하여 결연히

떨쳐나서고있다.

바로 여기에 이번 유엔총회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참패를 면할수 없었던 중요한 요인이 있으며 미제가 유엔무대에서 《힘》으로 전횡을 부리던 낡은 질서가 전면적으로 파산되게 된 불가피성이 있는것이다.

오늘 세계무대에서의 사태발전은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우리 나라에 대한 놈들의 침략과 간섭을 종식시키는것이 더이상 미룰수 없는 절박한 문제라는것을 명백히 증시해주고있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변화된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하여야 한다.

미제는 지금까지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저들의 침략무력을 남조선에 두고있다고 떠들어온것만큼 유엔이 남조선에서 모든 외국군대가 철거되여야 한다는 결의를 채택한이상 그 결의를 집행할 의무와 책임에서 결코 벗어날수 없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리석은 기만술책을 걷어치워야 하며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는것과 함께 남조선에 있는 미국군대를 모두 철거시켜야 합니다.》
(우와 같은 책, 31페지)

지금 전체 조선인민은 물론 대다수 유엔성원국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은 조선문제에 대한 유엔의 공정한 결의를 열렬히 환영하고있으며 미국이 유엔의 결의대로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자기의 침략군대를 지체없이 철거시키며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에 호응해나설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국주의자들은 대세의 흐름을 거역하고 제놈들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고 집요하게 책동하고있으며 형세가 저들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하게 되자 더욱더 황당무계한 궤변으로 세계여론을 우롱하며 조선에 대한 침략야망을 계속 추구하려고 갖은 술책을 꾸미고있다.

이제 더는 유엔의 기발을 가지고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할수 없게 된 미제는 지금에 와서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따위를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해보려고 어리석게 책동하고있다.

미제우두머리들은 유엔에서 우리측 결의안이 최종적으로 가결된 이 마당에 와서까지도 남조선에서 자기 군대를 철거시키지 않을것이며 박정희괴뢰도당에 대한 《방위공약》을 지킬것이라고 뻔뻔스럽게 떠들고있다. 놈들은 남조선에 있는 침략군이 《유엔군》이 아니라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남조선에 머물러있는 군대이며 제놈들이 남조선에 침략군대를 두고있는것이 그 무슨 《필요》와 누구의 《요망》에 의한것이라는 황당한 궤변을 들고나오면서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는 경우에도 저들의 군대를 남조선에 계속 주둔시킬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벌이고있다. 또한 미제는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4만여명의 미제침략군중에서 《유엔군》은 300명정도밖에 안되며 그것마저 《유엔군사령부》의 《참모인원》들과 《명예위병대》들이며 나머지 군대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의하여 있는 군대라는 엉뚱한 소리를 줴치고있다.

도대체 산하에 군대가 없는 사령부가 어디에 있으며 있다면 그런 사령부는 무엇때문에 존재한단 말인가.

세상이 다 아는바와 같이 《유엔군》이란 다름아닌 유엔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이며 《유엔군사령부》는 곧 미제침략군사령부의 대명사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유엔군사령부》의 해체문제는 미제침략군의 철거문제와 떼여놓고 생각할수 없다.

이때까지 유엔연단에서 미제의 력대대표들자신이 남조선에 있는 모든 무력은 《유엔군사령부에 소속되여있다.》는것을 한두번만 말하지 않았으며 조선정전위

원회의 《유엔군》측 수석위원이란자들도 남조선에는 단 한명의 미군도 없으며 오직 유엔의 《결의》에 의하여 와있는 《유엔군》만이 있다고 계속 떠들어왔다. 이것은 《유엔군사령부》해체문제와 미제침략군철거문제는 하나의 문제이며 《유엔군사령부》가 해체되면 미제침략군도 동시에 철거해야 한다는것을 스스로 말해주고있다.

최근에 이르러 미제국주의자들이 대세가 제놈들에게 더욱 불리하게 되자 남조선에 있는 저들의 군사시설들에서 유엔의 기발을 황급히 내리우거나 그의 사용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한 그 자체가 벌써 미제침략군이 지금까지 유엔의 기발을 들고 《유엔군》으로 행세해왔다는것을 자인하는것이다.

뿐만아니라 《쌍방은 1대1의 비률로 륜환교체하는 병력외에 그 어떤 군대도 조선에 들여올수 없다.》고 규정한 조선정전협정의 요구에 비추어 보더라도 남조선에 《유엔군》의 모자를 쓰지 않은 그 어떤 다른 외국군대란 있을수 없다는것이 너무나도 명백하다.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하기 위해 유엔의 이름을 리용하는것이 유리하다고 볼때에는 《유엔군》이라고 떠들고 불리하다고 볼 때에는 《유엔군》이 아니라고 하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궤변이야말로 침략자의 철면피한 강도적론리가 아니고 무엇인가.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유엔의 명분을 가지고서도 합리화할수 없게 되였는데 하물며 《한미호상방위조약》따위를 가지고 그것을 합리화해보려는것은 더욱 가소로운 노릇이다.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에 대하여 말한다면 그것은 미제가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기 위하여 《쌍방의 한급 높은 정치회의를 소집하고 조선으로부터의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 문제들을 협의할것》이라고 규정한 조선정전협정을 란폭하게 유린하고 조선의 그 누구도 대표할수 없는 남조선괴뢰들을 구슬려 꾸며낸 철두철미 비법적이며 침략적인 문서장에 불과한것이다.

자주성을 귀중히 여기는 조선인민은 침략자와 매국노사이에 맺은 《한미호상방위조약》과 같은 너절한 종이장을 무효로 선포한지 이미 오래다. 뿐만아니라 이른바 《한미호상방위조약》이라는것이 조작되기전에 벌써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 기여들었다는것은 누구도 부인할수 없는 엄연한 사실이다. 이제와서 그것을 무슨 《조약》과 《요망》에 의한것으로 묘사하려고 피하는것은 세계여론을 기만하기 위한 어리석은 술책이며 그 누구도 납득시킬수 없는 공연한 짓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또한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정당화해보려고 이른바 《남침위협》을 요란스럽게 떠벌이고있다.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마치도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나가면 그 무슨 란리가 날듯이 떠들어대고있으며 남조선이 《아세아지역의 안전을 위한 관건》이라느니, 《일본방위의 요새》라느니, 미국의 안전과 직접 관련되여있는 《전선방위지역》이라느니 하면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수 없다는 당치 않은 궤변을 줴치고있다.

조선에서 항시적으로 전쟁의 위협을 낳고있는 침략자가 물러가는데 무슨 란리가 일어나며 미국으로부터 대양건너 수천마일이나 떨어져있는 남조선이 어떻게 되여 《방위지역》으로 된단말인가.

조선에서의 평화의 유지는 미제침략군에 의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시종일관한 평화애호적인 노력에 의하여 담보되고있다.

남조선을 제놈들의 《방위지역》으로 공공연히 선포하고 이미 파산된지 오랜 침략적인 지정학의 교리를 다시금 들고나오는것은 있지도 않은 《남침위협》설을 구실로 세상사람들의 환심을 사고 국제여론을 기만하며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려는 서툰 연극에 지나지 않는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미제와 남조선당국자들이 떠들어대는 〈남침위협〉이란 있어본적이 없으며 지금도 없습니다.》(우와 같은 책, 32페지)

적들이 우리를 먼저 건드리지 않는 한 절대로 무력행사를 하지 않는것이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일관한 립장이며 우리 나라에는 그 무슨 《남침위협》이란 있어본적도 없다. 우리 공화국정부는 《남침》할 의사가 없다는것을 이미 한두번만 천명하지 않았다.

우리 나라에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위협은 《남침위협》이 아니라 북침위협이며 총소리는 언제나 북에서가 아니라 남으로부터 북으로 울려오고있다.

조선에서 긴장상태와 전쟁의 근원은 전적으로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침략정책에 있다. 이른바 《9일작전계획》이요, 《5일전쟁》이요 하면서 이미 남조선에 핵무기를 비롯한 현대적인 살륙무기와 군사장비들을 수많이 끌어들여 군사분계선 가까이에 배치하고 끊임없이 군사적도발을 일으키며 긴장상태를 격화시키고있는것은 바로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어떠한 구실과 변명으로써도 저들의 남조선강점을 합리화할수 없으며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끝장낼데 대한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요구를 결코 외면할수 없다.

미제는 유엔의 결의대로 무엇보다먼저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모든 침략군대를 지체없이 철거시켜야 하며 조선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데 대한 우리의 제의에 응해나서야 한다.

미제가 평화협정을 맺는 문제를 어떻게 대하는가 하는것은 놈들이 조선에서의 평화와 평화통일에 관심이 있는가 없는가를 검열하는 기준으로 된다. 전세계는 이 문제에 대한 미제의 태도를 예리하게 주시하고있다.

만일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시대의 흐름을 거역하고 우리 인민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거듭되는 요구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미제의 남조선강점을 영구화하는데로 계속 나간다면 놈들은 보다 더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력사의 시궁창에 영영 처박히고말것이다.

오늘 안팎의 정세는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더욱더 유리하게 전변되여가고있다.

공화국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대건설성과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정치경제적토대를 더욱 확대공고화하고있으며 이에 고무된 남조선인민들은 류례없이 가혹한 파쑈적폭압속에서도 굴함없이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을 위한 애국투쟁을 거세차게 벌리고있다.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은 그 정당성으로 하여 세계평화애호인민들로부터 날이 갈수록 더욱더 커다란 국제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의 3대로선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조선인민은 미제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용서치 않을것이며 《유엔군》의 간판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키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의 승리적전진

리　남　규

지난해는 우리 혁명과 세계혁명발전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심각한 사변들로 충만된 력사적인 한해였다.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는 혁명력량과 반혁명력량, 민족자주력량과 제국주의 침략세력사이에 끊임없이 격렬한 투쟁이 벌어졌다. 이 투쟁에서 자주성을 옹호하는 세계인민들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주고 그들의 쇠퇴몰락과정을 촉진시켰으며 인류력사의 전진을 힘있게 추동하였다.

지난해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내리신 과학적인 정세평가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을 주동적으로 실시해나감으로써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를 전례없이 높이고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비상히 강화하였으며 자주성의 시대발전에 미치는 영향에 박차를 가하여 세계혁명발전에 적극 이바지하였다.

지난해 세계정세발전의 전과정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리신 정세평가가 가장 정확한것이였으며 그를 지침으로 삼고 전개한 우리 당 대외정책이 정당하였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준다.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비상히 확대강화된 승리의 한해

지난해는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넘치고 그이께서 지니신 높은 국제적권위와 위신으로 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대외적지위가 더욱더 높아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이 확대강화된 승리의 한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적극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국제관계는 매우 넓어졌으며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더욱 강화되였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39～40폐지)

지난해 세계 혁명적인민들과 진보적인민들 속에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 광휘로운 빛발로 혁명의 앞길을 찬연히 비쳐주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끝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이 날과 더불어 더욱 뜨겁게 끓어넘쳤다.

우리 나라 혁명이 새로운 전환기에 들어서고 국제정세가 사회주의와 혁명의 편에 결정적으로 유리하게 전변되고 있는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우리 나라 당및정부대표단을 인솔하시고 중국과 그리고 아프리카 및 구라파 나라들에 대한 력사적인 방문을 하시였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창시자이시며 혁명과 건설의 영재이시며 인민들이 다함없는 경모의 정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는 위대한 수령님을 맞이하여 멀리 지중해와 대서양연안에서, 발칸반도와 알프스산기슭에서는 감격과 흥분이 바다처럼 설레이고 만세의 환호성은 하늘땅을 진감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외국을 방문하시는 전기간 이 나라 국가수반들과 당 및 정부 지도자들, 인민들은 수령님을 우러러 《인민의 가장 위대한 영웅이시며 가장 천재적인 사상의 체현자》, 《탁월한 수령》, 《국제공산주의운동과 로동운동의 저명한 지도자》이시라고 높이 칭송하면서 가장

열렬한 존경과 흠모의 정을 표시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외국방문은 제국주의를 반대하고 사회주의와 사회적진보를 위한 공동투쟁속에서 굳게 맺어진 우리 인민과 사회주의나라 및 제3세계나라인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와 혁명적단결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올려세운 력사적방문이였으며 반제자주의 기치밑에 새 생활을 건설하기 위한 제3세계나라들의 투쟁, 우리 시대의 발전추세를 반영한 쁠럭불가담운동의 강화발전에 위대한 기여를 한 력사적사변이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다함없는 존경과 흠모의 정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탄생 예순세돐과 그리고 그이께서 창건하시고 령도하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을 한없는 감격과 기쁨 속에서 뜻깊게 기념한데서도 그대로 표현되였다.

이 영광의 날들을 맞이하여 세계각국의 당 및 정부 지도자들, 혁명조직들, 사회단체들, 국제기구들, 수령님의 로작연구소조들, 진보적사회활동가들과 개별적인사들은 위대한 수령님께 축전과 축하편지들을 올리여 그이를 《위대한 주체사상을 창시하시여 세계혁명발전에 불멸의 공헌을 하고계시는 위대한 수령》, 《전세계피압박인민들의 붉은 태양》으로 우러러 끝없이 흠모하면서 그이께서 만수무강하실것을 삼가 축원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존경과 흠모의 정은 세계혁명적인민들의 심장속에 깊이 자리잡고있는 가장 고귀한 감정으로 되였으며 그이께서 지니신 권위와 위신은 그 무엇으로써도 허물수 없는 높은것으로 되고있다.

세계혁명적인민들속에서는 또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깊이 연구체득하기 위한 열의가 그 어느때보다도 높아졌다.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뻬루의 수도 리마에서 15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에서 온 많은 대표들의 참가밑에 진행된 라틴아메리카주체사상과학토론회에서는 대륙적인 주체사상연구소를 창설하여 우리 시대의 리념인 주체사상을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연구할데 대한 결의들을 한결같이 피력하였으며 5월과 10월에 일본의 도꾜에서 각각 진행된 제6차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와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주체사상과학토론전국집회에서는 주체사상이야말로 제3세계나라인민들의 투쟁을 고무하는 전투적기치이며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자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는 혁명의 무기이라고 일치하게 지적하고 그것을 더욱 심오히 연구체득할데 대한 결의들을 굳게 다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을 따라배우려는 불같은 열의가 높아가고 있는가운데 지난해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 지역에서 《김일성동지주체사상연구소조》들이 새로 수많이 무어졌다.

실로 오늘 세계의 더욱더 많은 인민들이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에 공감을 표시하고 주체사상으로 살것을 원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을 따라배우려는 기운이 한없이 높아가고 있는것은 막을수 없는 시대적추세로 되고있다.

전세계혁명적인민들로부터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시는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님으로 모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를 받고있는것으로 하여 우리 나라의 대외적지위와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은 날을 따라 비할바없이 확대강화되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우리 공화국은 새로 12개나라들과 외교관계를 맺었으며 세계기상기구, 국제전기통신동맹 등 국제기구들의 존엄있는 성원국으로 되였다.

지난해 사회주의나라인민들과 제3세계인민들을 비롯하여 세계진보적인민들, 수많은 국제기구들과 여러 국제회의들 그리고 각국의 출판보도기관들이

남조선으로부터 미제침략군의 철거를 요구하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조선인민의 투쟁을 적극 지지성원하였다.

특히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세계인민들의 강력한 지지와 련대성은 지난해에 있은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와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 집중적으로 표시되였다. 지난 8월 리마에서 진행된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서는 우리 나라를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받아들일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우리 나라가 쁠럭불가담운동성원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반제자주로선의 빛나는 승리로서 우리 나라의 국제적지위가 끊임없이 높아가고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대외정책이 세계 많은 나라들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있으며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이 날로 강화되고 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는것이다.

리마회의에서의 빛나는 승리에 뒤이어 유엔총회제30차회의에서는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온갖 방해책동을 물리치고 공화국정부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반영하여 43개 유엔성원국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을 압도적다수표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30년동안 해마다 미제가 거수기를 발동하여 제멋대로 조선문제에 대한 비법적인 《결의》를 조작해내던 유엔에서의 낡은 틀을 깨여버리고 처음으로 조선문제에 대한 공정한 결의를 채택한 획기적인 사변으로서 유엔력사에서의 일대 전환이며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자주와 독립의 길로 나아가는 현시대적추세의 반영이며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완강한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다. 43개나라들의 공동결의안이 통과됨으로써 서방측《결의안》이란것은 아무런 쓸모도 없는것으로 되였으며 따라서 《두개 조선》을 조작하며 미제침략군의 남조선영구강점을 유엔의 이름으로 계속 합리화해보려던 미제의 시대착오적인 망상은 여지없이 부서졌다.

지난해 유엔총회에서의 조선에 관한 문제토의의 전과정은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과 그 거대한 생활력을 힘있게 시위하고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와 련대성이 날로 더욱 커가고있는 반면에 미제국주의자들이 세계인민을 제멋대로 좌지우지하던 때가 이미 지나갔으며 미제와 남조선괴뢰도당의 처지가 더욱더 어렵게 되여가고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었다.

사실상 지난해에 미제의 배후조종밑에 남조선괴뢰도당이 낸 이른바 남조선의 《쁠럭불가담운동가입신청》과 《유엔단독가입신청》이 론의할 가치조차 없는것으로서 여지없이 일축당하였으며 그리고 라오스와 베넘에서 외교관계를 단절당하고 괴뢰대사관들이 쫓겨난것 등은 놈들이 세계인민들의 버림을 받고 《국제고아》의 가련한 신세가 되였다는 것을 뚜렷이 실증하였다.

이 모든 사실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세계 수억만 인민들의 심장을 더욱 틀어잡고 있으며 주체의 찬연한 빛발아래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들이 급속히 늘어나고있는 오늘의 현실을 그대로 힘있게 보여주고있다.

자주의 궤도를 따라 힘차게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

지난해에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수억만 인민들은 자기 운명을 자기 손에 튼튼히 틀어쥐고 반제자주의 기치드높이 성스러운 해방투쟁에 용감히 일떠섰으며 이미 쟁취한 민족적독립과 혁명의 전취물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전진을 이룩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제3세계는 가장 치렬한 반제투쟁전선으로 되고있습니다. 제3세계에는

혁명하는 나라들이 집결되여있으며 제3세계나라들의 반제투쟁은 제국주의자들에게 커다란 타격을 주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7페지)

아세아를 비롯한 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자유와 해방, 나라의 독립과 민족적 존엄을 수호하기 위한 반제혁명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지난해에 인도지나인민들은 나라의 해방과 독립, 민족적통일을 위한 장기간의 투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이 지역에 대한 미제의 야만적인 침략 및 간섭 정책은 수치스러운 총파산을 당하였다.

캄보쟈인민은 지난해 미제와 그 앞잡이 론 놀반역도당을 때려부시고 전국의 완전해방을 이룩하였으며 독립과 령토완정을 회복하고 자주적이며 번영하는 새사회건설의 길에 확고히 들어섰다.

남부웰남인민은 지난해 3월부터 총공세와 봉기를 개시하여 사이공괴뢰도당을 무조건 항복시키고 남부웰남을 완전히 해방하였다. 이것은 자유와 독립을 위한 오랜기간에 걸친 성스러운 투쟁에서 전체 웰남인민이 이룩한 위대한 승리로서 남부웰남에 대한 미제의 식민지통치를 종식시키고 독립되고 번영하는 새 사회를 건설하며 웰남의 평화적통일을 실현하는데서 휘황한 전망을 열어놓은 력사적사변이다.

한편 지난해에 라오스인민은 라오스인민혁명당의 옳바른 령도밑에 전국적범위에서 미제와 그 앞잡이 우익반동세력을 완전히 내쫓고 나라의 통일독립과 민족적화목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마침내 봉건군주제도를 끝장내고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의 창건을 세상에 선포하게 되였다.

인도지나3개국인민들의 이 력사적승리는 비록 작은 나라 인민이라 할지라도 자기 힘을 굳게 믿고 원쑤를 반대하여 견결히 싸운다면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능히 타승하고 자기 조국의 독립과 민족의 존엄을 지킬수 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은 제아무리 포악하게 날뛰여도 민족적해방과 자주를 위해 일떠선 인민들을 굴복시킬수 없으며 저들의 종국적인 파멸을 면할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아랍인민과 팔레스티나인민들도 미제와 이스라엘침략자들의 무모한 새 전쟁도발책동과 음흉한 각개격파책동에 대처하여 나라의 방위력강화와 혁명대오의 결속에 응당한 주의를 돌리면서 민족적존엄을 고수하며 해방위업을 실현하기 위한 투쟁을 줄기차게 벌렸다.

자유와 해방을 위한 투쟁은 아프리카와 라틴아메리카, 대양주에서도 힘차게 벌어져 제국주의식민지체계의 마지막 보루들이 련속 무너져나가고있다. 이 치렬한 투쟁의 불길속에서 지난해에 산토메 프린시페, 끄모르, 베르데갑제도, 모잠비끄, 파푸아 뉴기니아, 앙골라, 수리남, 동부띠모르 등이 새로 독립을 선포하였다.

민족적해방과 독립을 위한 투쟁과 함께 자주성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이 더욱 심화되고 그들의 반제공동투쟁이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였다.

제3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의 침략과 략탈, 지배와 통제를 반대하고 나라의 자원을 지키기 위한 투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였다.

지난해에 알제리와 모리따니에서는 민족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혁명적조치들이 계속 취해졌으며 이라크에서는 외래석유독점체의 리권을 몽땅 국유화함으로써 나라의 석유자원을 완전히 자기 수중에 장악하게 되였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공업의 국유화법령을 발포하여 이 나라 석유공업부문에 대한 제국주의자들의 60년간의 략탈의 력사에 종지부를 찍었다. 뻬루, 가이아나, 가나 등 나라들에서도 제국주의독점체들을 쫓아내고 나라의 자연부원을 되찾기 위한 단호한 조치들이 취해졌으며 제3세계의 일련의 나라들이 200마일령해권

선포와 바다자원의 보호를 위한 법령을 발포하였다. 제3세계나라들이 취한 이 모든 혁명적조치들은 제국주의식민주의자들에게 심대한 타격을 안겨주었다.

제3세계나라들은 또한 제국주의자들의 온갖 내정간섭책동과 정탐파괴활동에 단호한 징벌을 가하였다. 자이르정부가 대통령암살 및 정부전복을 기도하던 반혁명분자들을 적발분쇄하고 이 음모책동에 대한 보복조치로서 미국주재자국대사를 소환하고 자이르주재 미국놈의 대사를 추방해버렸으며 베닌정부가 정부전복음모자들을 제때에 적발하여 단호히 분쇄해버린 사실, 빠나마운하귀속을 위한 빠나마인민의 투쟁과 그를 지지하는 전대륙적인 공동투쟁, 외국군사기지 철페와 제국주의의 영화상영 및 출판물수입의 금지, 사회생활령역에서의 식민주의잔재의 청산 등 여러나라들에서 취해진 일련의 자주적조치들은 그것을 잘 보여주었다.

반제자주를 위한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은 지난날 제국주의자들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세워진 불평등한 낡은 국제정치경제관계를 깨여버리고 평등과 자주성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투쟁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났다.

지난해 9월에 진행된 개발 및 국제경제협조에 관한 유엔총회 제7차특별회의에서 《개발 및 국제경제협조》에 관한 결의가 채택되고 10월에 빠나마의 수도에서 진행된 라틴아메리카나라부장급회의에서 대륙적인 경제상설기구로서 라틴아메리카경제체계를 창설할데 대한 《빠나마조약》이 맺어졌으며 이에 앞서 6월에 가이아나의 죠지타운에서 있은 아프리카와 까리브 및 태평양지역의 발전도상에 있는 46개나라들의 부장급회의에서 미제의 전횡적인 략탈과 간섭 행위에 대처하여 지역적협조를 강화하기 위한 아프리카와 까리브 및 태평양지역나라 집단을 창설할데 대한 결정이 채택된 사실 그리고 제3차유엔해양법회의 제3단계회의와 베네수엘라의 까라까스에서 있은 자연부원보호에 관한 국제회의 등은 현국제관계발전에 미치는 제3세계나라들의 영향력이 더욱더 증대되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이 제3세계인민들을 마음대로 억압하고 착취하며 그들의 운명을 가지고 막뒤에서 흥정하던 시대가 영원히 지나갔다는것을 똑똑히 보여주었다.

자주성을 옹호하여 나가는 제3세계인민들의 강력한 투쟁에 의하여 제국주의자들의 침략과 간섭 책동은 수치스럽게 파탄되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종래의 낡은 관계와 질서들이 무너지고 압박받고 천대받던 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주인으로 등장하는 근본적인 전환의 시대, 자주의 시대가 힘있게 펼쳐지고있다.

자주성을 옹호하는 제3세계인민들의 투쟁에 의하여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에서 신구식민주의가 완전히 청산되고 제3세계나라들이 완전한 경제적해방을 이룩하게 될 때 이 지역에 자기의 생명선을 유지하고있는 제국주의가 더는 생존할수 없게 되리라는것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지난해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의 신흥세력인민들은 제국주의의 침략과 간섭, 지배와 예속을 반대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참으로 커다란 승리적전진을 이룩하였다.

패배와 절망 속에서 몸부림치는 제국주의세계

지난 1년동안에 국제혁명력량이 급속히 자라난 반면에 제국주의세력은 결정적으로 약화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력사상 류례없는 심각한 경제위기에 빠져 허덕이고있습니다. 제국주의나라들의 내부모순이 더욱 격화되고있으며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갈등이 날카로와지고있습니다. 제국주의자들은 안팎으로부터 강력한 타격을 받고있으며 인민들로부터 고립배

격당하고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38페지)

지난해에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서방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전반적으로 정치사회적 및 경제적 위기가 가일층 심화된것은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을 헤여날수 없는 궁지에 더욱 깊이 몰아넣었다.

지난해 자본주의세계전반을 휩쓴 경제위기는 더욱더 폭넓고 심각한것으로 되였다.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생산이 계속 침체상태에 빠지고 실업자가 늘어나며 국제수지에서 만성적인 적자가 지속되고 통화팽창이 심화되는 등 경제전반이 만회할수 없는 심각한 파동을 겪었다.

미국에서는 지난해 3.4분기에 그 전해 같은기간에 비하여 공업생산액이 7.2% 줄어들었으며 일본에서는 1973년 11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의 기간에 공업생산액이 17.3% 떨어졌다. 다른 자본주의나라들의 형편도 이와 마찬가지이다.

생산이 급격히 줄어들고 조업률이 낮아짐에 따라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경영난에 직면한 수많은 공장, 기업소들이 꼬리를 물고 파산당하고 실업자대렬이 급격히 늘어났다. 지난해 미국에서는 완전실업자가 850만명, 여기에 반실업자까지 합치면 그 수가 근 1천 250만명에 달하였다. 영국에서도 1940년이래 처음으로 실업자수가 100만명선을 넘어 150만명을 헤아리게 되였으며 최근 1년동안에 프랑스, 서독, 일본 등 주요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실업자수가 근 2배로 늘어났다. 또한 모든 자본주의나라들에서는 례외없이 국제수지에서 적자현상이 막을수 없는 추세로 되고 예산적자가 늘어나고있으며 국가채무가 걷잡을수 없이 불어나고 통화팽창이 심화되여 사회경제생활전반에 수습할수 없는 엄중한 후과를 미치고있다. 아랍나라들이 선포한 《석유전쟁》을 계기로 시작된 심각한 연료위기는 지난해에도 계속되여 전후 30년간 석유에 적응하게 재편성되였던 현대자본주의공업구조는 파괴되고 석유략탈의 지반우에 놓여있던 제국주의경제는 모래우의 루각처럼 무너지고있다. 그리고 세계적규모에서 폭발한 식량위기로 하여 서방세계는 더욱 심각한 진통을 겪고있다.

이처럼 오늘 제국주의자들은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최악의 경제위기에 깊이 빠져 가쁜 숨을 쉬고있다. 한때 이른바 《자본주의의 영원한 번영》에 대하여 떠벌이던 제국주의자들이 오늘에 와서 《지금 서방세계는 제2차세계대전후 가장 엄중한 시련에 부딪치고있다.》고 련속 비명을 지르고있는것은 결코 우연치 않다.

자본주의세계를 휩쓸고있는 경제위기는 썩어빠진 자본주의제도 그자체의 필연적산물이다. 제국주의자들은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써도 주기적으로 끊임없이 반복되는 경제위기를 면할수 없으며 그것은 날이 갈수록 더욱 심각하고 파국적인것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경제위기가 심화되고 근로자들에 대한 지배층의 착취와 략탈이 강화됨에 따라 그를 반대하는 로동계급과 인민들의 투쟁이 세차게 벌어졌다. 이것은 자본주의내부모순을 더욱 격화시키고 자본주의제도를 그 밑뿌리로부터 뒤흔들어놓는 강력한 요인으로 되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정치경제위기가 심화됨에 따라 지배층내부에서의 혼란과 대립은 더욱 심각한 양상을 띠고 발전하고있다. 지난해 미국에서 군부, 정보 및 경제관계 부문의 악명높은 우두머리들이 하루사이에 모두 그 직책에서 나가떨어져 포드반동정권의 부패성과 취약성이 여지없이 드러나고 일본, 영국, 프랑스, 서독을 비롯한 기타 자본주의나라들에서도 정부위기가 끊임없이 지속된것은 그 뚜렷한 실례로 된다.

지난해 시장과 세력권쟁탈을 위한 제국주의렬강들사이의 갈등과 암투가 날로 격화되고 서방세계에 대한 미제의

지휘봉은 더욱 약화되였다. 특히 자주성을 요구하는 현시대의 추세는 자본주의나라들에도 그대로 반영되여 오래동안 서방세계우에 군림하여 전횡을 일삼아온 미제에 대한 기타 제국주의렬강들과 손아래 《동맹국》들의 도전은 더욱더 막을수 없는것으로 되고있다.

미제침략도구인 나토가 4분5렬되고 《세아토》는 사실상 종말을 고하게 되였으며 《아스파크》역시 붕괴의 운명에 처하게 된 사실, 프랑스를 비롯한 일련의 나라들이 딸라위기로 인한 무거운 부담을 서구라파자본주의나라들에 들씌우려는 미제의 간덕진 막후책동을 반대하여 공공연히 반기를 들고나온 사실 그리고 희랍, 토이기, 타이 등이 자기 나라 령토상에 있는 미제침략군과 군사기지들을 철수할것을 주장해나선 사실들은 미제의 《명령정책》이 서방《동맹국》들속에서 더는 통할수 없게 된데 대한 뚜렷한 증거이다.

이 모든것은 우리 시대에 제국주의의 붕괴과정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것을 잘 보여주고있다.

오늘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는 저들이 처한 이러한 궁지로부터의 출로를 모험적인 침략과 전쟁 정책에서 찾아보려고 발악하면서 침략의 예봉을 아세아에 집중하고있으며 특히 조선에서 새 전쟁을 일으키려고 미쳐날뛰고있다. 얼마전에 미제의 두목 포드놈이 내놓은 《태평양주의》는 남조선을 군사전략적거점으로 영원히 틀어쥐고 그곳을 발판으로 새 전쟁을 도발함으로써 전조선과 아세아를 집어삼켜보려는 흉악한 기도를 다시금 드러내놓은것이다. 이와 함께 미제는 중근동과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세계도처에서 제3세계나라들에 대한 침략과 간섭, 분렬과 리간 책동을 더욱 발악적으로 감행해나서고 있다.

조성된 정세는 제3세계나라인민들을 비롯한 세계 진보적인민들이 굳게 단결하여 제국주의의 침략과 전쟁 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을 더욱 강화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자들의 로골화되는 침략과 간섭 정책은 쇠퇴몰락하여가는자들의 마지막발악으로서 놈들의 전반적위기를 더욱 격화시키며 그 종국적멸망을 앞당기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다.

* *

지난해에 국제무대에서 벌어진 격동적인 사변들과 심각한 변혁과정은 제3세계인민을 비롯한 세계혁명력량이 자주성의 기치밑에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제국주의반동세력들의 우심해가는 발광을 힘있게 제압하면서 력사의 로정을 승리적으로 밟아나가고있으며 그 어떤 제국주의침략세력도 세계를 틀어쥐고나가는 인민들의 장엄한 전진운동을 결코 멈춰세울수도, 력사의 거창한 흐름을 가로막을수도 없다는것을 더욱 힘있게 실증하였다.

미제를 우두머리로 하는 세계제국주의와 온갖 반동들의 완전한 멸망은 불가피하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전세계 진보적인민들의 공동투쟁의 종국적승리는 필연적인것이다.

이것은 그 어떠한 힘으로도 가로막을수 없는 력사발전의 객관적합법칙성이다.

근 로 자 제 1 호(루계 405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6년 1월 1일 발행 • 1976년 1월 5일

ㄱ—651 값 50전

(정기간행물 번호
제13206호)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2호

평 양 근로자사 1976

1

근로자

전세계로동자들은 단결하라!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 관 지

제 2 호(406)

차 례

당은 우리의 모든 승리의 향도성

영광찬 투쟁의 길을 걸어온 우리 당은 오늘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우리 당의 전투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당사업과 당활동전반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났다.

전당에 혁명적인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당사업과 당활동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참신하게 진행되게 됨으로써 우리 당은 가장 전투적이고 혁명적인 당으로, 명실공히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서의 혁명적면모를 더욱 뚜렷이 갖추게 되였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확고히 실현되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에 기초한 전당의 통일단결과 당에 대한 인민대중의 신뢰가 전례없이 강화됨으로써 우리 당이 능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의 위업을 빛나게 완수할수 있는 튼튼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우리의 혁명위업은 빨리 전진하고있으며 자연과 사회,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변혁해나가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고있다.

이 위대한 전환, 새로운 혁명적변화는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이룩된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은 조선혁명의 참모부이며 우리 인민의 향도적력량입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한데 대하여》, 2페지)

우리 당은 어떠한 풍파와 시련에도 끄떡없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로숙하고 세련된 당이며 생기약동하는 전투적인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일군들로 당중앙위원회가 새롭게 튼튼히 꾸려지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가 철저히 확립됨으로써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실현하는 정치적무기로서의 자기의 사명과 역할을 훌륭히 수행해나가고있다.

우리 당 건설과 활동에서 이룩된 빛나는 승리와 혁명적전환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완강하고도 정력적인 투쟁을 떠나서 생각할수 없다.

우리 당은 자체 발전의 특수성으로 하여 력사적으로 내려오는 종파의 오물과 힝힝색색의 기회주의조류를 반대하여 심각하고도 간고한 투쟁을 벌리지 않을수 없었으며 이 투쟁속에서 주체사상체계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을 고수하고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지난날 혁명의 배신자들과 일시적동반자들은 우리의 전진운동을 각방으로 저애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는 위업에서 우리 당이 자기의 전투적기능과 령도적역할을 원만히 수행할수 없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당중앙의 정력적인 투쟁에 의하여 오늘 우리 당은 과거의 모든 오물을 쓸어버리고 전당에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차고넘치는 새형의 혁명적당, 주체형의 당으로서의 자기의 체질과 면모를 일신하였다.

오늘 우리 당이 모든것을 다하여 지향하는것, 그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사상과 의도대로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개조해나가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이 땅우에 빛나게 구현하는것이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어디까지나 당을 창건하고 이끄는 수령의 사상을 실현해나가는 정치적무기라는 자기의 근

본을 잊지 말아야 하며 자기 활동의 모든 분야에서 철두철미 수령의 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틀어쥐고나가야 한다. 당은 바로 수령의 혁명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승리에로 이끌며 수령의 혁명사상, 혁명리론은 당에 의해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 구현되며 불패의 위력을 발휘하게 되는것이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함으로써 주체의 혈통을 길이 빛내이며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 만년초석을 마련할수 있게 되였다.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기 위한 혁명적지도이다. 당의 혁명적지도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튼튼히 보위하고 그를 영원히 그리고 철저히 실현하기 위한것이다. 공산주의운동은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키고 완성하는 과정을 통하여 승리를 이룩하게 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는것은 우리 당의 기본사명이며 당의 혁명적지도를 실현하는 사업의 근본요구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추켜드신 혁명의 기치를 억척같이 지키고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실현해나가는 바로 여기에 조선혁명의 종국적승리와 우리 인민의 행복과 번영의 확고한 담보가 있다.

위대한 주체의 기치따라 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에 의해서만 조선혁명의 광명한 미래와 종국적승리가 있다는 것은 반세기에 이르는 우리 혁명의 승리와 력사적경험의 총화이며 실지생활을 통하여 우리 인민의 심장깊이 뿌리박힌 철석같은 신념이며 의지이다. 오랜기간 엄혹한 시련을 겪어온 조선혁명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혁명의 진두에 나서심으로써 비로소 주체의 길에 들어서고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하게 되였으며 당의 혁명적지도가 확립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인류사회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를 향하여 새로운 력사적진군을 개시할수 있게 되였다.

참으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는 력사의 암운이 무겁게 드리웠던 이 땅에 조국광복을 안아오시고 공산주의미래를 휘황히 밝혀주시는 위대한 태양이시며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길을 따라 주체위업의 종국적승리에로 우리 인민을 곧바로 이끌어주는 혁명의 향도성이다.

영광스러운 당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휘황한 설계도와 혁명적전환의 대전략을 마련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정력적으로 이끌어나가고 있다.

우리 당중앙은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실성을 우리 시대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가장 기본적인 품성으로 규정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실데 대한 끝없는 충성심을 깊이 심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우러러 모시는가 하는것은 혁명의 운명과 관련된 중대한 문제이다. 우리 당과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 주체의 위업을 고수하고 빨리 완성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님을 어떻게 높이 우러러모시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는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위대한 수령이시며 우리 인민의 운명을 이끌어주시고 그 찬란한 미래를 마련해주시는 태양이시며 우리의 모든 승리와 영광의 상징이시다.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게 됨으로써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영광스러운 투쟁과 승리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바로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있음으로 하여 우리 인민의 긍지와 존엄, 우리 나라의 권위와 영예는 그처럼 빛나고 우리 혁명의 찬란한 앞날이 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실데 대한 사상은 수령의 혁명전사들이 지녀야 할 충실성의 내용과 요구, 기본품성을 집대성한것으로서 로동계급의 당건설에서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것으로 된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인 충실성에 관한 심오한 사상이 밝혀짐으로써 우리 인민은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녀야 할 정신도덕적 풍모와 혁명정신, 사업과 생활의 확고한 준칙을 파악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갈수 있는 힘있는 무기를 틀어쥘수 있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끝없는 충실성, 이것은 우리 당중앙의 지도와 활동에서 근본핵으로, 그 출발점으로 되며 모든 승리와 성과의 가장 중요한 정신도덕적요인으로 되고있다.

우리 당중앙이 이룩한 가장 빛나는 업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탁월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 로동계급과 근로인민의 혁명적 전위부대인 우리 당은 오늘 온 사회를 우리 당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투쟁하고있습니다.》 (우와 같은 책, 7페지)

우리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하기 위하여 전당과 전체 인민의 열광적인 환호속에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을 정식화하고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를 제시하였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로동계급의 수령의 사상을 완벽하게 정식화하는 과학리론적 공적은 누구나 이룩할수 있는것이 아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가장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는 우리 당중앙에 의하여 정식화될수 있었으며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의 사상리론적지침으로 제시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사업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전사로 만들고 자연과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해나가는 숭고한 력사적위업이며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계승하고 완수해나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를 이룬다. 그것은 우리 당과 인민이 이미 이룩해온 모든 사회적변혁에 기초하여 매우 높은 요구와 목표를 제기하며 깊은 내용을 담고있는 가장 높은 수준의 사회적변혁이며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첫 위대한 혁명사업이다.

당중앙이 밝힌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은 로동계급의 당의 최고강령문제를 완성한것으로서 우리 당의 사상리론적공적가운데서 특별히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다.

로동계급의 당이 최고강령을 어떻게 세우는가 하는것은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는데서 근본적의의를 가진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강령이 있어야만 로동계급과 그 당은 뚜렷한 전망과 확고한 신심을 가지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갈수 있으며 자기의 력사적사명을 다할수 있다.

우리 당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강령이야말로 위대한 수령님의 천재적구상과 과학적전략전술이 가리키는 대로 혁명과 건설을 전진시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혁명적강령이며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혁명적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위한 전투적인 구호이다.

력사상 처음으로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인 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진군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을 빛나게 향도하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무엇보다도 전당을 하나의 사상으로 더욱 철저히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제시하고 당의 유일사상화와 당의 혁명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이끌고있다.

당의 유일사상화와 당의 혁명적지도를 확고히 실현할데 대한 방침은 우리 당을 주체형의 강력한 전투부대로 만듦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총적임무에 맞게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비상히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최대한으로 높일수 있게 하며 혁명과 건설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철저히 실현하며 심화발전시킬수 있게 하는 강령적지침이다. 이것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당으로 끊임없이 강화발전시키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근본초석으로 된다.

전당과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과 그에 맞게 당사업을 근본적으로 개선강화하기 위한 당중앙의 혁명적조치에 의하여 우리 당은 더욱 불패의 당으로 강화되고 당사업과 당활동, 혁명과 건설에서 일대 변혁이 일어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 우리 당 사업에서는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 전당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에서 벗어나 패기있고 생기발랄하게 진행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3페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전당을 무장시키고 그에 기초한 당대렬의 조직사상적통일을 더욱 강화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것으로서 우리 당 건설의 근본원칙으로 된다.

우리 당중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기 위한 사업을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시킬데 대한 혁명적원칙들을 새롭게 밝히고 그것을 힘있게 관철함으로써 이 사업을 새로운 높이에로 끌어올렸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 사업이 심화됨으로써 전당과 온 사회에 오직 하나의 사상, 주체사상만이 꽉 들어차게 되였으며 당건설, 당활동이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되게 되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충성다하는데 모든것을 귀착시키는 확고한 사상관점과 립장이 그 어느때보다도 철저히 서게 되였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어버이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심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는데서 자기의 참된 삶의 보람을 찾고있으며 그것을 어떤 사나운 광풍에도 드놀지 않는 억척같은 생활의 신조로 삼고있다.

전당과 온 사회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절대적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확고한 신념으로, 신조로 삼으며 그 집행에서 무조건

성의 정신을 지니고 싸워나가려는 충성심만이 차넘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에게는 위대한 수령님의 참된 혁명전사, 당의 친위대, 결사대라는 가장 높은 혁명적자각과 한생을 혁명의 길에서 살며 죽어도 주체형의 혁명가의 영예를 안고 영생하려는 일념뿐이며 그들의 가슴은 하나의 심장, 하나의 숨결로 세차게 고동치고있다.

온 나라 모든 사람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대한 뜨거운 충성의 열도로 끓어번지고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르며 당을 따라 힘차게 전진하는 우리 사회의 혁명적풍모, 이것은 당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이룩된 빛나는 결실이며 바로 여기에 우리 당이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 영원토록 빛나며 우리의 주체의 혁명위업이 승승장구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있는것이다.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당의 통일단결을 강화하는데 기본을 두고 당의 유일사상화와 당의 혁명적지도를 실현하는 사업을 가장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림으로써 당안에 혁명적규률이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 또한 반석같이 다져졌다.

당의 세련된 령도밑에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과 어긋나는 그 어떠한 잡사상도 감히 범접할수 없는 강철의 전투대오로 강화되고 온 사회는 하나의 유기체와 같이 굳게 결속되였다.

우리 당의 통일단결, 당과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성심에 기초하고 티없이 맑은 주체형의 혈맥으로 하나로 결합된 가장 높은 수준의 통일단결이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통일단결의 사상적순결성과 공고성이 있는것이다.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낡은 사업체계와 재래식사업방법이 뿌리빠지고 우리 당안에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위대한 수령님두리에 묶어세우며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되도록 하는 조직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혁명적인 사업체계와 참신한 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확립되였다.

혁명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시기에 우리 당중앙은 대중령도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관철하도록 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은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떠밀고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생산도 학습도 생활도 항일유격대식으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모든 당 조직들과 일군들은 군중속에 들어가 실천적모범으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에로 대중을 이끌어나가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높아졌다. 그리하여 당사업과 당활동전반에서 온갖 낡고 무기력하고 고식적인 틀이 부서져나가고 로쇠와 침체를 모르고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며 모든 일이 참신하고 진공적으로, 통이 크고 생기발랄하게 벌어지고있다.

실로 우리 당의 령도방법, 사업방법은 혁명의 뇌수이시며 통일단결의 중심이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아래 전당과 온 사회를 하나로 묶어세우고 한몸과 같이 움직이는 강철의 령도체계, 인민대중을 굳게 믿고 그들의 힘을 백배, 천배로 불러일으키는 필승의 령도예술, 참신하고 혁명적인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의 빛나는 귀감이며 모든 승리와 기적의 원천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여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위력한 사상리론적무기를 마련하고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령활하게 조직지휘함으로써 경제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 대비약, 대혁신의 나래를 펼쳐주었다.

당의 세련된 지도에 의하여 모든 당조직들이 경제문화건설에 낯을 돌리고 경제건설에 대한 당적령도를 강화한 결과 모든 부문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자로 하고 그이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생산과 건설을 벌려나가는 혁명적원칙과 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게 되고 온 나라는 혁명의 세찬 열풍으로 끓어번지게 되였다.

사회주의건설에서의 승리와 성과는 작전을 어떤 원칙에서 짜며 전투를 어떤 형식으로 조직하고 밀고나가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우리 당은 유명한 속도전에 관한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이 문제에 대한 명철한 해답을 주었다.

당이 발기한 속도전,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계속혁명에 관한 사상과 빨리 달려나가려는 우리 인민의 불같은 지향과 천리마정신을 더잘 더 철저히 구현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이 대앙양, 대혁신을 이룩해나갈수 있게 하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당의 정력적인 지도에 의하여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속도전의 불바람이 세차게 일어나고 사상전이 힘있게 벌어짐으로써 이 땅우에는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이 련이어 산악처럼 일떠서고 영웅서사시적인 투쟁사가 장엄하게 엮어지고있다.

우리 당은 또한 진공적인 대중정치사업, 항일유격대식경제선동의 내용과 형식을 새롭게 밝히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전투장마다에서 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경제선동을 통이 크게, 패기있게 벌리도록 현명하게 이끌었다. 대사상전, 대선동전의 북소리 높이 울리는 가운데 우리의 전진운동을 방해하는 온갖 낡은 사상요소들이 날아나고 주체조선의 영웅적기개를 다시한번 떨친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였으며 충성의 총돌격전을 벌려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점령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을 1년이상 앞당겨완수하는 위훈을 세울수 있었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할바없이 강화되고 우리의 혁명기지는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명령이라면 암반도 격랑도 헤가르며 과감히 돌진하는 우리 인민의 충성심에 기초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수행에서 이미 이룩된 튼튼한 토대에 의거하여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위대한 봉화를 지펴주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부르심따라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상, 기술, 문화를 주체의 요구대로 개조하며 혁명과 건설을 힘있게 추동하는 일대 혁명운동이며 사회적인 대중운동이다.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속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대오는 더욱 믿음직하게 자라나고있으며 기술을 발전시켜 사람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고 전면적으로 발전된 새형의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력사적위업에서 커다란 전변이 이룩되고있다.

우리 당건설에서와 혁명위업수행에서 일어난 이 커다란 력사적전환은 당의 혁명적지도가 가져온 빛나는 결실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를 높이 받들고나갈 때 우리 당은 자연과 사회를 변혁하는 아무리 간고하고 복잡한 투쟁도, 제국주의침략을 물리치고 혁명의 전취물을 수호하며 조국을 통일하고 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도 빛나게 수행해나가는 불패의 혁명적당으로,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의 믿음직한 전위부대로 그 빛을 온

누리에 더욱 찬연히 투될것이다.

당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그 길우에 우리 인민의 모든 승리와 영광이 있고 무궁토록 번영할 조국의 래일이 있는것이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당, 이는 우리의 모든 승리의 향도성이다.

오늘 우리 인민은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새로운 높은 단계를 열어주고 심오한 사상리론활동과 혁명적정력으로 이 땅우에 위대한 변혁과 기적을 수놓아가는 영광스러운 당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중앙에 영원히 충성다할 불같은 결의를 굳게 다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끄시는 로동당시대, 주체시대에 태여나 주체의 조국에서 살며 당의 향도따라 투쟁하며 전진하는것은 우리 인민의 지상의 영광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하는것은 주체형의 혁명가들이 지닌 가장 숭고한 혁명적의무이다.

혁명의 길은 간고하며 우리는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나가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그 어떤 역경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을 정치사상적으로 철저히 옹호보위하고 목숨으로 사수하며 위대한 수령님께와 당에 끝까지 충성다하는 티없이 맑고 깨끗한 혁명적량심을 깊이 간직하여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과 당의 의도에 따라 전당, 전국, 전민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와 당의 혁명적지도를 더욱 확고히 실현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하나의 사상, 하나의 지향으로 철통같이 뭉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의 모든 혁명적방침들을 뜨겁게 받아안고 한치의 드팀도 없이 무조건 철저히 관철해나가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히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을 철저히 관철하는것은 오늘 우리 인민앞에 나선 가장 영예롭고 보람찬 투쟁과업이다.

우리는 이미 이룩한 성과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더욱 분발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붉은 기치 드높이 혁명과 건설을 줄기차게 밀고나가야 하며 끊임없이 투쟁하며 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고 어버이수령님의 크나큰 신임과 기대에 충성으로 보답하여야 하며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대를 이어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려는 우리 당의 확고한 의지를 빛나게 실현해나가야 한다.

당의 영명한 지도밑에 정당한 혁명위업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은 앞으로도 영원히 승리할것이다.

모두다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위업, 주체의 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조국통일과 혁명의 전국적완성을 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의 새로운 승리봉을 향하여 총진군, 총돌진해나가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은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기치

리 용 무

우리 당은 전설적영웅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수해나가는 주체형의 전투적인 혁명적당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리키시는 한길로 전당과 전민을 확고하게 이끌어나가는 당중앙은 우리 혁명발전의 성숙된 요구와 모든 주객관적조건, 승리와 영광으로 수놓아진 우리 혁명의 력사적경험에 대한 전면적인 과학적분석에 기초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을 내놓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함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혁명적방침은 우리 당이 처음으로 제시한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며 인류해방위업의 전투적기치이다.

당중앙이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을 내놓은것은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 주체형의 혁명적당으로서의 우리 당의 혁명적성격과 사명을 더욱 뚜렷이 한것이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수하기 위한 새로운 력사적진군이 시작되였다는것을 의미하는것으로서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 영원히 빛날 새로운 리정표로 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은 우리 당과 인민이 유구한 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한 경애하는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 모시고 주체의 혁명적기치따라 혁명을 전진시키고 인류해방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려는 철석같은 의지와 확고한 혁명적지향을 반영한것으로서 현시기 우리 당과 우리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가장 영예롭고 숭고한 임무이며 가장 무겁고 책임적인 사업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을 진정으로 자신의것으로 받아안은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오늘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두리에 그 어느때보다도 굳게 뭉쳐 혁명과 건설에서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고있으며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전투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새로운 혁신과 기적을 창조해 나가고있다.

최근년간 우리 당의 강화발전에서 일어난 혁명적전환과 사회주의대건설에서의 새로운 일대 앙양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방침이 얼마나 정당하고 불패의 생활력을 가지고있는가 하는것을 더욱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1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전투적강령이며 위대한 기치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한다는것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한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하여나간다는것을 의미한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혁명과 건설 과정이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구현하여나가는 과정으로 되는 합법칙성을 반영하고있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르치는바와 같이 사람은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 혁명과 건설의 주인은 인민대중이며 혁명과 건설을 추동하는 힘도 인민대중이다.

근로인민대중이 세계의 주인으로서 자연과 사회를 변혁해나가는 투쟁은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에 기초한 목적의식적인 투쟁으로서 시대를 대표하는 옳바른 지도사상을 전제로 한다.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지도사상에 의하여 지도되지 않는 혁명적실천은 승리할수 없으며 망망한 대해에서 라침판이 없이 헤매는 배의 운명을 면할수 없다.

인류력사는 자체발전의 합법칙성을 밝혀주는 선진사상을 낳게 하며 그것을 파악한 선진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목적의식적인 투쟁을 통하여 자기의 앞길을 개척해나간다.

력사발전을 힘있게 추동하는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은 오직 사회발전의 합법칙성과 시대의 절박한 요구, 로동계급의 력사적임무, 계급적세력의 호상관계와 혁명투쟁이 진행되는 환경 그리고 혁명수행의 방도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있으며 계급가운데서 누구보다도 멀리 내다보는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에 의하여서만 창시되고 그것이 근로인민대중에게 파악되여 거대한 물질적힘으로 된다.

우리 시대와 우리 혁명 발전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한 탁월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사상리론가이시며 혁명의 영재이신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에 의하여 창시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주체사상은 우리 나라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자주적인 투쟁과정을 통하여 우리 혁명과 조선공산주의운동의 지도적지침으로 되였으며 오늘 우리 당의 확고한 지도사상으로 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7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심중한 약점과 제약성을 가지고있던 우리 나라 민족주의운동과 초기공산주의운동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으시였으며 간고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그것을 발전풍부화시키시였으며 우리 혁명과 새 사회 건설의 지도적지침으로, 우리 당의 확고부동한 지도사상으로 되게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창시하시고 조선혁명을 령도하시게 된것은 우리 나라에서 사상의 일색화, 주체사상화의 시작을 의미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선혁명의 진두에 나서신 그때로부터 우리 혁명대오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 당을 창건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당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우리의 새 사회건설을 령도하신 그때로부터 우리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시작되였다.

반세기에 걸치는 장구한 기간 우리 인민이 벌린 자주, 독립, 사회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주체사상을 구현해나가기 위한 보람찬 투쟁이였으며 그 행정에서 이룩된 모든 성과와 승리는 곧 주체사상의 빛나는 승리라고 말할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 두 단계의 사회혁명을 승리적으로 수행하여 식민지반봉건사회였던 우리 나라를 발전된 사회주의공업국으로 전변시킨것은 해방후 새 사회건설에서부터 시작된 사회의 주체사상화에서 이룩한 거대한 력사적승리였으며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서 일어난 하나의 획기적사변이였다.

우리 인민은 민족적 및 계급적 압박과

예속에서 해방됨으로써 외래침략자들과 착취계급에게 빼앗겼던 민족적자주권과 인간의 자주성을 되찾고 그것을 확고히 고수하게 되였으며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국가주권과 생산수단을 소유하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게 되였다. 이것은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며 사람을 세상에서 제일 귀중한 존재로 보고 모든것을 그의 리익에 복무하도록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의 빛나는 구현이며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가져다준 귀중한 열매이다.

우리 인민이 민족적 및 계급적 해방을 이룩한것은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투쟁에서 하나의 획기적전환이였지만 그것은 결코 이 투쟁의 완수를 의미하지 않으며 주체사상의 전면적이고 완전한 구현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회주의제도에서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보람찬 생활을 누리고있는 우리 인민들은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지향하는것만큼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이 지향을 반영하여 보다 높은 단계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에로 심화발전되여야 한다. 이것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이다.

당중앙이 제기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우리 인민의 지향과 혁명의 성숙된 요구를 반영한 공산주의강령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온 사회를 개조하는것이 바로 참다운 공산주의사회건설을 의미하게 되는것은 주체사상이 우리 시대의 완성된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이기때문이다.

지난시기 시대와 실천적경험의 력사적제한성으로 하여 적지않게 예측과 가정에 의하여 륜곽적으로 그려져있던 공산주의사회는 위대한 주체사상에 의하여 사상정신적으로, 지적으로 가장 완성된 새형의 인간들이 자연과 사회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완전히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음껏 누리는 가장 발전된 사회라는것이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요구와 그 완성의 합법칙성, 현단계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을 위하여 투쟁하는 사람들뿐아니라 앞날의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과 리론, 정신도덕적풍모 그리고 사회를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해나가는 근본방향과 요구뿐아니라 공산주의하에서 이루어지게 될 모든 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전면적으로 밝혀준다. 그러므로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인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주체사상을 철저히 구현할 때 편향이 없이 곧바로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할수 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어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다.

새형의 혁명가인 주체형의 혁명가는 모든 공산주의자들가운데서도 가장 고상한 풍모와 높은 자질을 가진 공산주의자이다. 주체형의 혁명가의 사상정신적특질은 로동계급의 혁명사상발전의 최고단계를 이루는 주체사상을 세계관으로 하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최고표현인 수령에 대한 충실성을 제일 생명으로 하는데 있다.

새형의 인간인 주체형의 혁명가는 또한 가장 고상한 공산주의적도덕풍모와 혁명적사업방법, 인민적사업작풍을 소유하며 가장 높은 지식과 기술, 문화적소양을 가진다.

공산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이 모두다 이러한 가장 높은 수준의 사상정신적특질과 풍모를 갖추어야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깊이 자각하고 높은 정치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발휘하여 공산주의사회제도를 끊임없이 공고발전시켜나가며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하나의 사상의지로 굳게 단

합되고 한사람같이 숨쉬고 움직여나가는 공산주의사회의 본질적우월성을 더욱 발양시켜나갈수 있다. 또한 이러한 사상정신적특질과 풍모를 갖추어야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공산주의적생활준칙에 기초하여 사회적으로 완전히 평등한 사람들이 서로 존경하고 믿고 협조하는 공산주의적사회관계와 활동방식을 공고발전시키며 사회의 생산력을 끊임없이 장성시키고 과학문화를 더욱 찬란히 꽃피워나갈수 있다.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에서 중요한 다른 한 측면이다.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서는 물질생활에서 그 어떤 구속도 받지 않고 자유로운 생활을 할수 있는 조건이 마련되여야 한다.

공산주의사회의 가장 중요한 경제적, 물질적 조건은 생산수단에 대한 단일한 공산주의적소유를 확립하고 수요에 의한 분배를 실현할수 있을 정도로 생산력을 높이 발전시키는것이다. 그리고 공산주의사회에서는 로동의 본질적차이가 없어지고 근로자들이 힘든 로동에서 해방되여 완전한 사회적평등이 실현되며 끊임없이 늘어나는 문화적수요도 충족된다.

공산주의사회의 이러한 물질적조건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자연과 사회의 참다운 주인으로서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 가장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을 확고히 보장해준다.

인류가 념원하는 참다운 리상사회,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하고 주체사상이 전면적으로 구현된 공산주의사회는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가 다같이 점령된 사회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은 공산주의사회의 참다운 면모와 본질적요구를 밝혀준뿐아니라 공산주의건설의 혁명적로정과 그 과정에서 확고히 견지해야 할 전략적방침, 구체적방도까지도 밝혀준다.

주권을 잡은 로동계급은 사회주의적생산관계의 유일적지배를 확립하고 사회주의제도를 세운 다음 프로레타리아독재를 강화하여 한편으로는 계급투쟁을 계속하고 다른편으로는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 무계급사회의 실현을 이룩함으로써 과도기의 과업을 완수하며 이에 기초하여 공산주의건설을 위한 투쟁을 계속 벌려나가야 한다.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이룩하고 공산주의에로의 이행을 실현하는 투쟁은 민족적 및 계급적 예속에서 해방된 근로인민대중에게 보다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마련해주기 위한 투쟁이다. 이 투쟁은 사상, 기술,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구속하는 낡은 사회의 유물을 없애기 위한 심각한 투쟁이며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것을 창조하기 위한 혁명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독창적으로 제시하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고 공산주의를 건설하는 력사적과업을 승리적으로 완성할수 있게 하는 전략적방침이다. 그것은 사회주의제도가 선다음 로동계급의 당이 수행하여야 할 혁명의 기본내용이며 공산주의를 건설할 때까지 수행하여야 할 계속혁명의 과업이다.

사상혁명의 목적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 공산주의적인간,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만드는것이다.

기술혁명의 본질은 로동의 본질적차이를 없애고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는것이다. 기술혁명수행에서 우리 당이 당면과업으로 제기하고있는 3대기술혁명은 사회주의공업화가 실현

된 다음에 수행해야 할 새로운 높은 단계의 기술혁명과업이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보장하기 위한 사회주의건설의 전략적과업이다.

문화혁명은 낡은 사회에서 물려받은 문화적락후성을 없애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화를 창조하기 위한 투쟁이다. 문화혁명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는것이다. 온 사회의 인테리화를 실현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전면적으로 발전된 공산주의적인간으로 만들고 낡은 사회가 남겨놓은 정신로동과 육체로동의 차이를 없애야 문화혁명의 과업이 종국적으로 완수되였다고 말할수 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사상혁명을 앞세우면서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다같이 힘있게 밀고나갈 때 공산주의의 두 요새를 성과적으로 점령할수 있으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람과 사회를 개조하여 참다운 공산주의사회를 실현할수 있다.

우리 당이 내놓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다.

주체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한 공산주의사회의 참다운 면모는 무엇보다도 주체형의 피만이 온몸에 차넘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들이 위대한 수령님을 중심으로 철석같이 단결하여 하나의 대가정을 이룩하고있는것이다. 그러므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본질에 있어서 사회의 주인인 사람들을 모두다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교양개조하여 사회를 단일한 정치적력량으로 튼튼히 꾸리기 위한 정치적사업이다.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 사업, 경제와 문화를 비롯한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를 주체사상의 요구에 맞게 개조하는 사업도 단순한 경제실무적 조치로써가 아니라 사람들을 교양개조하여 그들의 자각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는 혁명적방법, 정치사업방법에 의해서만 성과적으로 수행될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 사회의 주인이며 사회를 개조하고 발전시키는 기본요인이며 사람의 가치와 힘은 사상의식에 의하여 결정되기때문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또한 심각한 계급투쟁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사상분야에서 주체사상과 적대되는 온갖 반동적사상조류의 침습을 반대하고 사람들의 머리속에서 낡은 사상 잔재를 철저히 뿌리뽑기 위한 투쟁이며 사회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낡은 사회의 모든 유물을 철저히 없애기 위한 투쟁이며 제국주의자들과 그의 리용물로, 앞잡이로 되고있는 착취계급 잔여분자들을 반대하는 투쟁이다.

더우기 우리는 세계반동의 우두머리인 미제침략자들과 직접 대치하여 혁명과 건설을 진행하고있는 조건에서 계급투쟁은 치렬하지 않을수 없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의 혁명적개조과정이 전면적으로 심화됨에 따라 계급투쟁은 더욱 첨예하게 벌어지지 않을수 없다.

우리 당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위대한 정치적사업이며 심각한 계급투쟁이라는데로부터 출발하여 프로레타리아독재와 사회주의제도하에서의 계급투쟁의 기본형식인 사상혁명을 강화하는데 선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고있다. 만일 계급투쟁과 사상혁명을 소홀히 하고 기술혁명과 문화혁명에 치중한다면 혁명의 전취물을 위태롭게 할수 있으며 기술, 문화혁명도 잘할수 없게 되여 결국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다그쳐나갈수 없게 된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투쟁력사, 공산주의운동력사에서 우리 당이 처음으로 내놓은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이며 전투적기치이다.

로동계급의 당이 력사무대에 출현한지 이미 한세기가 훨씬 넘었고 또 오늘

세계에는 수많은 로동계급의 당들이 있지만 하나의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는 문제를 강령으로 내세운 당은 아직 없다.

우리 당이 온 사회를 하나의 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강령을 내세울수 있은것은 우리 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을 가지고있기때문이다.

인류력사는 오늘 자기 발전의 새로운 력사적시대, 자주성의 시대에 들어섰으며 공산주의건설에 대한 인류의 최고리상을 현실화하는 보람찬 시대에 들어섰다.

지난날 력사의 대상으로만 되여있던 근로인민대중이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력사무대에 등장하여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력사를 개척해나가고있다. 낡은것을 반대하고 새생활을 창조하기 위한 슬기로운 투쟁에 참가하는 근로인민대중의 범위가 오늘처럼 넓어지고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는 투쟁에서 그들이 노는 역할이 오늘처럼 커진 때는 일찌기 없었다.

자주성을 옹호하기 위한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은 전세계적규모에서 서로 다른 력사적단계와 특수성을 가지고 진행된다. 인류가 공산주의사회에 이르게 되는것은 필연적이지만 그 전로정의 구체적단계와 과업들은 다르다.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새로운 리론실천적문제들은 헤아릴수 없이 방대하고 복잡하며 끊임없이 새로 제기되고 심화되여가고있다.

새로운 력사적시대와 공산주의미래는 그에 상응하는 새롭게 발전되고 완성된 지도사상, 투쟁에 일떠선 근로인민대중, 사람에 대한 옳은 관점과 견해를 가지고 그들의 힘을 더욱 키워주고 력사의 창조에로 힘있게 고무하는 사상리론적무기를 요구한다.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은 인류력사의 이 절박한 요구를 반영하여 발생한 혁명과 건설의 위대한 지도사상이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혁명적세계관을 세울수 있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깊이 소유할수 있습니다.》(우와 같은 책, 20페지)

주체사상은 세계에 대한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철학적원리와 그에 기초한 풍부하고 심오한 혁명리론과 전략전술, 혁명의 방법론을 전일적인 통일속에서 밝혀준다.

주체사상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하고있다.

주체철학은 세계의 주인으로서의 사람의 지위와 역할을 밝힘으로써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와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위력한 무기를 준다. 자기 운명의 주인으로 등장한 근로인민대중은 주체철학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함으로써 자연과 사회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에 대한 높은 자각밑에 자기 힘에 대한 확신과 필승의 신념을 가지고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투쟁에 더욱 억세게 일떠서고있다.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근로인민대중을 중심에 놓고 전개하고 근로인민대중의 역할에 기초함으로써 가장 풍부하고 다양하며 가장 혁명적이고 과학적이며 창조적, 전투적 성격을 띠게 된다.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은 자연과 사회를 개조하기 위한 모든 분야와 모든 혁명단계를 포괄하며 특히 과학적공산주의리론을 완성함으로써 우리 시대와 공산주의미래의 혁명적실천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에 전면적인 과학적해답을 준다. 근로인민대중은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가지게 됨으로써 투쟁의 앞길을 환히 내다보고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을 위한 혁명

투쟁을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주동적으로 해나갈수 있게 되였다.

주체사상은 자주적립장과 창조적립장이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견지해야 할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이라는것을 밝혀준다. 이 근본립장과 근본방법은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철학적원리에 기초한것으로서 근로인민대중으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인다운 립장에서 자기 인민의 리익과 자기 나라의 실정에 맞게 자체의 힘으로 성과있게 풀어나갈수 있게 한다.

인류력사가 공산주의의 미래에로 전진하는 과정은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의 지위와 역할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보다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생활에로 끊임없이 상승하는 과정이다. 이리하여 주체사상의 철학적원리와 그에 기초한 혁명의 리론과 방법들은 우리 시대뿐아니라 공산주의미래에서 살게 될 사람들도 다같이 지녀야 할 가장 혁명적이며 과학적인 혁명사상으로 된다.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은 주체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을 전진시킬 때, 주체철학을 확고한 세계관으로 삼고 주체적인 혁명리론과 전략전술을 실천에 전면적으로 구현하며 혁명과 건설에서 주체의 방법론을 견지해나갈 때 어떤 편향과 우여곡절이 없이 곧바른 길을 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며 공산주의위업의 실현을 앞당겨나갈수 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위대한 주체사상을 가지고있음으로 하여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에서 선구자의 영예를 지니고 필승의 신념드높이 력사를 주름잡아나가고있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은 공산주의건설의 위대한 기치로서 새 사회 건설에 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 위대한 기여로 되며 우리 인민과 세계인민들에게 주체사상에 대한 신념과 공산주의미래에 대한 확신을 더욱 확고히 안겨주고 그들을 새 사회 창조를 위한 투쟁, 민족해방, 계급해방, 인간해방을 위한 슬기로운 투쟁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2

당중앙이 제시한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방침은 주체시대와 우리 혁명발전의 합법칙적요구, 우리 인민의 절절한 념원을 정확히 반영한것으로 하여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에게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 혁명의 종국적승리에 대한 굳은 신심을 안겨주고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에서 무궁무진한 생활력을 나타내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기 위한 력사적대진군은 힘있게 촉진되고있으며 우리 당과 혁명 발전에서와 우리 인민의 생활에서는 새로운 커다란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무엇보다도 조선혁명의 전투적참모부인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철저히 구현해나가는 필승불패의 혁명적당으로, 혈기왕성하고 청춘의 기백이 약동하는 전투적당으로 강화발전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서고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강화되였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졌습니다. 당의 대중적지반이 강화되고 인민대중속에서 당의 권위와 위신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당에 당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섰으며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개선되였습니다. 오늘 우리 당 사업에서는 바야흐로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고있습니다.》(《당

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높은 뜻을 받들어나가는 우리 당중앙은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우리 당을 강화하고 그 령도적역할을 높이는데 1차적의의를 부여하고 전당의 주체사상화를 위하여 나서는 원칙적요구와 과업들을 밝혀주었으며 전체 당원들을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힘있게 이끌고있다.

모든 당원들을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만들며 당사업, 당활동을 철저히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리론, 방법에 기초하여 진행할것을 요구하는 전당의 주체사상화는 우리 당을 완전무결한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되게 하는 사업으로서 온 사회를 경애하는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선결조건이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해나가는 추진력인 우리 당을 강화하여야 주체의 피, 주체의 영양소를 전당에 힘있게 뿜어줄수 있으며 사회와 사람을 더잘, 더 빨리 개조해나갈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이 철저히 관철됨으로써 우리 당사업, 당활동에서는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당을 강화발전시키는데서 새로운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당대렬이 계급적으로, 정치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려지고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튼튼히 확립되였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중심으로 하는 당의 통일단결이 더욱 반석같이 다져졌다.

당사업이 철저히 사람과의 사업으로 전환되고 당원들의 당조직생활이 더욱 강화되였으며 당사업에서 항일유격대식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됨으로써 우리 당의 령도적역할과 전투력은 비상히 강화되였다.

특히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최근년간 당사상사업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오래동안 지속되여오던 형식주의의 낡은 틀이 결정적으로 마사지고 모든 선전선동사업이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참신하고 박력있게 전개되여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의도가 아래에 쭉쭉 내려가고 전당과 온 사회를 새로운 혁명적열정으로 들끓게 하고있다. 이리하여 오늘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 무한히 충실하며 그이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간부화, 정예화되고 생기약동하는 전투적당으로, 전체 인민의 절대적인 지지와 두터운 신임을 받는 권위있고 존엄있는 불패의 당으로 강화발전되고있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서 이룩된 가장 귀중한 성과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경애하는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의 정수분자로 튼튼히 준비되고 그들의 사상정신적풍모에서 커다란 변화가 일어난것이다.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사상혁명이 심화되고 혁명적조직생활이 강화됨으로써 오늘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주체형의 맑은 피만이 맥박치는 참다운 혁명가, 경애하는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모신것을 최대의 행복, 최고의 영예로 여기고 위대한 수령님을 끝없이 존경하고 흠모하며 어떤 역경속에서도 어버이수령님을 정치사상적으로, 목숨으로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을 위하여서는 청춘도 생명도 기꺼이 바치는 근위대, 결사대로 철저히 준비되여가고있다.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고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 관철에서 절대성, 무조건성의 정신을 높이 발양하고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철저히 무

장하고 온 사회에 주체의 사상체계가 꽉 들어찼으며 전체 인민의 정치사상적통일과 단결은 보다 튼튼히 다져지고 전당과 전민이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더욱 굳게 뭉쳐졌다.

당원들과 근로자들 속에서는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자각이 높아지고 모든 일을 책임적으로 알뜰하게 해나가는 혁명의 주인다운 태도가 높이 발양되고있으며 적극성과 창발성을 내여 맡겨진 혁명과업을 끝까지 완수하는 혁명적기풍이 튼튼히 서가고있다.

또한 우리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적동지애에 기초하여 굳게 단합되고 서로 믿고 존중하며 서로 돕고 이끄는 집단주의정신, 공산주의적미풍을 활짝 꽃피우고있으며 신심과 활기에 넘쳐 공산주의의 찬란한 미래에로 힘차게 내달리고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전체 인민이 한덩어리가 되여 혁명적으로 들끓고있으며 힘차게 전진하고있는것이 바로 오늘 우리 나라의 현실이며 우리 인민의 혁명적풍모이다.

이 모든것은 온 사회의 혁명화, 로동계급화가 성과적으로 추진되고 인류의 리상사회, 공산주의사회에서 살게 될 사람들이 지녀야 할 사상정신도덕적풍모가 전면적으로 갖추어져가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중앙의 방침을 관철하는 과정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고 나라의 위력은 더욱 강화되였다.

사회주의건설은 사회주의제도가 선 다음 로동계급의 당앞에 나서는 가장 중요한 혁명과업이다. 경제는 사회생활의 물질적기초이다. 사회주의경제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사회주의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쌓을수 있고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점령할수 있다. 또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인민들을 더 잘살게 할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길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당중앙위원회 제5기 제8차전원회의에서 제시하신 사회주의대건설방침은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쳐나가는데서 하나의 획기적전환점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혁명적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당중앙은 속도전에 관한 탁월한 사상과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에 힘을 집중하도록 이끎으로써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구현한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그것은 모든 힘을 총동원하여 사업을 최대한으로 빨리 밀고나가면서 그 질을 가장 높은 수준에서 보장할것을 요구한다. 다시말하여 속도전은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것이다.

전체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면서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사회주의대건설의 총진군운동을 벌리고있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서 새로운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고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은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고 충성의 총돌격전을 과감히 벌려 짧은 기간에 로동당시대의 대기념비적창조물들인 수많은 현대적공장, 기업소들을 일떠세웠으며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로 내달려 6개년계획기간에 공업생산을 해마다 평균 18.4%씩 증가시키고 당 제5차대회가 내놓은 6개년계획을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완수하였다. 우리의 농업근로자들은 농촌에서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벌려 6개년계획의 700만톤알곡고

지를 2년이나 앞당겨점령하였으며 지난해에는 1974년보다 70만톤이상의 알곡을 더 생산하는 자랑찬 성과를 이룩하였다.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 많은 나라들에서 식량위기를 겪고있을 때 우리 나라 농업에서 이룩된 이 눈부신 성과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사회주의농촌테제와 주체농법의 빛나는 승리이며 속도전방침이 가져다준 귀중한 열매이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전체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속도전을 줄기차게 벌림으로써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30돐전으로 웅대한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우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고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에 충성의 보고를 올리였다.

6개년계획이 빛나게 완수된 결과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더욱 강화되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당의·전투적강령에 따라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자랑찬 성과들이 이룩되였으며 사회주의적민족문화가 더욱 찬란히 개화발전하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전군간부화, 전군현대화, 전민무장화, 전국요새화를 기본내용으로 하는 당의 군사로선과 5대과업이 빛나게 관철되여 나라의 방위력강화에서도 커다란 전진이 이룩되였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력사적대진군을 통하여 우리 나라는 더욱 위력하고 부강한 나라로 강화발전되였다. 지금 우리 나라는 온 세계 모든 혁명적인민들로부터 주체의 조국, 천리마조선으로 칭송을 받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은 사회주의의 완전승리를 위한 영광스러운 투쟁에서 불멸의 주체사상을 훌륭히 구현해나가고있으며 위대하고 찬란한 승리를 안아오고 있다.

오늘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우리 당의 혁명적방침은 사회주의건설위업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주고있으며 우리 인민을 새로운 승리에로 힘있게 고무하고있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이미 이룩한 성과와 승리에 조금도 자만하지 말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을 더욱 세차게 일으킴으로써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력사적위업을 더욱 힘차게 다그쳐나가야 한다.

속도전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전투적인 사업전개원칙

연 형 묵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적기치밑에 곧바른 승리의 한길을 따라 힘차게 달려온 우리 혁명은 오늘 새로운 혁명적전환의 시기에 들어섰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부르심따라 당중앙이 발기한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이 료원의 불길처럼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세차게 타번지고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사람들을 놀래우는 위대한 비약과 기적들이 련이어 창조되고있다.

우리 나라의 면모는 근본적으로 일신되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성과적으로 실현되여가고있다.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세찬 물길속에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혀준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은 필승불패의 생활력을 발휘하고있으며 우리 사회발전을 힘있게 떠미는 추진력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속도전은 우리 당의 위대한 공산주의강령인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다그쳐나가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불멸의 주체사상이 가리키는 길을 따라 사회주의건설을 계속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이끄시는 주체의 혁명위업을 더잘, 더빨리 다그쳐나가야 한다.

1

오늘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겨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당과 인민 앞에는 혁명과 건설에서 이미 이룩한 자랑찬 성과에 토대하여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실현하며 공산주의를 건설하여야 할 력사적과업이 나서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8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종목적이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한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며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공산주의사회를 건설하고 완성한다는것을 말한다. 다시말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실현한다는것은 사회의 모든 성원들을 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로 만들며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앞당기기 위하여 당중앙에서는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높은 단계와 그 필연적요구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하여 사회

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 혁명적사업전개원칙인 속도전의 방침을 내놓았다.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따라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앞당겨나갈수 있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여기에 모든것이 끊임없이 빨리 발전하는 사회주의사회발전의 합법칙성을 구현하는 길이 있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와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를 앞당기려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지향과 념원을 실현하는 길이 있다.

속도전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며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이다. 그것은 혁명하기 좋아하고 투쟁하기를 좋아하는 주체형의 혁명가들의 고유한 일본새이다.

속도전의 본질적특성은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간다는데 있다.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는것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혁명적사업전개원칙으로 되는것은 그것이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기때문이다.

모든것을 비상히 빨리 다그치게 하는 속도전을 떠나서는 주체형의 참다운 혁명가의 일본새를 지니였다고 말할수 없으며 높은 속도로 전진하여야 하는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일해나간다고 말할수 없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비상히 빨리 다그치게 하는 속도전의 기본요구는 최단기간내에 량적으로나 질적으로 최상의 성과를 이룩하는것이다. 빨리 한다고 하여 질을 보장하지 못하거나 질을 높인다고 하여 속도를 늦추는것은 다 속도전과 인연이 없다.

속도와 질을 다같이 보장하는 여기에 속도전의 참된 의의가 있는것이다. 종전까지 사람들은 속도와 질이 서로 배치되는 관계에 있는것으로 생각하면서 속도가 빠르면 질을 보장할수 없고 질을 높이자면 속도를 늦추어야만 되는듯이 여겨왔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모든 일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게 하는 속도전의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생활에서 오래동안 내려오던 이와 같은 그릇된 개념을 타파하고 속도와 질을 다같이 성과적으로 보장해나갈수 있는 길을 처음으로 밝혀주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속도를 비상히 높이면서 질을 높이게 하는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의 구현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은 자연과 사회에 대한 가장 옳바른 견해를 줄뿐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이 모든것의 주인으로서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누릴수 있는 길을 밝혀주며 계속혁명사상은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혁명을 끝까지 계속해나갈데 대한 진리를 가르쳐준다.

자연과 사회를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실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옳게 구현하는가 못하는가 하는데 결정적으로 달려있다.

위대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옳게 구현하면 구현할수록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은 앞당겨지며 공산주의에로 나아가는 인류력사발전의 필연적과정은 다그쳐진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내놓은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은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사상리론적기초로 하고있는 사업전개원칙으로서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을 전면적으로 발

양시키고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가는 가장 혁명적인 전투형식이다.

속도전은 위대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가장 철저히, 가장 완벽하게 구현하고있는것으로 하여 력사의 창조자인 인민대중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기적을 창조할수 있게 하는것이다.

속도전은 또한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있기에 온 집단의 힘과 지혜를 조직화하고 모든 사업을 합목적적인 과정으로 만들게 하여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는 새로운 커다란 힘을 낳게 한다.

속도전의 방침이 모든 사업에서 높은 속도와 높은 질을 다같이 보장하면서 사회주의건설을 비상히 빨리 다그쳐나갈수 있게 하는 비결은 그것이 사람들의 혁명적열정과 집단의 모든 힘을 조직화하고 집중적으로 리용하는데 있다.

주체사상과 계속혁명사상의 요구에 따라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집단의 힘이 집중적으로 발휘될수 있도록 전투를 전격적으로 조직전개해나가는것, 이것이 새로운 혁명적사업전개원칙, 적극적인 전투형식으로서의 속도전이다.

속도전은 천리마운동을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것이다.

천리마운동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이다.

천리마운동의 본질은 모든 근로자들을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시켜 위대한 수령님의 두리에 굳게 묶어세우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적극성을 높이 발양시켜 사회주의를 더 잘, 더빨리 건설한다는데 있다. 이 운동은 대중을 교양개조하는 사업과 생산에서의 집단적혁신운동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킨 전인민적운동으로서 경제와 문화, 사상과 도덕의 모든 분야에서 온갖 뒤떨어진것을 쓸어버리고 끊임없는 혁신을 불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게 하는 공산주의적대진군운동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인민은 천리마운동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부닥치는 온갖 난관과 애로를 이겨내고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앙양과 비약의 한길을 걸어왔으며 사회주의, 공산주의 높은 봉우리를 향하여 질풍같이 달려왔다.

속도전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우리 당의 총로선인 천리마운동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이 전면적으로 심화발전되고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있는 사회주의대건설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구현하고 심화발전시킨 새로운 사업전개원칙으로서 천리마로 달려온 우리 인민의 전진운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기 위한것이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이 힘차게 조직전개됨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기 위한 사업은 더욱 힘있게 촉진되고있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혁명적구호밑에 힘차게 전개되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사회주의의 보다 높은 령마루를 하루빨리 점령하려는 우리 인민의 높은 혁명적열의와 창조력의 발현이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과 위대한 천리마정신의 구현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요구에 맞게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더욱 심화발전시키고 사람과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앞당겨점령하기 위한 전인민적진군운동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3대혁

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게 됨으로써 우리 혁명과 사회주의대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는 속도전의 요구가 더욱 빛나게 실현되여 가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의 승리가 힘있게 앞당겨지고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높이 받들어 빛나게 꽃피워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속도전의 본질과 기본요구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기본조건들도 뚜렷이 밝힘으로써 속도전에 관한 리론을 전일적인 체계로 완성하였으며 사회주의 건설의 모든 부문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는 명확한 길을 열어놓았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속도전을 벌려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해서는 사상혁명,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며 조직지도사업을 안받침하여야 한다고 밝히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 이 사상은 속도전을 벌리는데서 사상, 기술, 지도 문제가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 그 호상관계를 과학적으로 분석한데 기초한 탁월한 사상이며 속도전의 목적과 기본요구를 가장 철저히 실현할수 있는 방도를 밝혀준 강령적지침이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성과적으로 건설하기 위하여서는 사상혁명을 강화하여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적극 불러일으켜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19페지)

사상, 기술, 지도의 세가지 조건가운데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야 하는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질적우월성에 의거하고있는 속도전의 본성과 관련된다.

나라의 주인으로 된 근로자들이 높은 혁명적열의를 내여 일하는것은 사회주의의 본질적우월성이며 사회주의하에서 모든것이 빨리 발전하게 되는 결정적요인도 사람들의 높은 혁명적열의에 있다. 속도전은 바로 사회주의제도의 이러한 우월성에 기초하고있는 혁명적인 사업전개원칙이며 그 위력의 원천도 다름아닌 사람들의 혁명적열의와 창조적지혜를 최대한으로 불러일으키고 그에 의거한다는데 있다. 그러므로 사상혁명을 확고히 앞세워 근로자들의 사상의식을 공산주의적으로 개조하고 그들의 심장마다에서 주체형의 맑은 피가 세차게 끓어번지게 하여야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수 있으며 나아가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바와 같이 사상혁명을 앞세우는 동시에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는것은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기본조건의 하나이다.

현시대는 과학과 기술의 시대이며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는것은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인 조건이다.

사회주의공업화와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건이 빛나게 실현되고 생산공정의 반자동화, 자동화, 원격조종화가 널리 도입되여 근로자들의 창조적로동과정이 현대적기술공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오늘 대중의 열성 하나만 가지고서는 멀리 앞으로 전진할수 없으며 생산에서 끊임없는 혁신을 이룩할수 없다. 근로자들의 높은 로력적열성도 선진과학기술과 결합되여야 참다운 자기의 위력을 나타낼수 있으며 기술을 끊임없이 혁신하여야만 속도전의 기본요구대로 생산장성의 높은 속도와 최상의 질을 보장할수 있다. 또한 기술혁명을 힘있게 밀고나가야 근로자들을 힘든 로동에서 해방하여 그들에게 보다며 자주적

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해줄수 있으며 그들의 사상의식도 성과적으로 개조할수 있다. 따라서 기술혁명은 사상혁명과 함께 속도전을 벌리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되며 기술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를수록 사회주의건설은 그만큼 더 다그쳐지게 된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다른 하나는 조직지도사업을 개선하는것이다.

사회주의사회는 원래 고도로 조직화되고 모든것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있는 사회이며 사회주의건설과정은 수백만 근로대중의 합목적적인 투쟁과정이다. 그러므로 옳은 조직지도사업은 사회주의건설을 다그치기 위한 기본조건으로 되며 사회주의건설이 진척될수록 그 의의는 커지게 된다.

조직지도사업을 개선강화하는것은 경제의 규모가 전례없이 커지고 모든 고리들의 련계가 매우 복잡해진 조건에서 속도전을 벌리게 되는것과 관련하여 특별히 중요한 문제로 나서고있다. 오직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사업을 빈틈없이 짜고들어 대중의 혁명적열의와 무궁무진한 창조적적극성을 옳게 발동하고 생산과 건설에 대한 기술경제적보장사업과 지휘를 정확히 하여야만 사회주의건설에서 계속 앙양을 일으킬수 있으며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더욱 높이 울리게 할수 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 사상, 기술, 조직지도의 3대조건에 관한 사상은 속도전의 위력을 남김없이 발양시켜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과 혁신을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며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확고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전투적무기이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의한 속도전방침의 제시, 실로 이것은 로동계급의 혁명리론발전에서와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투쟁에서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사변이다.

속도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이 가지는 거대한 리론실천적의의는 무엇보다도 그것이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더욱 발전풍부히 한 더없이 귀중한 사상리론적재부로 된다는데 있다.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사상과 리론이 창시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사회주의건설의 기본전투형식에 관한 문제가 제기되고 완벽하게 해결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칠수 있는 전투적인 사업전개원칙이 밝혀지게 되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에서 전혀 새로운 경지가 개척되였으며 로동계급의 당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인 인민대중의 창조력을 최대한으로 발동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비약을 이룩해나갈수 있는 또하나의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다.

속도전에 관한 혁명적방침은 또한 사회주의사회의 끊임없는 빠른 발전에 관한 혁명적리론을 더욱 구체화하고 모든 사업을 전격적으로 밀고나가 하루빨리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길을 뚜렷이 밝힘으로써 주체사상에 기초한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리론을 새로운 혁명적명제들로 더한층 풍부히 하였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승리를 이룩하기 위한 가장 정확한 방도를 밝혀준 고귀한 사상리론적재부이며 그 위대성과 독창성으로 하여 온누리에 찬연한 빛을 뿌리고있는 홰불로 된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방침이 가지는 의의는 또한 그것이 우리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의 전면적승

리를 앞당기는 전투적무기로 된다는데 있다.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인민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전면에 나선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천리마운동을 더욱 심화발전시켜나갈수 있는 위력한 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왕성한 투지와 패기와 정열에 넘쳐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한결같이 떨쳐나서게 되였다. 이리하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전례없는 대비약, 대혁신이 끊임없이 창조되게 되였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행군길은 더욱 다그쳐지고 있다.

속도전의 세찬 폭풍이 휘몰아쳐 사람도 사회도 자연도 주체사상의 요구대로 빨리 개조되고 나라의 면모가 근본적으로 일신됨에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지펴주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은 더욱 거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우리 혁명과 건설에서는 새로운 혁명적 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전당과 전체 인민이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높이 울리며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철벽으로 다져지고있으며 통일된 삼천리강토우에서 온겨레가 다같이 행복하게 살 력사의 그날은 더욱 앞당겨지고 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 속도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또한 수정주의자들과 온갖 계급적원쑤들에게 강력한 타격을 주고 세계혁명적인민들에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광명한 앞길을 밝혀주는 휘황한 등대로 되고있다.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이 제시됨으로써 경제가 발전하고 그 규모가 커질수록 생산장성속도는 낮아진다는 수정주의적 리론은 또다시 강력한 타격을 받게 되였으며 근로대중의 혁명적열의를 발동시키지 않고 물질적관심에만 매달리는 수정주의적경향을 철저히 극복하고 사회주의건설을 최대한으로 다그치기 위한 혁명적길이 더욱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속도전방침을 제시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장엄한 총진군운동을 통하여 그 우월성과 생활력을 시위함으로써 사회주의제도를 악랄하게 비방하는 제국주의자들과 그 어용나팔수들에게 결정적타격을 주고 사회주의의 영예와 존엄을 튼튼히 수호하였으며 그 어떤 세계적인 경제파동과 위기에도 끄떡하지 않고 사회주의건설에서 끊임없는 앙양을 이룩하는 산모범을 보여주었다. 우리 당이 이룩한 이러한 경험은 사회주의를 위하여 투쟁하는 세계혁명적인민들을 힘있게 고무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날로 더욱 커지고 있다.

이렇듯 당중앙이 밝힌 속도전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치는 필승불패의 무기이며 사회주의건설의 전기간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이다.

2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밝힌 속도전에 관한 독창적인 방침은 사회주의대건설의 벅찬 현실을 통하여 그 위대성과 정당성을 뚜렷이 보여주고있으며 날이 갈수록 더욱 커다란 생활력을 발휘하고있다.

속도전의 세찬 불길속에서 세상사람들을 끝없이 흥분시키고 고무하는 위대한 기적과 비약이 끊임없이 창조되고있으며 사람들은 모두가 왕성한 투지와 혁명적기백에 넘쳐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특히 전당과 전체 인민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발기하신《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서 드높은 혁명적열의로 충성의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

써 우리의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새로운 비약의 년대기가 펼쳐지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력사적진군은 더욱더 다그쳐지고있다.

오늘 온 나라의 방방곡곡에서 거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의 불길, 이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심려를 덜어드리기 위하여 모든것을 다바치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의하여 마련된 위대한 홰불이며 당이 밝힌 속도전의 위력과 그 불패의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과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다그쳐나가시기 위하여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혁명과 건설의 매 단계마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를 가르쳐주시였으며 혁명발전의 요구를 제때에 통찰하시고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3대혁명소조를 파견하시여 3대혁명을 더욱 힘있게 밀고나가도록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3대혁명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우리의 사회주의제도는 더한층 공고발전되고 경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으며 속도전을 계속 힘있게 벌릴수 있는 사상적 및 물질적 기초가 닦아졌다.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의도를 가장 빛나게 구현해나가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문학예술부문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을 통하여 속도전의 위대한 본보기를 창조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사회주의대건설의 웅대한 강령을 제시하시자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혁명적 방침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힘차게 불러일으켰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혁명과 건설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데서 나서는 원칙적문제들을 제때에 밝히고 사회주의대건설의 거창한 총진군운동을 진두에서 이끌어나감으로써 온 강산에 혁명의 북소리 높이 울리고 새로운 대비약이 련이어 일어나도록 하였다.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대건설의 자랑찬 력사가 시작된 첫해인 1974년도의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대로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대고조를 일으켜 6개년계획을 당창건 30돐전으로 완수하고 가까운 앞날에 10대경제건설전망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나서는 관건적고리의 하나였으며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때에 주체조선의 위력을 다시한번 온 세상에 떨치기 위한 매우 보람차고도 긴장한 혁명과업이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을 받들어 빛나게 꽃피워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바로 이러한 때에 《70일전투》를 힘있게 벌려 긴장한 1974년도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할데 대한 전투적방침을 제시하고 속도전에로 전당, 전국, 전민을 총동원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사상이 발동되면 모든것이 풀릴수 있으며 어디에서나 예비가 쏟아져나오고 앙양이 일어날수 있다는것을 밝히고 모든 당조직들이 일군들과 근로자들 속에서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충성심을 최대로 높이기 위한 사상전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당중앙은 또한 속도전에서 력량을 집중해야 할 주공방향을 정확히 밝히고 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부문에서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을 힘있게 벌리고 내부예비를 최대한으로 동원하여 긴장한 전투과제들을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사상전이 힘있게 벌어져 속도전을 방해하는 관료주의, 요령주의, 형식주의를 비롯한 온갖 사상적잡귀신들이 산산이 날아나고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는 참신한 경제선동공세가 힘있게 전개됨에 따라 생산자대중의 혁명적열의는 고도로 높아졌으며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새로운 대비약, 대혁신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다.

전당, 전국, 전민의 힘있는 지원밑에 채굴공업과 수송부문을 비롯한 사회주의건설의 주공전선에서 대건설의 돌파구를 힘있게 열어제끼고 인민경제 모든 부문, 모든 단위들에서 기술혁신운동과 내부예비를 찾는 투쟁이 광범히 벌어짐으로써 속도전의 불길은 온 나라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더욱 세차게 타오르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 사회주의건설에서는 일찌기 류례가 없었던 새로운 천리마속도, 《70일전투속도》가 창조되게 되였다.

실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가 있음으로 하여 우리는 그처럼 방대하고 긴장하였던 1974년도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고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를 투쟁의 해, 전진의 해, 승리의 해로 빛내일수 있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속도전을 더욱 힘차게 벌릴수 있는 튼튼한 토대를 마련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원대한 구상대로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전투를 빛나는 승리로 결속지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3대혁명의 붉은 기치밑에 6개년계획수행의 최후돌격전을 벌릴데 대한 혁명적구호를 제시하고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 더욱 높이 울리며 힘차게 전진하도록 전당과 전체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모든 부문에서 사상전을 계속 힘있게 벌리도록 하는 한편 사회주의대건설전투에 대한 정연한 지휘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워줌으로써 총돌격전에 대한 조직지도사업을 통일적으로 더욱 강력하게 진행할수 있게 하였으며 행정대행과 행정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배격하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전당적투쟁을 힘있게 벌리도록 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6개년계획수행의 최후돌격전의 매 단계들에서 풀어야 할 중심고리를 제때에 밝히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심려하시는 문제들을 푸는데 모든 력량을 집중하도록 하였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사상, 기술, 문화 혁명을 힘있게 다그침으로써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진군속도를 더욱 높이도록 혁명적으로 지도하였다.

항상 근로하는 인민들속에 들어가시여 그들을 자애로운 한품에 안으시고 새로운 위훈에로 불러일으키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적사업방법과 고매한 공산주의적덕성을 그대로 이어받고있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은 충성의 돌격전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에게 높은 정치적신임을 안겨주고 걸린 고리들을 직접 풀어주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배려가 더잘, 더빨리 가닿을수 있게 온갖 대책을 다 취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이러한 혁명적지도에 끝없이 고무된 우리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관철하기전에는 죽을 권리도 없다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창건 30돐전으로 6개년계획의 모든 고지들을 기어이 점령하기 위하여 한결같이 떨쳐나섰으며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련이어 이룩하였다.

참으로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는 속도전의 혁명적불길이 온 강산에서 세차게 타오를수 있게 한 근본요인이였으며 속도전의 생활력을 남김없이 과시할수 있게 하는 결정적조건이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속도전이 힘있게 벌어진 결과 사회주의대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참으로 놀라운 성과가 이룩되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습니다.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3대혁명의 붉은 기치를 높이 들고 힘찬 투쟁을 벌려 당창건 30돐까지 6개년계획의 주요고지들을 점령하고 공업총생산액적으로 6개년계획을 1년이상 앞당겨 완수하는 빛나는 위훈을 세웠습니다.》(우와 같은 책, 17페지)

속도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우리의 인민경제는 류례없는 높은 속도로 끊임없이 발전하고있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사회주의대건설의 첫해에 벌써 전해보다 공업생산을 17.2%나 늘이는 빛나는 성과를 이룩하였으며 당창건 30돐을 충성으로 맞이하기 위한 총돌격전을 통하여 웅대한 6개년계획을 공업총생산액적으로 1년 4개월이나 앞당겨수행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이리하여 6개년계획을 수행하는 4년 8개월동안의 공업생산의 년평균증가속도는 6개년계획에 예견되였던 14%를 훨씬 뛰여넘어 18.4%에 달하게 되였다.

자본주의세계가 파국적인 경제위기에 빠져 허우적거리고있고 경제파동이 세계를 휩쓸고있는 때에 우리 인민이 이룩한 이 빛나는 위훈은 주체조선의 위력을 만천하에 다시한번 떨친 자랑찬 승리의 모성으로 되며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혁명적방침의 위대한 생활력에 대한 힘있는 확증으로 된다.

세계적으로 흉년이 들어 수많은 나라들에서 심각한 식량위기를 겪고있으나 우리 나라에서는 농업생산도 끊임없이 높은 속도로 발전하고있다. 일반적으로 한해에 농업생산이 2~3%만 장성하여도 큰 성과라고 하는데 우리 농민들은 불리한 자연기후조건들을 이겨내고 1974년 한해동안에 알곡생산을 30%이상 장성시키는 세계농업력사에 없었던 기적을 창조하여 6개년계획의 700만톤알곡고지를 2년이나 앞당기여 점령하였다.

속도전의 기상이 온 나라에 차넘치고 생산과 건설에서 일대 앙양이 일어남에 따라 우리의 자립적민족경제는 더욱 튼튼히 다져졌으며 주체시대의 자랑찬 대기념비적건설물들이 우후죽순처럼 일떠섰다.

속도전의 불길속에서 수천개의 공장, 기업소들과 직장들이 새로 일떠서거나 방대한 규모로 개건확장되였다. 특히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황철에서 창조된 산업텔레비존화와 원격조종에 의한 생산공정의 자동화의 위대한 모범을 받아들이기 위한 힘찬 투쟁을 통하여 공업의 전반적기술토대는 획기적으로 강화되였으며 3대기술혁명수행에서 결정적인 전진이 이룩되였다.

일찌기 류례를 찾아볼수 없는 대자연개조사업인 은률광산의 대형장거리벨트콘베아와 무산—청진사이의 대규모정광수송관이 짧은 기간에 건설되였고 불과 반년사이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 현대적인 락원거리가 일떠섰으며 검덕광산은 짧은 기간에 현대적인 유색금속광물생산기지로 전변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사회주의문화건설에서도 자랑찬 성과가 이룩되였다.

당이 밝힌 종자를 바로쥐고 속도전을 힘있게 벌릴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심장으로 받아안은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충성의 돌격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불과 1년남짓한 기간에 4대혁명가극을 창조하는 위대한 기적을 창조하였다. 일반적으로 가극 하나를 만드는데도 보통 몇해씩 걸리는것이 상식처럼 되여있는 때에 종래의 가극예술의 온갖 제한성을 극복하고 우리 시대의 요구에

맞는 전혀 새로운 가극형식을 창조하면서 이룩된 이 빛나는 성과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직접 발기하고 이끈 속도전이 가져다준 자랑찬 열매였으며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사회주의건설의 새로운 고조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봉화였다.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름에 따라 문학예술의 중요한 부문인 영화예술을 비롯한 모든 분야에서 사람들의 심장을 틀어잡고 그들을 혁명에로 힘있게 불러일으키는 혁명적대작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으며 우리의 주체예술은 일대 개화기를 맞이하게 되였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힘차게 전진하는 장엄한 대진군속에서 사람들의 사상정신적풍모도 혁명적으로 일신되여가고있다.

속도전을 힘있게 벌리는 자랑찬 투쟁을 통하여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서는 어버이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대한 충성의 열도가 끝없이 높아가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무조건 접수하고 관철하는 혁명적기풍이 더욱 철저히 서가고있다. 속도전의 거세찬 불길속에서 로쇠와 침체, 소극과 보수를 비롯한 온갖 잡귀신들이 날아나고 사람들은 모두가 왕성한 투지와 청춘의 기백으로 힘차게 전진하고있으며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으로 난관을 맞받아나아가면서 모든 사업을 대담하고 통이 크게 벌려나가고있다.

참으로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우리 인민은 속도전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세기에 길이 빛날 위대한 성과들을 이룩하였으며 속도전의 불길속에서 우리의 혁명과 건설은 비약적인 속도로 전진하였다.

생활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이 제시한 속도전이야말로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기 위한 위력한 전투적무기라는것을 힘있게 확증해주고있으며 속도전을 세차게 벌려나갈 때 점령못할 요새란 있을수 없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오늘 전당과 전체 인민이 한결같이 떨쳐나서 힘차게 벌리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속도전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라 사회주의경제문화건설에서 위대한 성과가 이룩되고 사회도 사람도 비약적으로 발전한데 기초하여 진행되고있는 장엄한 총진군운동이며 속도전의 요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주체의 혁명위업실현을 최대한으로 앞당기기 위한 성스러운 운동이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오늘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속도전을 더욱 힘있게 벌리는것은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어나고있는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힘있게 다그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속도전의 폭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힘차게 달려나갈 때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더욱 위대하고 찬란한 성과가 이룩될것이며 우리의 혁명위업은 그만큼 앞당겨수행될것이다.

모두다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굳게 뭉쳐 속도전의 진공나팔소리높이 울리며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더욱 다그쳐나가자.

우리 당이 제시한 방법론에 관한 사상은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의 길을 밝혀준 위대한 방침

리 관 필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을 가장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우리 당중앙은 전당과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할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줌으로써 오늘 우리 당사업에서는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나고있다.

전당에 유일사상체계가 더욱 튼튼히 서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통일과 단결이 그 어느때보다도 반석같이 다져졌으며 당중앙의 혁명적지도밑에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혁명적규률이 철저히 확립되고있다.

당안에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는 사업체계가 정연하게 서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전면적으로 구현되고있으며 당사업이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에서 단호히 벗어나 참신하고 패기있게 진행되고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의 요구에 맞게 진공적으로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그리하여 우리 당은 어떠한 풍파와 시련도 뚫고 용기백배하여 승리적으로 전진하는 필승불패의 당으로, 언제나 생기발랄하고 혁명적기백에 넘쳐 끊임없이 전진하며 투쟁하는 전투적인 당으로, 주체의 혁명위업을 확신성있게 완수할수 있는 주체형의 혁명적인 당으로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오늘 우리 당은 자기 발전에서 새로운 단계에 들어서고있으며 자기의 력사에서 가장 의의 깊은 사변들로 충만된 혁명적전환기를 맞이하고있다.

우리 당사업에서 일어난 이 근본적인 전변은 위대한 수령님의 높은 뜻을 빛나게 꽃피워나가는 우리 당의 정확하고 세련된 령도의 고귀한 결실이며 우리 당이 내놓은 새롭고 독창적인 당건설과 당사업 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탁월한 방침은 당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개선하시려는 위대한 수령님의 간곡한 교시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내놓은 새로운 방침으로서 당사업에서 온갖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완전히 극복하고 근본적인 전환을 가져올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며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전면적으로 구현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실로 당사업방법론에 관한 사상은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의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며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당사업을 벌려나가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우리 당이 제시한 방법론에 관한 사상과 리론을 깊이 연구체득하고 그를 철저히 관철해나가는 여기에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차게 다그칠수 있는 중요한 담보가 있다.

1

우리 당은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수 있는 길을 명확히 밝혀주었다.

일군들의 사업방법은 당의 로선과 정책 집행에서 그 성과여부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

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에 달려있습니다.》(《당사업을 더욱 강화할데 대하여》, 24페지)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정확한 로선과 전략전술이 있어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이 옳은 사업방법으로 일하여야 한다.

아무리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정확하고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대책과 방도가 옳게 세워졌다 하더라도 일군들이 그릇된 사업방법과 사업작풍으로 일하면 성과를 거둘수 없다.

당의 로선과 정책이 제대로 관철되는가 못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일군들의 사업방법여하에 달려있다.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끊임없이 개선하고 완성해나가는것은 당의 로선과 정책을 성과적으로 관철하기 위한 중요한 담보로 된다.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력사적진군이 힘차게 벌어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있으며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날에날마다 새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고있는 오늘의 벅찬 현실은 혁명의 지휘성원들인 우리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개선할것을 더욱 절실히 요구하고있다.

우리 당은 우리 혁명발전의 이 절박한 요구에 맞게 일군들의 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혁명적인 방침을 내놓음으로써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수 있는 가장 정확한 방도를 뚜렷이 밝혀주었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사업방법론을 세운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제때에 정확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찾는다는것을 말한다.

당사업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면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제때에 실속있게 더 잘 관철하겠는가 하는 구체적인 집행방법을 찾아가지고 사업한다는것을 의미한다.

때문에 우리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관철하기 위하여 끝없는 탐구력을 가지고 당사업의 방법론을 진지하게 연구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당사업에 관한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당중앙의 의도에 엄격히 립각하여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하며 그들의 자각성과 창발성을 불러일으켜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 더 큰 열매를 거두어들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을 찾아내야 한다.

원래 방법론을 세우는것은 어떤 사업에서나 반드시 지켜야 할 중요한 원칙의 하나이다.

일군들은 그 어떤 사업을 하든지 반드시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해야 한다.

어느 사업이나 할것없이 그 사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자면 사업의 목표와 내용을 정확히 설정하는것과 함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론이 옳게 서있어야 한다. 그래야 일군들이 자기앞에 제기된 혁명과업을 확신성있게 조직전개해나갈수 있다.

아무리 목표가 정확하고 사업내용이 명백히 세워졌다 하더라도 방법론이 옳게 서있지 않으면 그것을 집행하는 일군들이 옳게 움직일수 없으며 그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수 없다.

만약 지도일군들이 아래일군들에게 과업을 줄 때 그것을 정확히 집행할수 있는 방법론도 함께 주는 방줄을 타지 않고 외줄로 지시만 한다면 과업을 받은 일군들이 아래에 내려간다 하여도 행정식으로 지시하고 명령할수밖에 없게 되며 결국 제기된 과업을 옳게 해결하지 못하게 된다.

모든 사업을 설계하고 작전계획을 세우는데서도 그에 따르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옳게 서지 않으면 아무리 잘 세운 계획이라도 제대로 실현될수 없으며 계획은 계획대로 남아있게 된다.

그러므로 방법론을 옳게 세우는것은 어떤 사업을 하든지 모든 일군들이 반드시 지켜야 할 사업전개원칙으로 된

다.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방침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필승불패의 주체사상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주인다운 립장과 태도를 가지고 자기앞에 맡겨진 혁명과업을 책임적으로 수행할것을 요구한다.

방법론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은 우리 일군들이 무슨 일을 하든지 머리를 써서 그 사업을 훌륭히 수행할수 있는 방법론을 연구해가지고 일하도록 함으로써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게 한다.

방법론에 관한 방침은 또한 위대한 주체사상에 기초한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를 정확히 구현할수 있게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아래일군들에게 과업을 줄때 그것을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사업기풍을 세우도록 하시였으며 친히 그 빛나는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에 끝없이 충실하였던 조선인민혁명군 지휘관들은 대원들에게 군중공작이나 정찰임무를 주어내보낼 때 모든 조건과 가능성, 있을수 있는 정황을 구체적으로 타산하고 그들에게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는것을 아주 세밀하게 대주었다.

과업을 주면서 동시에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가르쳐주는 것은 항일혁명투쟁시기부터 견지하여오는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의 중요한 요구이다.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이러한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우리 당의 방법론에 관한 방침은 어떤 혁명과업을 수행하는데서나 먼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대중에게 해설선전할뿐아니라 그 수행방도까지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어 그들이 주인다운 태도를 가지고 혁명과업수행에 자각적으로 동원될수 있게 한다.

이처럼 방법론에 관한 우리 당의 방침은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에 기초한 사업방법의 요구를 가장 정확히 구현하고있는 정당한 방침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조하신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을 당사업에 더 훌륭히 구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침으로 된다.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방침은 당사업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필수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하고 있는 현명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사람마다 성격과 체질이 다르고 준비정도가 다른것만큼 사람과의 사업을 일률적인 방법으로 하여서는 안됩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6권, 424페지)

당사업은 사람과의 창조적사업이다.

당사업의 대상인 사람은 그 의식수준과 준비정도가 서로 다르고 그들이 처하고있는 생활환경도 다르며 그들이 수행하는 혁명과업도 같지 않다.

제각기 다른 특성을 가지고있는 사람들을 대상하는 당사업을 그 어떤 고정화된 하나의 틀과 규정에 얽어매놓을수 없으며 하나의 방법과 처방으로 할수 없다.

당사업은 어디까지나 격식과 틀이 없이 대상의 특성과 구체적인 환경에 맞게 창조적으로 하여야 한다.

당사업을 창조적으로 진행한다고 하여 사상문제에서도 창조성이 허용된다는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사상문제에서는 중앙으로부터 하부말단에 이르기까지 전당에 오직 하나의 사상,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만이 전일적으로 관통되여야 하며 모든 단위, 모든 분야의 사업은 오직 하나의 규률, 당중앙의 유일적지도밑에 한결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중앙집권적규률에 의하여 진행되여야 한다.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이 다양한 대

상을 가진 창조적인 사업인것만큼 각이한 대상에 알맞는 구체적인 방법론이 요구된다.

여러가지 특성을 가진 사람들과의 창조적인 사업인 당사업을 방법론도 없이 천편일률식으로 한다면 아무런 성과도 거둘수 없다.

대상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당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하여야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할수 있으며 그들의 자각적열성과 창의창발성을 최대한으로 불러일으켜 제기된 혁명과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할수 있다.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우는것은 이처럼 당사업의 특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요구이며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중요한 사업원칙의 하나로 된다.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방침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맞게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을 결정적으로 뿌리뽑고 당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적극적인 방침이다.

우리 당이 처음으로 내놓은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는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 혁명사상의 기치밑에 인류사회의 가장 높은 단계인 공산주의에로 나가는 첫 위대한 혁명이며 그 누구도 걸어보지 못한 길을 개척해나가는 전혀 생소한 사업이다.

인류의 최고리상을 새롭게 실현해나가는 우리 당의 이 전략적방침을 빛나게 관철하려면 그에 맞는 묘술을 찾아내고 혁명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뿐아니라 그것을 직접 집행하는 일군들의 사업방법에서도 새로운 전환이 일어나야 한다.

낡은 쑥대밭에서 하던 행정식방법을 비롯한 재래식사업방법을 가지고서는 모든것을 더욱 창조적으로 대담하게 풀어나갈것을 요구하는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힘있게 밀고나갈수 없으며 세기를 주름잡으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는 우리의 전진운동을 힘차게 추동할수 없다.

반당반혁명종파분자들에 의하여 부식된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은 군중우에 올라앉아 호통치고 대중을 강박하는 관료주의적사업방법이며 뒤를 캐고 자료를 묶어가지고 내리치는 암행어사식사업방법이며 실속없이 일하고 허풍만 치며 격식화된 틀에 얽매여놓는 형식주의적사업방법이다.

낡은 재래식사업방법은 인민들과 등진 착취사회의 반동적통치수법을 그대로 본따서 옮겨놓은 초라한 사업방법이며 공명을 탐내고 결치레만 하는 유치한 사업방법이다.

행정식방법을 비롯한 재래식사업방법은 우리 당의 혁명적인 사업방법과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유해로운 사업방법이며 오늘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실현하는데서 커다란 지장을 주고있다.

당사업에서 행정식사업방법과 같은 낡은 사업방법이 완전히 없어지지 않는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바로 일군들이 방법론이 없이 일하는데 있다.

일군들이 자기 사업에 대하여 언제나 깊이 연구하여 완성된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하는것이 아니라 아무런 방법론도 없이 일한다면 우에서 내려오는 과업을 그대로 아래에 되넘기게 되며 그저 행정식으로 지시하고 명령하게 된다.

행정식방법으로써는 사람들의 사상을 개조할수 없으며 그들의 혁명적열의와 자각성을 불러일으킬수 없다.

그러므로 행정식방법을 비롯한 재래식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당사업을 바로하자면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워야 한다.

옳은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할데 대한 방침은 당사업의 이러한 요구를 정확히 반영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며 당사업방법을 혁명적으로 개선할수 있게 하는 적극적인 방침으로 된다.

참으로 우리 당이 새롭게 내놓은 당사업방법론에 관한 사상은 당사업을 전당과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의 요구에 맞게 근본적으로 혁신할수 있는 길을 밝혀준 위대한 사상이다.

당중앙에 의하여 방법론에 관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우리 일군들은 낡은 재래식사업방법과 영원히 결별하고 우리 당의 전통적인 사업방법인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으로 확고히 넘어갈수 있는 위력한 리론실천적무기를 가지게 되였으며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일군들이 반드시 지녀야 할 주체의 사업방법을 소유하고 당사업을 더욱 참신하고 패기있게 벌려나갈수 있게 되였다.

방법론에 관한 사상이 제시됨으로써 당사업방법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을 더욱 높여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을 일으킬수 있게 되였다.

우리 당이 제시한 당사업방법론에 관한 사상은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창조하신 주체의 혁명적사업방법인 청산리방법을 새로운 발전단계에 들어선 우리 혁명의 요구에 맞게 더 빛나게 구현할수 있게 하는 탁월한 사상이며 당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보다 힘있게 다그쳐나가는데서 우리 일군들이 언제나 튼튼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강령적지침으로 된다.

2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당건설사상과 당사업리론을 가장 훌륭히 빛내여나가는 우리 당은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줌으로써 당사업방법에서는 혁명적인 전환이 일어나게 되였다.

당사업방법론에 관한 방침이 구현된 결과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아무런 방법론도 없이 되는대로 일하고 우에서 내려오는 과업을 그저 되넘기던 낡은 사업방법과 명령하고 지시하던 행정식사업방법, 행정을 대행하는것과 같은 재래식사업방법이 극복되고 당사업을 철저히 당적방법, 정치적방법으로 하는 혁명적사업방법이 서게 되였다. 우리 일군들속에서는 또한 당세도와 관료주의, 형식주의와 요령주의 등 낡은 사업작풍이 없어지고 모든 일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하며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위하여,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을 위하여 성실히 일하는 혁명적사업작풍이 확립되게 되였다.

당사업방법과 사업작풍이 현저히 개선되고 당안에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이 확고히 수립됨으로써 모든 일군들이 배낭을 메고 아래에 내려가 틀과 격식이 없이 알기쉽게 정치사업을 벌려 군중의 정치적각성을 높이며 그들의 힘을 발동하여 제기된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며 아래사람들을 실속있게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대중을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 일군들은 또한 로쇠현상을 극복하고 모든 일을 통이 크게 생각하고 판을 크게 벌리며 전격전의 방법으로 해제끼고있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당 사업은 낡은 틀과 재래식방법에서 대담하게 벗어나 더욱 생기발랄하고 패기있게 진행되고 있으며 당의 전투력이 비상히 높아지고 당의 령도적역할이 더 한층 강화되였다.

혁명과 건설에 대한 당의 령도적역할이 강화됨에 따라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는 일대 앙양이 일어나고 세상사람들을 놀래우는 새 기적과 혁신이 창조되고있으며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의 불길이 세차게 타오르고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가 힘있게 다그쳐지고있다.

발전하는 현실은 당사업에서 이미 이룩한 성과를 더욱 공고히 하고 보다 새로운 전환을 이룩할것을 요구하고있다.

당사업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을 일

으키기 위하여서는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울데 대한 우리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무엇보다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며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몸소 보여주시는 방법론적지도의 빛나는 모범을 따라배워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는 우리가 확고히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사업방향뿐아니라 그것을 관철하기 위한 방법까지 다 제시되여있다. 그러므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깊이 연구체득하는것은 당사업에서 방법론을 옳게 세우기 위한 첫공정으로 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밝혀주신 주체의 방법론을 어떻게 자기 사업에 구현하겠는가 하는데 대하여 늘 연구하고 집체적으로 토론하여야 한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론적지도는 주체형의 혁명가들, 영광스러운 김일성동지의 당의 일군들이 반드시 따라배워야 할 방법론적지도의 가장 빛나는 전형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항일혁명투쟁시기에 벌써 주체적인 당사업방법에 관한 리론을 창시하시고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을 령도하시는 전기간 친히 방법론적지도의 모범을 보여주시였다.

우리 일군들이 어버이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고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보여주시는 방법론적지도의 모범을 따라배울 때 세련되고 완성된 방법론을 소유할수 있으며 아무리 어렵고 복잡한 혁명과업도 능숙하게 풀어나갈수 있다.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모든 일군들이 새로운 과업을 받을 때 그와 관련한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여 그에 담겨진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당 정책을 어김 없이 관철하기 위하여서는 우선 당 정책의 본질을 인식해야 합니다.》(《김일성선집》, 제5권, 408페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여 당의 의도를 제때에 정확히 파악하는것은 당정책을 끝까지 관철하기 위한 옳은 방법론을 세우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깊이 연구하여야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고계시는 사상과 의도를 정확히 파악할수 있으며 그것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옳은 방도를 찾을수 있다.

방법론을 세우는 근본목적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바라시는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이 진행되도록 하는데 있는것만큼 어버이수령님과 당중앙의 의도를 모르고서는 사업에서 옳은 방법론을 찾아낼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과업이든지 받으면 우선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매 시기 제시되는 경애하는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전면적으로 깊이 연구하여 그 진수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사업을 설계하며 그 집행방법을 옳게 세워가지고 힘있게 밀고나가야 한다.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아래의 사업실태와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어떤 사업에서나 대상을 잘 알아보는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혁명투쟁에서나 건설사업에서 대상을 잘 알고있으면 그에 맞게 일을 잘 조직할수 있으며 실수없이 일해나갈수 있습니다.》(《사회주의경제관리문제에 대하여》, 제3권, 150페지)

아래의 사업실태와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파악하는것은 현실적인 방법론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조건의 하나이다.

아래의 실정을 정확히 알아야 그에 알맞는 현실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사업할수 있다.

아래의 실태를 구체적으로 료해하지 않고 세운 방법론은 아무런 의의가 없을뿐아니라 도리여 사업에 방해를 주게 된다.

우리 일군들이 아래의 사업실태를 언제나 환히 꿰들고있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아래단위에 깊이 침투하여야 하며 군중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현실속에 들어가야 아래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료해할수 있으며 그에 맞는 옳은 방법론을 세울수 있다.

현실과 동떨어져서는 사업을 설계할수도 없고 작전계획을 바로세울수도 없으며 도대체 방법론을 찾아낼수도 없다.

우리 일군들은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군중속에 깊이 들어가 그들과 한가마밥을 먹으면서 진지하게 담화도 하고 현실을 해부학적으로 세밀히 분석하여 문제해결의 옳은 방도를 찾아내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동시에 현실속에 들어가지 않고 낡은 경험주의에 빠져 사업을 처리하려는 경향을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경험주의자들은 끊임없이 발전하는 현실과 대중의 준비정도를 고려함이 없이 주관주의에 사로잡혀 고정격식화된 한가지 처방으로 모든 사업을 손쉽게 처리하려고 한다.

경험주의는 우리 당 사업을 생기없는것으로 만들며 형식주의, 요령주의, 관료주의, 소총명 등을 조장시키고 그것을 만성적인것으로 만든다.

그러므로 현실을 외면하고 낡은 경험을 고집하면서 현실적인 방법론을 찾으려 하지 않는 경향을 결정적으로 반대하여 투쟁하여야 한다.

당사업방법론을 옳게 세우기 위하여서는 또한 집체적토의를 강화하여야 한다.

집체적토의를 강화하여 대중적인 지혜와 힘을 합치는것은 옳은 방법론을 세울수 있게 하는 중요한 담보이다.

방법론은 아래에 내려가 사업실태를 료해하는것만으로는 저절로 세워지지 않는다.

당의 의도와 현실을 정확히 파악한 다음에는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집행하겠는가를 늘 궁리하고 설계하며 집체적인 토의를 거듭하여 성숙시켜야 옳은 방법론을 세울수 있다.

경험은 어떤 과업이든지 제기되면 집체적인 토의를 강화하여 대중의 창발적의견이 합쳐질 때 문제해결의 좋은 묘술과 방도를 찾을수 있다는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옳은 방법론을 세우기 위하여서는 되는대로 하는 주먹구구식 사업방법을 철저히 없애고 모두 합심하여 집체적인 협의를 강화하는 혁명적인 사업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우리 일군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당중앙의 방침을 무조건 끝까지 관철하기 위하여 서로 련관된 부서들사이에 늘 모여앉아 협의하며 동시에 방법론을 세우는데서 얻은 좋은 경험들과 그것을 일반화하기 위한 사업도 정상적으로 토의하여야 한다. 그리하여 완성된 방법론을 가지고 당의 로선과 정책 관철에로 대중을 조직동원하여야 한다.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밑에 벌어지고있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전국적으로 세차게 타오르고있는 오늘의 현실은 우리 일군들로 하여금 더욱 세련되고 완성된 방법론을 가지고 사업할것을 요구하고있다.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당조직들이 틀어쥐고나가야 할 중대한 사업이며 이 운동의 성과여부는 전적으로 우리 일군들이 구체적이며 현실적인 방법론을 세워가지고 어떻게 일하는가 하는데 달려있다.

모두다 당사업방법론에 관한 당의 혁명적방침을 높이 받들고 당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 3대혁명의 기치밑에 온 사회의 주체사상화를 더욱 힘있게 다그쳐나가자.

우리 당의 령도밑에 찬란히 꽃피는 주체문학예술

최 익 규

우리 당은 혁명과 건설을 위한 어렵고 복잡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여 오면서 정치, 경제, 문화의 모든 분야에서 위대한 승리를 이룩하였으며 이 땅우에 불멸의 업적을 쌓아올리였다.

혁명과 건설에서 우리 당이 이룩한 찬란한 업적에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빛발아래 끊임없이 개화발전하는 주체문학예술의 자랑찬 성과도 아로새겨져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높으신 뜻을 받들고 영광스러운 당중앙에서는 우리 나라의 문학예술을 혁명적문학예술의 본보기로, 우리 나라를 번영하는 주체적문학예술의 나라로 만들려는 원대한 구상밑에 문학예술사업을 현명하게 이끌어왔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따라 특히 지난 10여년간 우리의 문학예술은 비약과 기적으로 가득찬 승리의 길을 걸어왔으며 일대 번영기를 맞이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의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은 찬란히 꽃피고있습니다.… 우리의 문학예술은 참말로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근로자들을 공산주의적으로 교양하는 힘있는 수단으로 되고있습니다.》(《김일성저작선집》, 제5권, 430페지)

오늘 우리의 문학예술은 전면적개화기에 들어섰으며 우리 나라는 어린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전체 인민이 다같이 문학과 예술을 즐기고 문학예술창작활동에 적극 참가하는 진정으로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예술의 나라로 되였다.

인민대중속에서 꽃피여나는 우리의 문학예술은 사회주의, 공산주의를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에 이바지하는 가장 당적이고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로 되였으며 계급해방, 민족해방을 실현하며 사람들을 혁명적으로 교양개조하고 사회를 발전시키는데 복무하는 위력한 사상적무기로 되였다.

승리와 영광으로 빛나는 주체적문학예술발전의 자랑찬 로정에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의 력사가 수놓아져있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문학예술사업에 전면적으로 구현하여 주체문학예술의 본성과 그 형상의 핵을 새롭게 천명한 공산주의인간학과 종자에 관한 리론을 비롯하여 새형의 주체문학예술의 건설과 창조, 문학예술의 물질기술적토대의 축성과 보급에 이르기까지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나서는 문제들을 전면적으로 완벽하게 밝힌 독창적인 문예리론을 창시하였다.

당중앙이 내놓은 문학예술에 관한 사상과 리론은 인류문학예술발전과 우리 나라 문학예술발전의 력사적경험, 현시대 문학예술발전의 세계적추세를 주체적립장에서 완전히 새롭게 분석총화한데 기초하여 밝힌 과학적인 사상과 리론이다.

그것은 또한 인민대중이 세계를 지배하는 주인으로 등장하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창조적으로 개척해나가는 주체시대의 새로운 력사적요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합법칙적요구를 전면적으로 반영하고있는 완전히 새롭고 독창적인 공산주의적문예사상과 리론이다.

또한 그것은 사회주의, 공산주의 문학예술건설과 창조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는 백과전서적

인 사상과 리론이다.

주체적문예리론이 창시됨으로써 력사상 처음으로 체계정연한 전일적인 문예리론이 완성되고 문학예술창작실천은 비로소 확고한 과학리론적토대우에서 확신성있게 발전하게 되였다.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은 온갖 반동적이며 이색적인 문예리론에 결정적타격을 주고 문예리론분야에서 로동계급의 혁명적기치를 확고히 고수하고 혁명적문예사상과 리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킨 탁월한 공헌으로 된다.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은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의 문학예술에 전면적으로 구현되고 빛나는 승리를 이룩하였다.

당중앙은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의 근본요구로부터 출발하여 주체사상으로 일색화된 새로운 주체형의 문학예술을 건설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한다는것은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하여 혁명적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하며 발전시켜나간다는것을 말한다. 이것은 주체시대의 요구와 온 사회를 로동계급의 모양대로 개조해나가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의 필연적요구를 반영하고있는것으로서 문학예술분야에서 온갖 낡은것을 쓸어버리고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공산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는 옳바른 길을 가르쳐주며 문학예술로 하여금 혁명과 건설의 강력한 무기로 발전할수 있게 하는 혁명적인 방도를 밝혀준다.

당중앙은 혁명과 건설에서 그리고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는데서 영화예술이 차지하는 위치와 그가 노는 거대한 역할, 현대인류문학예술발전추세를 깊이 통찰하고 문학예술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데서 영화를 중심고리로 튼튼히 틀어쥐고 거기에 힘을 집중하여 문학예술전반을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돌파구를 열어놓았다.

당에서는 주체영화건설에서 이룩한 혁신적인 성과에 토대하여 음악과 무용을 새롭게 혁신하고 그 기초우에서 가극혁명을 일으켜 주체형의 가극 《피바다》식혁명가극을 창조하였으며 뒤이어 문학예술의 다른 모든 분야에서 혁명적전환이 일어나도록 이끌어주었다.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우러러모시고 당의 현명한 령도따라 나아감으로써 인류문학예술의 상상봉우에 높이 떠받들려 찬란히 빛나고있는 새형의 문학예술, 주체형의 문학예술을 창조할수 있었다.

당의 령도따라 주체의 문학예술을 꽃피워나가는 과정에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의 불길속에서 친히 창작하신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 소설에 옮기는 력사적인 위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였다.

당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후손만대에 길이 전하며 우리의 문학예술을 주체형의 공산주의문학예술로 만들 원대한 구상을 세우고 그 실현을 위하여 무엇보다먼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에 옮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에 옮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창시하신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는 참으로 중요하고도 영예로운 창조사업이다. 이것은 영화분야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며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튼튼히 세우는 가장 옳바른 길이다.

또한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에 옮기는것은 우리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을 마련하며 그에 토대하여 영화예술을 주체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주체형의 공산주의영화예술로 발전시키는 가장 보람찬 창조사업이다. 그것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이 선행한 모든 문학예술과 근본적으로 다른 새형의 문학예술, 주체형의 문학예술로서 공

산주의문학예술이 갖추어야 할 모든 특징들을 완벽하게 체현하고있는 인류문학예술의 영원한 본보기로 되기때문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에 옮기는것은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데서만 아니라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를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며 그 발전의 새로운 개화기를 마련하는데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는 창조사업이였다.

당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 《꽃파는 처녀》를 영화에 옮기는 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는 과정에 낡은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쓸어버리고 새로운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을 완성하며 창작에서 속도전의 혁명적원칙을 철저히 구현하고 창작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되게 함으로써 창작실천에서 위대한 전환이 일어나게 하였다.

당의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영화창작의 모든 분야에서는 낡은 틀이 마사지고 혁명적영화예술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창조체계, 창조방법이 이루어졌으며 문학예술분야에서 혁명적대고조의 상징인 《한 자위단원의 운명 창작속도》가 창조되고 《백두산창작단의 일솜씨》로 불리우는 공산주의적창조기풍이 확립되였다. 이 혁명적변혁과정을 통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에 옮기는 력사적인 위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였으며 오늘 온 세상사람들이 《주체영화》라고 격찬하는 새형의 영화, 진정으로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영화가 세상에 태여났다. 주체영화의 탄생, 이것은 영화예술발전에서 일어난 위대한 혁명적사변이며 우리 나라의 영화예술에서 혁명전통의 창시를 선포하는 장엄한 력사적선언이였다.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밑에 창시된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은 주체적이며 공산주의적인 영화리론,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영원히 따라배우며 산 모범으로 삼아야 할 고전적본보기작품들, 항일유격대식문예활동체계와 창조방법을 이어받은 공산주의적 창조체계와 창조방법, 창작과정을 혁명화과정으로 전환시키고 속도전의 원칙을 구현한 혁명적창조기풍, 공산주의적창작 지도체계와 지도방법 등 심오하고 풍부한 내용을 담고있기때문에 가장 완벽하고 위력한것이다.

당중앙에 의하여 창시된 영화예술의 혁명전통은 우리의 영화예술을 발전시키는 전행정에 일관하게 틀어쥐고나가야 할 지도사상과 불멸의 본보기로, 모든 영화예술의 사상예술적힘과 지혜의 무궁무진한 원천으로 되며 주체영화의 깊고 억센 뿌리로, 우리 당과 인민의 귀중한 예술적재부로 된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에 옮기는 사업이 성과적으로 수행되여 혁명적영화전통이 이루어짐으로써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창작하신 작품들을 대를 이어 길이 전하며 혁명적문예전통을 우리 시대에 더욱 활짝 꽃피우는 력사적위업이 빛나게 실현되였으며 우리의 영화예술은 온 사회를 위대한 주[illegible]으로 일색화하는 강력한 무기로, [illegible]주의적영화예술이 나아갈 앞길을 [illegible]주는 휘황한 등대로 되였다.

불후의 고전적명작의 영화화는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로동계급의 요구에 맞게 혁명화하는 가장 옳바른 길을 밝혀주었으며 이 땅우에 문학예술의 일대 번영기를 열어놓았다. 그것은 참으로 20세기혁명적문예부흥의 장엄한 서곡이였으며 공산주의문학예술의 찬란한 미래를 앞당기는 전주곡이였다.

당중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에 옮긴데 뒤이어 가극에 옮기는 사업을 현명하게 조직지도하였다.

당중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가극에 옮기는 사업을 낡은 가극의 틀을 마스고 새형의 가극, 주체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당적이며 인민적인 가극예술을 창조하는 혁명으로 인정하고 《피바다》식혁명가극을 창조하는 전인미답의 길을 진두에서 개척

해나갔다.

당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 《피바다》를 가극에 옮겨 인류가극사의 새로운 장을 장식하는 새형의 가극, 《피바다》식혁명가극을 창조하고 가극혁명의 시초를 열어놓았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 《꽃파는 처녀》를 각색하는 사업을 지도하여 우리 나라에서 가극혁명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완수하였다.

당중앙의 지도밑에 창조된 《피바다》식가극은 절가화된 노래와 우리식의 방창과 관현악,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무용과 흐름식립체미술로 엮어진 새형의 혁명가극이다.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가극무대에 옮기는 사업을 통하여 가극혁명을 완수함으로써 가극분야에서는 주체사상이 확고히 구현되고 영광스러운 혁명적문예전통이 빛나게 계승발전되였으며 우리 나라는 세상사람들이 찬양하는바와 같이 《가극의 왕국》으로 되였다.

가극혁명이 수행됨에 따라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주체형의 가극예술의 참다운 본보기가 마련되고 현대가극을 파멸의 위기에서 구원하여 새로운 길로 발전시켜나갈수 있는 휘황한 전망을 가지게 되였으며 인류가극의 새 력사가 시작되게 되였다.

당중앙은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영화와 가극에 옮기는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수행한데 뒤이어 소설에 옮기는 사업을 포치하고 새형의 혁명소설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에 완벽한 해답을 주었으며 작가들의 창조사업을 힘있게 이끌어주었다.

당의 옳바른 지도에 의하여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긴 장편소설 《피바다》와 《한 자위단원의 운명》이 세상에 나왔다. 그것은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질을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그려내는 새형의 혁명소설의 시원으로, 본보기로 되였으며 문학분야에서 항일혁명문학예술전통을 빛나게 계승발전시키는 새로운 길을 실천적으로 밝혀주는 모범으로 되였다.

당에서는 연극분야에서도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오늘의 무대에 옮길수 있도록 구체적인 창조방향과 방도를 명백히 밝혀주었으며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연극에 옮기는 과정을 통하여 연극의 낡은 틀을 대담하게 마스고 시대의 요구와 로동계급의 본성에 맞는 새형의 혁명연극을 창조하는 혁명을 일으키도록 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문학예술분야에서는 불후의 고전적명작들을 옮기는 보람찬 창조사업을 빛나게 수행하였을뿐아니라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고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는데 힘있게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다양한 형식의 혁명적작품들을 수많이 창작하였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와 혁명가정을 빛나게 형상하여 후손만대에 길이 전할 원대한 구상밑에 창작사업을 직접 지도하면서 이때까지의 문예학이 전혀 해명하지 못한 로동계급의 탁월한 수령의 형상창조와 관련한 모든 문제에 완벽한 해명을 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우리의 문학예술에서는 비로소 위대한 수령님의 존귀한 형상을 모시는 영광스러운 사업이 본격적인 궤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서 성과적으로 진행되게 되였으며 문학예술은 당과 혁명 앞에서, 시대와 력사 앞에서 지닌 자기의 영예롭고도 무거운 사명을 수행하게 되였다.

오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력사가 깃들어있는 유서깊은 혁명의 성지마다에 모셔져있는 불멸의 기념비적조각들과 화폭들, 총서 《불멸의 력사》에 그려진 대서사시적화폭들은 다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직접적이며 정력적인 지도의 고귀한 결실이다.

당에서는 또한 사람들의 혁명적세계관을 세우는데 이바지하는 혁명적대작을 창작할데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가르치심을 받들고 예술영화 《유격대의 오형제》의 창작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집중적으로 지도하여 혁명적대작의 본

보기를 창조하였다.

이에 토대하여 문학예술에서는 위대한 력사적사건을 준거리로 하여 조선혁명의 발전과 함께 투쟁속에서 성장하는 공산주의자의 전형적모습을 그리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등 사회생활을 폭넓게 반영하여 공산주의운동발전의 본질을 밝혀내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대작들이 창작되였다. 그리하여 문학예술은 사람들을 주체의 혁명적세계관으로 무장시키는 힘있는 사상적무기로 되였으며 그들에게 혁명투쟁의 경험과 방법을 배워주는 혁명교양의 산 교과서로 되였다.

당에서는 혁명투쟁을 반영한 대작창작뿐아니라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아담한 형식의 작품창작에 불을 지피고 영화예술을 비롯한 문학예술전반에서 새로운 혁신이 일어나도록 하였다.

사회주의혁명이 승리한 다음 문학예술앞에는 사회주의현실생활을 진실하게 반영하여 사회주의건설에서 나서는 중심문제들에 옳바른 예술적해답을 주며 새형의 사회주의적인간전형을 내세우고 그를 본받도록 하며 사회주의제도의 우월성을 뚜렷이 보여주어야 할 과업이 나선다. 이 중대한 과업은 지난시기 옳바른 해결을 보지 못한채 절박하게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었다.

당에서는 사회주의문학예술창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면서도 력사적으로 걸리고있던 이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완벽한 해명을 주고 그 창작사업을 집중적으로 지도하였다.

당에서는 예술영화 《로동가정》과 《꽃피는 마을》에 대한 지도를 통하여 사회주의현실을 반영하는 작품들의 종자와 주제 문제, 인물형상과 인간관계의 설정 문제, 갈등과 양상 문제 등 가장 어렵고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실천적 방도들을 과학적으로 밝혀주었다.

당의 현명한 지도에 의하여 영화분야에서는 현실속에서 우러나오고 인민대중의 실천활동과 밀접히 결합된 현실주제의 수많은 작품들이 성과적으로 창작되였으며 이러한 혁신의 불꽃은 문학예술전반에 퍼져나갔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작품창작문제가 실천을 통하여 완전히 해결됨으로써 사회주의문학예술창작에서 이때까지 모색과 탐구, 실패를 거듭해오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비로소 풀리게 되고 우리의 문학예술은 당보의 사설과 같이 현실보다 앞서나가면서 인민대중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고무추동하는 위력한 수단으로 되였으며 사회주의제도를 열렬히 긍정하고 그 우월성을 노래하는 시대정신의 참다운 대변자로 되였다.

사회주의현실주제의 빛나는 해결은 사회주의제도를 비방중상하며 그 우월성을 깎아내리는 부르죠아문학예술과 기회주의문학예술의 반동적본질과 반사실주의적성격을 폭로하고 그에 심대한 타격으로 되며 문학예술분야에서 당성, 로동계급성의 원칙을 확고히 고수하고 사회주의문학예술이 나아갈 옳바른 길을 밝혀준것으로 된다.

당에서는 문학예술을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전면적으로 개화발전시킬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영화, 문학, 음악, 무용, 미술, 교예, 연극 등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과 그 종류들을 전면적으로 조화롭게 발전시키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였다.

당에서는 문학예술전반을 발전시키는데서 영화를 중심고리로 내세우고 예술영화와 함께 기록영화, 시보영화, 과학영화, 아동영화 창작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끌어올리였다.

당의 지도밑에 우리의 영화예술은 위대한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와 혁명적가정을 수록한 우수한 력사기록영화와 현지지도영화들을 내놓는 영광스러운 사업을 훌륭히 수행하고있다.

오늘 기록영화는 우리 당의 빛나는 력사의 기록자로, 당정책의 적극적인 해설선전자로 힘있게 발전하고있으며 시보영화는 강한 정론성과 호소성, 높

은 기동성과 시사성을 가지고 전체 인민을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적극 고무추동하고있다. 과학영화는 3대혁명의 기치따라 문화혁명, 기술혁명 특히 3대기술혁명과업수행에 크게 이바지하고있으며 아동영화는 새세대들을 우리 혁명의 믿음직한 역군으로 키우는 유일사상교양, 혁명교양, 계급교양에 훌륭히 복무하고있다.

문학분야에서는 다른 예술형태들에 문학을 앞세워발전시킬데 대한 당의 정확한 방침이 관철됨으로써 영화문학을 비롯한 극문학, 소설, 시, 가사, 아동문학 창작에서 새로운 혁명적전환이 일어났으며 문학은 모든 종류들에 결쳐 전면적으로 발전하면서 근로자들에 대한 사상교양에 힘있게 이바지하고있을뿐아니라 영화와 가극을 비롯한 예술발전을 튼튼히 밀받쳐주고있다. 특히 소설분야에서는 최근년간에 전례없는 창작적앙양이 일어났으며 시대의 요구와 인민의 지향에 맞는 높은 사상예술성을 가진 우수한 중장편들이 수많이 창작되였다.

음악무용분야에서는 오늘 전세계에 그 이름을 떨치고있는 만수대예술단을 거점으로 눈부신 발전을 이룩하였다.

당에서는 영화혁명에 뒤이어 음악, 무용을 혁신하여 새로운 높은 봉우리에로 끌어올릴 구상밑에 만수대예술단을 튼튼히 꾸리고 그 활동방향과 활동원칙, 음악무용창작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들을 명백히 밝혀주고 그 창조사업을 정력적으로 지도하였다.

당의 세심한 지도와 보살핌 속에서 만수대예술단은 전국의 본보기단체로 자라났으며 우리 나라의 문학예술발전 특히는 음악무용발전에 특출한 공헌을 하였다.

만수대예술단을 거점으로 음악분야에서는 음악을 민족적바탕우에서 현대미감에 맞게 발전시키며 대중화, 통속화할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을 빛나게 관철함으로써 민족음악이 전면적으로 발전하게 되였으며 인민대중의 심금을 울리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군중가요들이 수많이 창작되였으며 사대주의, 교조주의가 산산이 짓부셔지고 새형의 관현악과 민족악기와 양악기를 배합한 우리식의 악기편성법, 노래를 아름답고 유순하게 부르는 우리식의 창법이 완성되였다.

음악과 함께 무용에서도 온갖 이색적인것들이 청산되고 아름답고 고상한 민족무용이 시대미감에 맞게 활짝 꽃피여나고있다.

미술분야에서는 주체를 튼튼히 세울데 대한 당의 일관한 방침에 의하여 조선화를 기본으로 하는 다양한 미술형식들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으며 모든 미술작품들은 우리 인민의 생활감정과 정서에 맞는 참다운 인민적인 미술로, 당과 혁명의 리익을 위하여 복무하는 혁명적인 미술로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교예분야에서도 자본주의적이며 형식주의적인 온갖 이색적인 경향들이 철저히 극복되고 혁명하는 인민들의 전투적미감에 맞는 체육문화적으로 조화되고 사상예술적으로 건전한 사회주의적민족교예가 눈부시게 발전하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문학예술의 모든 형태들과 종류들이 전면적으로 개화발전하고있을뿐아니라 모든 창작분야에서 자본주의적이며 교조주의적인 낡은 창조 체계와 방법들이 짓부셔지고 주체적문학예술의 본성에 맞는 혁명적인 창조체계와 창조방법이 확립되고 새로운 형상 수단과 수법들이 탐구되였으며 시대의 요구에 맞는 새로운 예술형식들이 창조되였다. 문학예술의 모든 창작분야에서 일어난 새로운 혁신은 지난날의 온갖 낡은 창조 체계와 방법들에 종지부를 찍고 문학예술의 사상예술성을 높이는 결정적인 담보로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은 어버이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근위대, 결사대로, 주체형의 문예전사로 튼튼히 준비되고 주체의 사상체계에 기초하여 문학예술인대렬의

사상의지의 통일과 단결이 굳세게 다져졌다.

당에서는 사람이 모든것의 주인이며 모든것을 결정한다는 주체철학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여 문학예술창조의 주인이며 담당자인 작가, 예술인들의 대렬을 튼튼히 꾸리며 그들을 끊임없이 혁명화, 로동계급화하고 그들의 예술기량을 높일데 대한 옳바른 방침을 제시하고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령도하였다.

당에서는 오랜 작가, 예술인들을 교양개조하며 로동자, 농민 출신의 새세대들을 작가, 예술인으로 키우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 작가, 예술인 대렬을 대부대로 편성하였으며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에 맞게 작가, 예술인 대렬을 끊임없이 보충확대할수 있는 튼튼한 양성기지를 꾸려놓았다. 이것은 우리 당이 주체적문학예술건설과정에 마련한 귀중한 재부이며 밑천이다.

당에서는 작가, 예술인 대렬을 대부대로 키워주었을뿐아니라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데 깊은 관심을 돌리고 창작과 공연 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새로운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였다.

작가, 예술인들에게 있어서 창작과 공연활동 과정은 당의 전투임무를 수행하는 혁명적실천이며 작품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고매한 덕성, 혁명적사업방법과 인민적사업작풍을 따라배우는 혁명적수양의 과정이다. 그것은 또한 작가, 예술인들이 자신에게 남아있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사대주의, 교조주의, 수정주의 등 온갖 낡은 사상의 오물들을 쓸어버리고 정치사상적으로 끊임없이 단련되는 과정이다. 그렇기때문에 창작과 공연 과정을 혁명화, 로동계급화 과정으로 만들데 대한 당의 방침은 작가, 예술인들을 주체형의 문예전사로 키워내는 가장 옳바른 방침이다.

작가, 예술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할데 대한 방침에는 우리의 모든 작가, 예술인들을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당의 참된 문예전사로 키우며 그들을 공산주의사회까지 이끌고가려는 당의 크나큰 사랑과 배려가 담겨있다.

당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시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주체형의 문예전사,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혁명가들로 키우기 위하여 그들을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사업을 직접 틀어쥐고 정력적으로 지도하였으며 크나큰 배려를 베풀어주었다.

당에서는 수많은 문예작품들을 하나하나 빠짐없이 다 검토하고 제목과 종자로부터 문장 하나, 화면 하나, 선 하나에 이르기까지 잘못된것은 바로잡아주며 작가, 예술인들이 창작과정에 과오를 범하면 잘못을 일깨워주고 자그마한 성과라도 거두면 분에 넘치게 평가하고 고무하면서 작가, 예술인들을 보람찬 혁명화의 한길로 곧바로 이끌어주었다.

당에서는 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높은 정치적자각과 기술로써 충성으로 보답할수 있게 하기 위하여 다방면적이고도 풍부한 지식과 높은 기술을 소유하도록 모든 조건들을 빈틈없이 갖추어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영화예술인들을 비롯한 작가, 예술인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투쟁하는 위대한 수령님의 친위대, 결사대로 자라났다.

작가, 예술인들은 어버이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수령님의 높으신 권위를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신념으로 삼고 그 관철에서 무조건성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는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였다.

작가,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귀중히 간직하고 수령님의 크나큰 정치적신임과 배려에 충성으로 보답하기 위하여

높은 정치적열성을 발휘함으로써 정치리론수준과 예술기량을 끊임없이 높여 언제나 어버이수령님께서 맡겨주시는 혁명임무를 훌륭히 수행해나가는 유능한 일군으로 자라났다. 그리하여 작가, 예술인들은 어버이수령님으로부터 혁명적예술인이라는 가장 영광스러운 칭호를 받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오늘 우리 나라에는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 필요한 물질기술적토대가 튼튼히 꾸려졌다.

당에서는 영화촬영소들을 비롯하여 현대적인 창작기지들을 건설하며 문학예술을 발전시키는데 요구되는 현대적인 기계설비들과 기자재들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는 튼튼한 공업기지를 꾸릴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였다.

당에서 제시한 이 방침은 문학예술과 현대과학기술과의 호상관계에 대한 심오한 분석에 기초하고있는 과학적인 방침이며 문학예술을 우리의 힘, 우리의 설비와 기술로 자주적으로 발전시키려는 확고한 주체적립장을 반영하고있는 혁명적인 방침이다.

당에서는 문학예술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꾸릴데 대한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방침을 제시하였을뿐아니라 그 관철을 위한 투쟁을 옳바르게 이끌어주었으며 문학예술부문에 크나큰 배려를 돌려주었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오늘 우리 나라에는 현대적설비와 과학기술로 튼튼히 장비된 수많은 현대적인 영화촬영소들과 극장들이 일떠섰으며 그에 따라 우리의 문학예술은 혁명과 건설의 요구에 맞게 비약적으로 발전하면서 사상혁명, 문화혁명, 기술혁명 수행에 훌륭히 복무할수 있게 되였다.

특히 당의 세심한 지도밑에 새롭게 개건확장된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모든 생산공정이 자동화되고 아무리 복잡하고 방대한 규모의 작품이라도 막힘없이 만들어낼수 있는 영화창작의 대전당으로, 현대영화과학기술이 도달한 최고의 성과를 남김없이 시위하는 대문화궁전으로 발전하였다. 조선예술영화촬영소는 우리 인민이 자력갱생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여 자체의 힘으로 일떠세운 귀중한 창조물이며 영화예술을 자립적인 물질기술적토대우에서 줄기차게 발전시킬수 있는 튼튼한 밑천이다.

당의 현명한 령도와 크나큰 배려에 의하여 지난날 영사기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하던 우리 나라에 오늘은 영화창작과 보급에 필요한 모든 기술설비들을 자체로 생산보장하는 현대적인 영화공업기지가 새롭게 일떠섰으며 무대예술과 미술에 요구되는 설비들과 자재들을 보장하는 튼튼한 생산기지가 마련되였다.

문학예술창작기지들이 튼튼히 꾸려짐으로써 우리의 문학예술은 자립적인 물질기술적토대를 가지게 되고 그에 기초하여 자주적인 발전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으며 천리마의 속도로 급속히 발전하는 현실의 요구와 날을 따라 끊임없이 장성하는 문학예술에 대한 인민들의 수요를 제때에 원만히 해결할수 있게 되고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지난날의 락후한 물질기술적조건에서 완전히 벗어나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마음껏 창작활동을 벌릴수 있게 되였으며 주체적문학예술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힘있게 밀받쳐주는 백년대계의 터전을 가지게 되였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작가, 예술인들이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주체형의 공산주의혁명가로 튼튼히 준비되고 문학예술발전을 힘있게 밀받쳐주는 강력한 물질기술적토대가 마련되였으며 그에 기초하여 주체의 문학예술은 찬란히 꽃피여나고 우리의 혁명과 건설을 다그치며 세계혁명적인민들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는데 거대한 역할을 놀고있다.

오늘 우리의 주체적문학예술은 온 사회를 위대한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사람들을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키우며 그들을 혁명과 건설에로 힘있게 조

직동원하는 강력한 교양자, 조직자, 선동자로 되였다. 특히 우리의 영화예술은 근로자들의 사업과 생활에서 실효투쟁의 힘있는 무기로 되고있다. 이것은 문학예술의 사회적 기능과 역할을 가장 높은 수준에로 끌어올린 빛나는 모범으로서 우리의 문학예술이 당과 혁명 앞에서 지닌 자기의 숭고한 혁명적사명과 전투적임무를 빛나게 수행하고있다는것을 말하여준다.

오늘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 앞에는 이미 거둔 위대한 승리와 성과들을 공고히 하며 그에 토대하여 문학예술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발전시키며 그 위력을 더욱더 높이 발양시켜야 할 무겁고도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앞으로도 계속 물질적요새와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다같이 밀고나가면서 사상적요새를 점령하기 위한 투쟁을 앞세워나가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할것입니다. 문학예술부문일군들은 우리 당의 이 정확한 방침을 관철하는데 이바지하는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할것입니다.》 (《사회주의문학예술론》, 561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우리의 작가, 예술인들은 공산주의 건설의 사상적요새를 앞당겨점령하는데 이바지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혁명적 작품들을 더 많이, 더 빨리, 더 좋게 창작하여야 한다.

작가, 예술인들은 난관에 굴하지 않고 승리에 자만하지 않으며 새로운 승리를 위하여 끊임없이 투쟁하며 계속혁신, 계속전진하는 혁명적기풍을 높이 발양하여 눈부시게 발전하는 장엄한 현실의 요구에 맞게 속도전의 불바람을 세차게 일으켜 문학예술사업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비약을 이룩하여야 하며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와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우리 인민의 영웅적 투쟁에 힘있게 이바지하여야 할것이다.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자

리 오 송

오늘 우리 혁명은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힘있게 전진하는 길에서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섰다.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당의 방침이 적극 추진됨으로써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온 사회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열화같은 충성심이 꽉 들어찼으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전당과 전체 인민의 통일단결이 반석같이 다져졌다.

전체 인민이 불타는 충성의 열정을 안고 사회주의건설에서 일찌기 있어보지 못한 대비약, 대혁신을 끊임없이 일으킨 결과 나라의 경제적위력은 비상히 강화되고 공화국북반부의 혁명기지는 튼튼히 다져졌으며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앞당길수 있는 확고한 토대가 마련되였다.

지금 우리의 영웅적로동계급과 근로자들은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혁명적구호밑에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결같이 떨쳐나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또다시 새로운 혁명적앙양을 일으키고있다.

우리 혁명이 오늘과 같은 위대한 변혁과 비약의 새시대를 맞이한것은 전적으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와 그이의 높은 뜻을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탁월하고 세련된 지도의 결과이다.

실로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현명한 령도밑에 전당과 전체 인민을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휘황한 미래에로 확신성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것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영예롭고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중앙을 충성으로 받들어나가는 여기에 우리 인민의 영원한 승리가 있고 행복이 있으며 우리 인민이 수천년력사에서 처음으로 맞이하고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께 해와 달이 다하도록 대를 이어 영원히 충성다해나가는 끝없는 영광이 있다.

* *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은 한세대에 끝나는것이 아니라 여러 세대에 걸쳐 진행되는 력사적위업이다.

로동계급의 수령이 개척한 공산주의혁명위업은 대를 이어가면서 확고히 고수되고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여나가야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국제공산주의운동의 력사적경험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계승해나가지 못할 때 혁명운동은 우여곡절을 겪게 되고 간고한 투쟁을 통하여 이룩한 고귀한 혁명의 전취물마저 위험에 빠뜨리는 엄중한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혁명의 길을 처음으로 개척한 수령의 위업을 어떻게 계승해나가는가 하는것은 로동계급의 혁명위업의 운명과 관련되는 매우 중대한 문제로 된다.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혁명의 진두에 나서시여 주체의 홰불로 조선혁명의 앞길을 밝히시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새기원을 열어놓으시고 겹쌓인 난관과 시련을 타개하시면서 우리 인민을 세기적인 변혁과 위대한 승리의

한길로 빛나게 이끌어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주체적인 조선혁명의 진로를 개척하심으로써 우리 인민은 비로소 오랜 수난의 력사를 끝장내고 혁명의 새시대를 맞이할수 있었으며 자랑찬 영광의 길을 걸어올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현대력사의 준엄한 폭풍을 뚫고 승승장구하여온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은 오늘 우리 당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여나가고있다.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수령의 혁명사상을 실현하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완성하기 위한 무기이다. 공산주의위업은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의 령도밑에서만, 당의 령도적역할을 부단히 높임으로써만 성과적으로 실현될수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예술을 완벽하게 체현하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께서 구상하시고 의도하시는대로 혁명투쟁과 건설사업 전반을 정확히 령도해나가는 가장 영광스러운 당이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이 있고 그 혁명적령도가 있음으로 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은 대를 이어 튼튼히 고수될수 있게 되였으며 우리 나라에서 주체의 혁명위업, 공산주의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이룩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가 마련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오늘 우리는 우리 당이 능히 공산주의혁명위업을 성과적으로 완수하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매우 기쁜 마음으로 당창건 30돐을 기념하고있습니다.》(《조선로동당창건 30돐에 즈음하여》, 13페지)

우리 당은 무엇보다도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고전적으로 정식화하여 선포하고 인류사상사에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차지하는 력사적지위를 과학적으로 밝힘으로써 우리 시대가 력사의 일정에 올린 가장 중요한 문제를 정확히 해결하였다.

우리 당이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본질적특성과 구성내용, 그 력사적지위와 혁명적사명을 과학적으로 명시한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옹호하고 빛나게 구현하며 그이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거대한 력사적의의를 가진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계승발전시켜나가는 우리 당의 령도에서 특출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독창적인 사상과 방침을 내놓은것이다.

우리 당은 공산주의사회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이 철저히 구현된 사회라는 과학적인 명제로부터 출발하여 처음으로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것을 우리 당의 최고강령으로 규정하였다.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하는것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혁명위업의 계속이며 그 종국적승리를 위한 새로운 력사적진군이다.

당에서 가르친바와 같이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사상은 모든 사람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철저히 개조하여 공산주의의 사상적요새와 물질적요새를 점령할데 대한 탁월한 사상이다.

이 혁명적방침에 의하여 력사상 처음으로 공산주의건설의 총적방향과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이 자기의 최종목표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산주의건설로정에서 반드시 견지하여야 할 전략과 투쟁방침이 뚜렷이 밝혀지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할데 대한 혁명적강령이 제시됨으로써 인민들은 휘황찬란한 미래를 확고히 내다보면서 공산주의에로의 총진군운동에 떨쳐나서게 되였으며 그 투쟁을 더욱 목적의식적으로 다그쳐나갈수 있게 되였다. 우리 인민은 당의

이 전투적강령을 자신들의 사활적인 사업으로 무조건 받아들이고있으며 그 실현을 위해서는 청춘도 생명도 다 바칠 혁명적각오를 가지고 억세게 투쟁하고 있는것이다. 온 사회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때 인민들은 인류의 최고리상인 공산주의의 높은 령마루에 승리의 기발을 휘날리게 될것이다.

실로 우리 당이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강령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전당과 전체 인민을 이끌어나가고있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혁명실천에 빛나게 구현한것으로서 우리 사회를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일색화된 사회로 되게 하는 력사적 위업이다.

우리의 당중앙은 당을 강화하고 당사업을 끊임없이 심화발전시켜나갈데 대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이끌어나가고있다.

당을 조직사상적으로 공고화하며 영원토록 당을 창건한 수령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는것은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계승완성하기 위한 필수적요구이다.

당중앙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할데 대한 전투적구호가 전면에 제기된 우리 혁명발전의 새로운 단계의 요구에 맞게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울데 대한 방침을 제시하고 이 사업을 항구적으로 틀어쥐고나가기 위한 확고한 원칙을 밝혀주었다.

당중앙은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세우는데서 근본은 위대한 수령님을 충성으로 높이 우러러모시며 위대한 수령님의 권위를 철저히 옹호보위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교시를 신념화, 신조화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집행에서 무조건성의 원칙을 지키는것이라고 밝혀주었다. 이와 함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양개조하기 위한 방향과 방도들을 명시하였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철저히 세우기 위한 원칙과 과업들을 제시하였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더욱 튼튼히 세울데 대한 혁명적원칙에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려는 당중앙의 뜨거운 충성심과 확고한 의지가 관통되여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영원히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따르며 그이의 혁명전사로 살며 싸워나가려는 우리 당원들과 인민들의 한결같은 지향과 념원이 반영되여있다.

당의 유일사상체계를 철저히 세울데 대한 혁명적원칙이 제시됨으로써 현세대뿐아니라 자라나는 새대, 우리의 후대들도 다 위대한 수령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다운 주체형의 혁명가로 만들수 있게 되였다.

당을 창건한 수령의 사상을 이어받지 않는다면 그 당은 벌써 수령의 당이 아니며 그때에는 당이 계급적으로 변질되고 혁명의 대가 끊어졌다는것을 말해준다.

당이 영원히 그 창건자인 수령의 당으로 되고 대를 이어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완성시켜나가기 위해서는 후대들도 수령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고 그것을 계승하도록 하여야 하며 특히 수령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심을 가지고 혁명과 건설을 해나가야 한다.

당중앙은 또한 위대한 수령님의 주체적인 당건설리론과 당사업방법을 혁명발전의 현실적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켜 우리 당사업방법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주고있다.

당중앙은 전당을 간부화할데 대한 방침, 사상전을 벌릴데 대한 방침, 당사업을 항일유격대식으로 벌릴데 대한 방침을 비롯하여 당을 더욱 공고발전시키고 당사업을 개선강화하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심오한 해답을 주었다. 오늘 우리 당사업에서 획기적인 전환이 일어나고 우리 당이 주체의 혁명위업을 힘있게 떠밀어나가는 생

기발발한 전투적당, 위력있는 혁명적 당으로 강화발전되고있는것은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이루어진것이다.

참으로 당중앙은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당으로 강화발전시키고 우리 당을 주체의 혁명위업, 로동계급의 력사적위업을 끝까지 완성하는 무기로서의 사명을 다해나가게 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웅대한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밀고나가기 위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에로 전체 인민을 적극 불러일으키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최근에 우리 당은 사회주의대건설전투를 힘있게 벌려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새로운 앙양을 일으켰습니다.》(우와 같은 책, 17페지)

우리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하여 속도전에 관한 새로운 사상과 리론을 제시하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힘있게 떠밀고나가는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불길이 온 나라에 세차게 타번지게 함으로써 경제, 문화, 군사 등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분야에서 끊임없는 대비약, 대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

우리 당은 인민대중의 높은 정치적자각과 창조적적극성에 의거하여 사회주의대건설을 다그쳐나가고있으며 경제와 문화 등 사회의 모든 분야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개조하는 사업을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다.

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사회주의건설에서 위대한 비약이 일어남으로써 우리 인민은 공산주의의 물질적요새를 앞당겨점령할수 있는 확고한 담보를 가지게 되였다. 이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의 요구대로 사회를 개조해나가는 거창한 투쟁으로서 우리 혁명발전에서,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는데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렇듯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철저히 립각하여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전반에 대한 령도를 빛나게 실현해나가고있으며 주체의 혁명위업을 완성하기 위한 전인미답의 길을 성과적으로 개척해나가고 있다.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령도를 이 땅우에 빛나게 실현해나가는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나가야만 우리 혁명을 아무런 우여곡절없이 오직 주체의 한길로 이끌어갈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은 종국적으로 승리할수 있다.

우리의 영광스러운 당의 령도를 높이 받들고 그 한길에서 충성다해나갈 때 우리 민족의 숙원인 조국의 통일과 우리 혁명의 전국적승리는 앞당겨 실현될것이며 우리 나라에서의 사회주의, 공산주의 위업은 빛나게 완성될것이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력사적인 조선로동당창건 30돐기념대회에서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공산주의를 건설하는것은 우리 당의 최종목적입니다. 우리 당은 지난 30년동안 공산주의를 위하여 간고하고도 영광스러운 투쟁의 길을 걸어왔으며 앞으로도 공산주의위업의 승리를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갈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18페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그이의 현명한 령도밑에 반세기동안 영광찬란한 승리의 로정을 걸어온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것보다 더 숭고하고 영예로운 임무는 없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모시고 영광스러운 당의 현명한 령도를 받으며 혁명과 건설에서 힘찬 진군을 다그치고 있는 끝없는 긍지와 자부심을 깊이 간직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하기 위한 사업을 책임적으로 수행

하여야 한다.

영광스러운 당을 따라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령도밑에 당의 혁명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우는 사업을 확고히 틀어쥐고 그것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가야 한다.

당의 혁명적지도체제를 세우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고수하고 빛나게 완성해나가며 우리 혁명의 종국적승리를 앞당기기 위한 결정적담보이다.

당의 혁명적지도체제는 위대한 수령님의 사상과 령도를 전당과 온 사회에 철저히 구현하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위대한 수령님의 의도대로 우리 혁명을 전진시키고 승리에로 이끌어나가기 위한 지도체제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하기 위한 지도체제이다.

당의 혁명적지도체제를 확고히 세워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에 기초한 전당의 사상의지적통일과 단결을 철석같이 다질수 있고 우리 당을 영원히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지도적지침으로 삼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투쟁하는 혁명적당으로 되게 할수 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교시를 받들고 전당, 전국, 전군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혁명과 건설을 승리적으로 수행해나갈수 있다.

당의 혁명적지도체제를 철저히 세우기 위하여서는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당중앙을 티없이 맑고 깨끗한 충성의 일념으로 높이 받들고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을 빛나게 구현해나가는 당중앙의 모든 방침을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관철하며 당중앙의 지도밑에 전당이 하나와 같이 움직이는 강한 혁명적규률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이와 함께 우리 당의 혁명적지도체제사상과 량립할수 없는 자본주의사상, 봉건유교사상, 수정주의 등 온갖 반동적, 반혁명적 사상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며 당의 혁명적지도체제와 어긋나는 종파주의, 지방주의, 가족주의를 비롯하여 온갖 형태의 불건전한 사상요소들을 제때에 식별하고 그 사소한 표현에 대해서도 날카로운 투쟁을 벌려야 한다.

조선혁명의 앞길은 아직도 멀고 간고하다. 우리는 주체의 혁명위업의 종국적승리를 위하여 앞으로도 많은 난관과 시련을 이겨내지 않으면 안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으로 철저히 무장하여 어떠한 바람이 불어와도 조금도 흔들리지 말고 오직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밖에 모른다는 확고한 립장과 관점을 가지고 살며 싸워나가야 하며 주체사상에 기초한 당대렬의 사상의지적통일과 혁명적단결을 계속 강화하여야 한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영광스러운 혁명전통을 고수하고 영원히 계승발전시키는것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성해나가는데서 근본요구로 된다.

혁명전통교양을 강화함으로써만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을 당의 유일사상체계로 튼튼히 무장시킬수 있고 그들을 부단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원들과 근로자들뿐아니라 자라나는 후대들을 위대한 수령님께 충성다하며 당중앙의 혁명적지도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교양하여야 한다.

자라나는 후대들을 당의 혁명적지도체제에 끝없이 충실하도록 하는것은 당의 혁명적지도체제를 세우는 사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계속하여 주체의 혁명위업을 영원히 빛내여나가기 위한 중요한 문제이다.

인류해방을 위한 로동계급의 장기간의 투쟁도상에서 세대는 끊임없이 바뀌여진다. 후대들은 장차 혁명과 건설을

떠메고나가야 할 사회의 주인들이며 혁명의 계승자들이다.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은 후대들의 적극적인 참가밑에서만 앞으로 전진할수 있으며 공산주의위업은 이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해서만 실현될수 있다. 후대들이 정치사상적으로, 도덕적으로 건전하고 혁명적으로 튼튼히 준비되여야 혁명투쟁의 승리가 확고히 담보된다.

우리는 모든 후대들을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하고 당중앙을 위해서라면 살아도 영광, 죽어도 영광이라는 철석같은 신념을 가지고 어떤 역경에 처하더라도 어버이수령님께서 안겨주신 고귀한 정치적생명을 깊이 간직하며 비록 육체적생명은 죽어도 정치적생명은 영원히 빛내여나가는 혁명의 정수분자로 잘 키워야 한다. 후대들을 주체형의 피만이 맥박치는 열렬한 공산주의자로, 당중앙의 근위대, 결사대로 튼튼히 준비시켜야만 혁명의 세대가 바뀌우고 혁명의 앞길에 아무리 커다란 난관과 시련이 가로놓여도 추호의 동요없이 위대한 수령님께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끗끗이 이어나가면서 그것을 빛나게 완성할수 있다.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빛나게 완성해나가기 위하여서는 당중앙이 내세운 속도전의 방침을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에서 끊임없는 혁명적앙양을 일으켜나가야 한다.

당중앙의 의도는 곧 위대한 수령님께서 의도하시는것이며 당중앙이 내놓은 방침은 모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에 립각하고있으며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철저히 구현하고있는것으로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의 의사를 그대로 반영하고있는것이다. 당중앙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위업을 완성해나가기 위한 정확한 방침을 제시하고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를 과학적으로 밝혀준다. 그러므로 당조직들과 당원들은 당중앙이 제시한 모든 방침을 절대성의 정신에서 접수하고 무조건성의 원칙에서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현시기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나서고있는 주되는 혁명과업이며 바로 3대혁명을 잘하는 여기에 모든 사업에서의 승리의 결정적담보가 있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시고 당중앙이 지펴준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의 봉화를 높이 추켜들고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의 모든 전선에서 전례없는 일대 혁명적앙양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혁명의 영재이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심려를 덜어드리는 일이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력과 지혜를 깡그리 쏟아부으며 필요하다면 목숨까지도 서슴없이 바치 그것을 끝까지 관철하는 혁명가적기풍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참으로 우리의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모두다 사회주의대건설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와 영광스러운 당에 끝없이 충직한 투사가 되고 영웅이 되여야 한다.

전당과 온 사회에 당의 혁명적지도체제가 철저히 확립되고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 자라나는 후대들이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에 끝없이 충실한 주체형의 공산주의자로 되며 온 나라가 당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사회주의대건설을 힘있게 다그쳐나갈 때 혁명과 건설에서는 위대한 비약과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날것이며 주체의 혁명위업은 빛나게 완성될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당중앙을 높이 받들고 영광스러운 주체의 혁명위업을 빛나게 완성해나가는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앞길은 영광찬란하다.

주체의 기치밑에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끈 위대한 강령

지금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상도 기술도 문화도 주체의 요구대로!》라는 당의 전투적구호를 심장으로 받아안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장엄한 총진군을 다그치고있는 환경속에서 우리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발표 40돐을 뜻깊게 맞이하고 있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항일무장투쟁의 불길이 세차게 타번지던 1936년 2월, 남호두에서 력사적인 조선인민혁명군 군정간부회의를 소집하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라는 강령적인 보고를 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보고에서 항일무장투쟁이 시작된 이래 조선혁명에서의 주체확립을 위한 투쟁을 총화하시고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과 공산주의운동의 일대 앙양을 이룩하기 위해 나서는 전략전술적 문제들을 천재적으로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에서 항일무장투쟁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투쟁무대를 국내에로 진출시키며 광범한 대중을 혁명투쟁에 묶어세움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며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을 위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충분히 마련할데 대한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실로 이 로작은 주체사상의 심오한 진리를 밝힌 고전적문헌이며 혁명투쟁에서 주체를 세우고 주체사상을 구현하기 위한 투쟁의 길을 천재적으로 가르치준 강령적문헌이다.

오늘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이 로작을 깊이있게 연구하여 자신을 우리 당의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튼튼히 무장하는것은 온 사회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고 주체의 혁명위업을 끝까지 완수해나가는데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진다.

* *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조선혁명에서 주체의 기치를 높이 들고 항일무장투쟁을 자주성의 원칙에서 일대 앙양에로 이끈것을 그 어느때보다도 절박하게 요구하던 시기에 발표된 력사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혁명의 주인은 바로 조선공산주의자들입니다. 오늘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강화하는가 못하는가 하는것은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있습니다.》(《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 2페지)

당시 혁명정세는 강도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의 해방과 독립을 위하여 투쟁하고있던 우리 인민에게 유리하게 발전

하고있었다.

국제무대에서는 파시즘세력과 반파시즘세력간에 첨예한 투쟁이 벌어지고있었으며 이 투쟁속에서 국제파시즘은 세계인민들로부터 점점 더 고립되고 반파쑈민주력량은 날로 확대강화되고있었다.

1930년대중엽에 들어서면서 세계경제공황의 후과로 말미암아 곤경에 빠진 제국주의렬강들은 그 출로를 식민지재분할에서 찾으려고 미쳐날뛰였다.

이 시기 일제침략자들은 이미 만주를 강점한 후 대륙침략을 더욱 본격화하기 위해서 조선인민에 대한 파쑈적폭압과 식민지적략탈을 전례없이 강화하였다. 일제는 우리 나라를 대륙침략을 위한 튼튼한 교두보, 《공고한 후방》으로 만들기 위하여 군사시설을 확장하며 경제를 군사화하는데 조선의 모든 인적 및 물적 자원을 총동원하였으며 사소한 반일적인 요소도 무자비하게 탄압하고 무고한 인민들을 닥치는대로 검거투옥학살하였다. 그리하여 우리 나라에서의 민족적 및 계급적 모순은 한층더 격화되였으며 일제침략자들에 대한 각계각층 인민들의 반일감정은 극도에 이르렀다.

이러한 정세발전은 조선공산주의자들앞에 광범한 인민대중을 반일민족해방투쟁에 더 적극적으로 조직동원함으로써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려야 할 과업을 제기하였다. 이 과업은 오직 조선혁명의 주인인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이 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자기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며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자기 힘으로 혁명의 앞길을 자주적으로 개척해나갈 때만이 빛나게 실현될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일찌기 조선혁명의 주체적인 로선을 제시하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조직령도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새롭게 앙양시킬수 있는 튼튼한 주체적혁명력량과 고귀한 업적, 풍부한 투쟁경험을 마련해놓으시였다.

특히 위대한 수령님께서 반《민생단》투쟁의 간판밑에 조선의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적인민들을 모해하며 조선혁명의 자주적발전을 저애하던 배타주의자들과 종파주의자들의 책동을 폭로분쇄하심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로선을 확고히 고수하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릴수 있는 광활한 길이 열려지게 되였다.

혁명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바로 이러한 력사적시기에 항일유격대창건이후 수년간의 항일혁명투쟁과정에서 달성한 빛나는 성과를 총화하시고 항일무장투쟁을 위대한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전국적, 전민족적 범위에서 더욱 확대발전시키며 그 승리를 촉진하기 위하여 력사적인 남호두회의를 소집하시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을 강화발전시키기 위한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임무를 환히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주체의 기치밑에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을 더욱 높은 단계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한 새로운 전략적방침들과 그 실현을 위한 구체적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작의 첫부분에서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국경일대에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시킬데 대한 전략적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현단계에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기 위하여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우리의 투쟁무대를 점차 국내에로 확대해나가야 합니다.》(우와 같은 책, 2~3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웅대한 방침은 우리 인민의 한결같은 지향을 가장 정확히 반영한 혁명적인 방

침이며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무르익혀오신 조국광복의 원대한 구상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현명한 방침이다.

동시에 이 방침은 조선공산주의자들로 하여금 조선혁명앞에 지닌 자기의 임무를 다하게 하는 탁월한 방침이며 일제식민지통치밑에서 신음하는 인민들에게 승리의 신심과 용기를 안겨주고 투쟁에 떨쳐나서게 함으로써 일제의 멸망을 촉진시키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게 하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 방침을 실현하기 위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국경지대에 새로운 형태의 유격근거지를 창설하며 그를 거점으로 하여 무장투쟁을 더욱 적극적으로 벌릴데 대하여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새로 창설되는 혁명근거지는 백두산대산림지대에 조선인민혁명군이 의거하여 군사정치활동을 벌릴수 있는 밀영망을 형성하고 그 주변지역 인민들을 조직화하여 반유격구형태의 유격근거지를 꾸림으로써 그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탄력성있는 혁명의 보루로 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장차 국내에 들어가 무장투쟁을 성과있게 조직전개하기 위해서는 무장대오 특히 조선인민혁명군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리는것이 중요하다고 밝히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솔하시는 조선인민혁명군 주력부대를 튼튼히 꾸려야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 주체사상으로 확고히 무장하고 군사정치적으로 단련된 수많은 핵심들을 골간으로 제때에 새 사단을 편성하여 항일무장대오를 급속히 확대할수 있으며 전반적무장투쟁을 강화발전시킬수 있다.

참으로 조선인민혁명군의 주력부대를 국경일대에로 진출시키며 투쟁무대를 집차 국내에로 확대할데 대한 이 방침은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책임지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실현하고야말 확고한 자주적립장이 철저히 반영된것으로서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어올리게 하는 가장 정당하고 혁명적인 전략적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또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의 새로운 앙양을 위하여 우리는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켜나가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1페지)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더욱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이 방침은 적을 최대한으로 고립시키고 각계각층의 반일애국력량을 항일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하여 우리 인민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나라의 해방과 독립을 이룩하게 하는 자주적인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시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을 확대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를 내오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이때까지만 하여도 통일전선운동은 상설적인 조직체계가 없이 각계각층의 반일대중을 계급별, 계층별 대중단체들과 반제동맹과 같은 통일전선적대중단체에 망라시키는 방법으로 진행됨으로써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은 행동에서 통일성을 이룩하지 못하고 자연발생성과 분산성을 면할수 없었다. 그러므로 상설적인 조직체계를 가진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를 내와야 계급별, 계층별 대중단체들은 물론 개별적인 각계층 애국인사들을 조직적으로 묶어세워 반일투쟁에 적극 조직동원할수 있으며 통일전선운동의 통일성을 보장할수 있는것이다. 특히 당시 우리 나라에 아직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은 물론 그 어느 계

급의 정당이나 전국적인 조직체계를 가진 반일단체도 없었던 조건에서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가진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은 통일전선운동뿐만아니라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의 준비사업, 항일무장투쟁을 확대강화하기 위한 투쟁 등을 힘있게 밀고나가게 함으로써 전반적 조선혁명의 새로운 앙양을 이룩하며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더욱 확고히 보장할수 있게 한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새로 조직하려는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는 친일지주, 예속자본가, 민족반역자 등 극소수의 반동분자들을 제외한 전민족을 조직동원하는 대중적인 혁명조직으로 되여야 한다고 밝히시였다. 그리고 통일전선조직이 참으로 대중적인 혁명조직으로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각계각층 인민대중의 의사가 잘 반영된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의 명칭과 뚜렷한 투쟁강령을 제시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치시였다. 각계층 인민대중의 공통된 념원이 반영된 통일전선조직체명칭이 제기되여야만 과거에 독립운동에 참가했던 민족주의자, 애국적인 종교인, 량심적인 민족자본가를 비롯한 광범한 애국인사들도 통일전선조직의 취지를 옳게 리해하고 여기에 참가할수 있으며 우리 나라 사회경제관계의 합법칙적요구를 가장 정확히 반영한 투쟁강령이 제기되여야만 그에 리해관계를 가진 모든 계급과 계층들을 묶어세워 혁명의 주체적력량을 튼튼히 마련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이처럼 전민족적인 단합으로 왜제를 쳐부시기 위한 통일전선로선과 상설적인 통일전선조직체의 결성을 위한 구체적방도까지 가르쳐주심으로써 조선공산주의자들과 조선인민자체의 힘으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빛나게 실현할수 있는 광활한 길을 밝혀주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또한 로동계급의 혁명적당창건준비사업을 적극 추진시킬데 대한 방침을 밝히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강력히 전개하여 정세가 조성되면 제때에 당을 창건할수 있도록 당창건의 조직사상적기초를 튼튼히 축성하여야 하겠습니다.》(우와 같은 책, 1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가르치신바와 같이 당창건준비사업을 전국적범위에서 강력히 전개하여야 조선혁명의 핵심적력량인 공산주의대오를 조직사상적으로 튼튼히 꾸리고 전국적범위에서 각계각층의 반일애국력량을 조국광복의 기치밑에 굳게 결속할수 있으며 나아가서 우리 나라 반일민족해방투쟁을 새로운 앙양에로 이끌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창건준비사업에서 중요한것은 우선 당조직을 부단히 확대하고 당조직들에 대한 지도체계를 철저히 세우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당조직을 확대하기 위하여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과 조선사람이 거주하는 광활한 지역에서 당조직건설사업을 적극 추진시키며 특히 국내에 분산되여있는 공산주의자들을 집결하는 동시에 혁명투쟁에서 검열되고 단련된 선진분자들을 당조직에 받아들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특히 당조직건설에서는 밑으로부터 올리 조직하는 방침을 확고히 견지하여 투쟁속에서 단련되고 준비된 로동자, 농민 출신의 선진분자들로 당조직을 계속 확대해나가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또한 당조직을 확대하는 사업과 함께 조선인민혁명군 당위원회로부터 지방당조직에 이르기까지 민주주의중앙집권제원칙에 기초한 통일적인 당조직체계를 세워 모든 당조직들이 한몸같이 움직이는 강철같은 당조직규률을 세워야 하며 당조직생활을 강화하여 당원들의 선봉적역할과 당조직들의 전투력을 높임으로써 그 어떤 역경

속에서도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조선혁명의 주체적로선을 확고히 고수해나갈수 있는 혁명적당을 건설해야 한다고 간곡히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으로 당창건준비에서 중요한것은 우리나라 초기공산주의운동의 쓰라린 교훈으로부터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튼튼히 꾸리며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는것이라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로동자, 빈고농들 속에서 당장성사업을 적극 진행하여 당창건의 조직적골간을 계급적으로 튼튼히 꾸려야 하며 혁명대오의 사상적순결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산주의자들과 혁명조직성원들을 불멸의 주체사상과 그를 구현한 조선혁명의 로선과 전략전술들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대오내에서 그 어떤 사소한 분파행동에 대해서도 추호도 용허하지 말아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에서 제시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국경지대에로 진출시키며 항일무장투쟁과 반일민족통일전선운동, 혁명적당창건방침을 전국적범위에서 확대발전시킬데 대한 독창적인 로선과 방침들은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빛나는 구현으로서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며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조국의 자유와 독립, 민족의 자주권을 찾으려는 철저히 혁명적인 로선이였다.

* *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주체를 철저히 세우고 자체의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려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이룩하는 휘황한 길을 밝혀준 강령적문헌이다.

이 로작은 그에 담겨진 사상리론적내용의 심오성과 풍부성으로 하여 우리 인민은 물론 세계의 수많은 혁명적인민들과 피압박민족들의 혁명투쟁을 힘있게 고무하는 투쟁의 기치로 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항일무장투쟁을 비롯한 전반적조선혁명을 일대 앙양에로 이끌어올리는데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문헌이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선공산주의자들이 자기 인민의 힘을 믿고 그들에게 튼튼히 의거하여 전체 조선인민을 반일조국광복전선에 한결같이 조직동원한다면 능히 일제침략자들을 우리 조국강토에서 몰아내고 혁명의 최후승리를 달성할수 있을것입니다.》(우와 같은 책, 21페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로작에서 제시하신 새로운 전략전술적방침들을 실현하시기 위하여 1936년 5월, 동강회의를 소집하시고 우리 나라에서 첫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체인 조국광복회를 결성하시였다. 조국광복회는 자체의 독자적인 조직체계와 조직형식을 가진 상설적인 반일민족통일전선조직으로서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인 령도밑에 공산주의자들을 핵심으로 하는 혁명조직이다. 조국광복회의 창건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신 첫시기부터 조선인민이 책임지고 자기 힘으로 조선혁명을 자주적으로 수행할데 대한 원대한 구상과 그 실현을 위한 피어린 투쟁의 빛나는 결실이였으며 우리 인민의 반일민족해방투쟁에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력사적인 사변이였다. 조국광복회가 창건됨으로써 통일전선운동과 무장투쟁 그리고 당창건준비사업을 밀접히 결합시켜 전면적으로 확대발전시킬수 있게 되였으며 조선혁명은 자주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새로운 앙양의 길에 들어서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광복회를 창건하신 이후 계속하여 로작에서 제시하신 방침대로 조선인민혁명군부대들을 친솔하시고 적들의 삼엄한 경계망을 뚫고 압록강연안으로 진출하시여 조선혁명의 강력한 보루인 백두산근거지의 창설을 몸소 지도하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백두산을 중심으로 하는 광활한 지대에 새로운 혁명근거지를 창설하시고 그에 의거하여 조선인민혁명군의 군사정치활동을 활발히 벌리시고 조국광복회망을 급속히 확대하심으로써 광범한 애국적인민들을 묶어세워 주체적혁명력량을 튼튼히 꾸리시였다.

이렇듯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로작에서 제시하신 천재적인 전략전술적방침들은 어버이수령님의 불면불휴의 완강한 투쟁에 의하여 빛나게 실현되고 전반적조선혁명은 주체의 기치밑에 전례없는 일대 앙양을 가져오게 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은 승승장구하게 되였다.

이처럼 안팎의 원쑤들의 반악적인 책동으로 우리 혁명앞에 시련이 가로놓여있던 엄혹한 시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은 조선혁명의 주류인 항일무장투쟁을 국내에로 확대발전시키며 전국적범위에서 무장투쟁과 배합하여 각종 형태의 반일투쟁을 강화할데 대한 전략적 방침을 제시함으로써 조선혁명의 주체적력량을 결정적으로 강화하고 조선인민자신의 힘으로 일제를 타도하고 조국광복의 력사적위업을 앞당기는데 거대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동시에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와 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관철하기 위한 투쟁을 통하여 조선혁명을 압살하려던 일제의 책동은 산산이 부서지고 주체적인 조선혁명의 로선과 방침이 관철되는것을 각방으로 방해해나섰던 민족배타주의자들과 종파사대주의자들은 더는 날뛰지 못하게 되였다.

다음으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와 회의에서 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보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를 더욱 강화할수 있게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집필하신 이 로작은 조국광복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줌으로써 우리 인민들속에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와 신뢰의 정을 더욱 세차게 불러일으켰으며 그들에게 조선혁명의 주인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수 있는 필승의 무기를 안겨주었다. 로작의 발표를 계기로 조선혁명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는 국내 각지에 널리 조직된 조국광복회를 비롯한 각종 혁명조직을 거점으로 하여 더욱 빛나게 실현되였다. 나라의 도처에 무어진 혁명조직들과 정치공작원들은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상과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혁명로선과 전략전술적방침들을 광범한 대중속에 제때에 해설선전하였으며 그 관철에로 대중을 힘있게 조직동원함으로써 조선혁명전반에 대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유일적령도가 더욱 확고히 보장되였으며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여 줄기차게 발전하는 여러가지 형태의 대중투쟁이 위대한 수령님의 유일적령도밑에 조국광복의 위업의 실현을 위한 거창한 투쟁에 합류되게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또한 당시 국제적으로 파시즘이 대두하고 침략전쟁의 위험이 날로 커가고있던 엄혹한 시기에 국제파시즘의 주력의 하나였던 강도 일제에게 커다란 타격을 가하고 국제파시즘의 붕괴를 더욱 촉진시킴으로써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세계혁명발전에 커다란 기여를 하였다. 로작에서 제시된 방침을 관철하는 투쟁을 통하여 일제의 삼엄한 경비망을 뚫고 조선인민혁명군 대부대가 국경연안에 진출하여 군사정치활동을 벌리고 전국적

범위에서 반일민족통일전선을 조직하고 혁명의 전위부대인 새형의 혁명적당창건의 튼튼한 조직사상적기초를 축성하는것은 일제의 대륙침략정책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으로 되였으며 세계 피압박, 피착취 인민들의 혁명투쟁에 대한 힘있는 지지와 크나큰 고무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로작에서 천명하신 자주적립장과 식민지민족해방투쟁에 관한 전략전술적방침들은 국제공산주의운동과 식민지민족해방혁명에 관한 로동계급의 혁명리론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실로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친히 조직지도하신 남호두회의와 회의에서 하신 력사적인 보고 《반일민족해방투쟁의 강화발전을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임무》는 조선혁명운동에서 주체를 전면적으로 확립하고 항일무장투쟁을 중심으로 하는 조선인민의 전반적반일민족해방운동과 국제공산주의운동을 강화발전시킴에 있어서 거대한 의의를 가지는 위대한 력사적문헌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력사적인 남호두회의에서 천명하신 당창건방침과 반일민족통일전선로선 그리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이룩하신 고귀한 업적과 경험들은 해방후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로, 귀중한 밑천으로 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조직령도하신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은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며 조국의 자주적통일을 위하여 억세게 싸워나가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크나큰 혁명적자부심과 긍지, 필승의 신념과 커다란 고무적힘을 안겨주고있다.

우리의 모든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항일혁명투쟁시기에 이룩하신 빛나는 혁명전통으로 더욱 튼튼히 무장하고 위대한 수령님과 영광스러운 당중앙의 두리에 한마음한뜻으로 굳게 뭉쳐 위대한 수령님께서 백두밀림에서 개척하신 주체의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나가야 한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날로 커가는 국제적련대성

김　관　섭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성스러운 투쟁은 세계적범위에서 벌어지고있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의 중요한 한 고리이다.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은 제국주의를 반대하는 세계인민들의 공동투쟁속에서 발전하고 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을 위한 투쟁은 외래침략자들에게 빼앗긴 령토를 도로 찾고 전국적범위에서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확립하기 위한것으로서 전세계 인민들의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 있다.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는 아세아와 아프리카에서, 라틴아메리카와 구라파에서, 대륙과 대양을 넘어 세계의 이르는 모든곳에서 더욱 세차게 울려퍼지고있다.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전세계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과 국제적련대성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그 형태가 다양해지고있으며 규모와 범위에서도 일층 확대되고있다.

우리 당과 인민은 조국통일위업실현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 수많은 나라의 정부와 인민들의 국제적인 지지성원을 매우 귀중히 여기고있으며 여기에서 커다란 고무를 받고있다.

*　　*

분렬된 조국을 통일하는것은 민족지상의 과업이며 현시기 우리 인민이 달성해야 할 최대의 목표이다.

우리 나라의 통일문제는 침략자 미제를 남조선에서 내쫓고 나라의 완전한 독립을 이룩하려는 우리 민족의 사활적요구에 관한 문제이며 통일된 조국에서 남북의 온 겨레가 다같이 행복하게 살아가려는 민족최대의 념원을 실현하는 중요한 문제이다.

전설적영웅이시며 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태양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외세에 의하여 나라가 분렬된 첫날부터 가장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내놓으시고 그 실현에로 우리 당과 인민을 현명하게 이끌어오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을 통일하기 위한 투쟁에서 우리 당이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는 기본방침은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방법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85～8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은 자기 운명의 주인은 자기자신이며 자기 운명을 개척하는 힘도 자기자신에게 있다는 위대한 주체사상의 근본원리로부터 출발하고있는 가장 정당한 방침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국통일의 기본방침에 따라 정세발전의 매 단계와 시기마다 나라의 통일을 자주적으로 민족주체적힘에 의하여 이룩

하기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방안들을 내놓으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안에는 민주주의적인 남북총선거를 통하여 통일정부를 수립할데 대한 방안, 과도적대책으로서 남북련방제를 실시할데 대한 방안, 자주적평화통일을 앞당기기 위한 조국통일의 3대원칙, 민족의 영구분렬을 막고 나라의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조국통일5대방침, 평화를 공고히 하고 조국통일의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평화협정체결안 등 신로 나라의 통일을 이룩하는데 필요한 현실적인 방안들이 다 들어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이 모든 조국통일방안들은 자주적립장에 확고히 서서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에 맞게 통일문제를 정확히 해결할수 있는 방도를 밝혀주고있는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며 그 누구에게나 접수될수 있는 가장 공명정대하고 현실적인 방안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공명정대한 조국통일의 기본 방침과 방도들을 내놓으시였을뿐아니라 그 실현을 위한 가장 정확한 력량편성방침을 제시하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공화국북반부의 혁명력량을 강화하며 남조선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지원하며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할데 대한 로선을 내놓고 그것을 관철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고있습니다.》

(《꼬스따리까사회당 위원장이며 꼬스따리까기자동맹 위원장인 꼬스따리까조선친선문화협회 위원장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대답》, 6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에는 우리의 주체적혁명력량을 백방으로 강화하고 그 기초우에서 국제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 조선혁명을 책임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우리 당과 인민 앞에 맡겨진 민족적 및 국제적 임무에 충실할데 대한 그이의 위대한 주체적립장이 구현되여있다.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을 위한 우리 당의 3대로선은 우리 인민이 시종일관 튼튼히 틀어쥐고 나가야 할 가장 정확한 전략적지침이며 조국통일의 길을 승리적으로 개척해나갈수 있게 하는 유일하게 정당한 방침이다.

공화국북반부혁명력량과 남반부혁명력량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세계혁명력량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은 조국의 통일과 조선혁명의 전국적승리를 이룩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세계혁명력량은 조국통일을 위한 혁명력량의 중요구성부분이다. 세계혁명력량을 강화하고 그와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여야 조국통일의 유리한 국제적환경을 마련할수 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을 강화함에 있어서 사회주의나라들과의 단결을 강화하는것과 함께 아세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나라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적극 지지하며 그들과의 련대성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시였다.

3대륙의 반제반미투쟁은 사회주의를 위한 국제로동계급의 혁명투쟁과 함께 우리 시대의 2대혁명력량을 이루고있다. 그들의 투쟁은 억압받고 천대받던 수억만 인민들의 해방투쟁인 동시에 세계제국주의의 생명선을 끊어버리는 위대한 투쟁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에 기초하시여 정세발전의 매 시기마다 독창적인 대외활동방

침을 제시하시고 우리 혁명의 지지자, 동정자의 대렬을 더욱 늘이도록 현명하게 령도하여오시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유엔에 대한 우리 당의 립장과 우리 나라를 우호적으로 대하는 모든 나라들과 국가관계를 발전시킬데 대한 문제로부터 대외활동에서 제기되는 구체적인 문제에 이르기까지 그 방향과 방도들을 전면적으로 밝혀주시였다.

우리 당의 대외활동방침과 방도들을 명백히 밝혀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몸소 그 관철을 위한 투쟁에서 모범을 보여주고 계신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세계혁명력량과의 전투적련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을 국가방문하시였으며 우리 나라에 찾아오는 외국의 국가수반들을 비롯한 수많은 외국대표단들을 직접 접견하여주시였다.

경애하는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혁명과 세계혁명 앞에 쌓아올리신 위대한 공적과 높으신 권위와 위신으로 하여 전세계인민들의 절대적인 존경과 신뢰를 받고계신다.

그러기에 외국의 수많은 벗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을 지지하는것을 자기들의 숭고한 의무로 여기고있으며 조선인민과 함께 싸워나갈 굳은 결의에 충만되여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당한 위업은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성원을 받고있으며 제국주의자들과 그 앞잡이들은 국제적으로 날로 고립배격당하고있습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외국방문문헌집》, 146~147페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정당한 방침과 몸소 조직전개하신 정력적인 대외활동에 의하여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은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세계혁명력량과의 련대성은 그 어느때보다도 강화되고있다.

오늘 세계의 진보적인민들은 경애하는 수령님께서 영생불멸의 주체사상을 구현하시여 내놓으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과 제안들을 온 민족의 숙원과 지향을 반영한 가장 정당한 방침으로, 전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념원과 시대의 요구에 완전히 부합되는 가장 공명정대한 방침으로 높이 평가하면서 그 실현을 위한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절대적인 지지와 성원을 보낼 굳은 결의들을 표명하고있다.

세계진보적인민들은 《김일성주석동지께서 제시하신 방침, 조선을 그 어떤 외세의 간섭도 없이 조선인민자신의 손으로 자주적으로 민주주의적원칙에서 평화적으로 통일할데 대한 방침을 우리는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지지할것이며 이에 대한 우리의 립장에는 변함이 없다.》, 《우리는 조선인민의 위대한 수령 김일성주석님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가장 애국적인 구국강령으로서 적극 지지한다.》, 《조선의 통일을 가로막고있는 장본인인 미제침략군은 살인무기를 걷어가지고 남조선에서 당장 물러가라.》고 하면서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련대성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에 대한 지지자, 동정자 대렬이 급격히 늘어나고있는것은 세계 수많은 나라의 각계각층 진보적인사들속에서 조선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발전시킬것을 념원하여 도처에 친선협회들과 련대성조직들을 뭇고 그 대렬을

더욱 확대강화하고있는데서 뚜렷이 나타나고있다.

최근년간만 하여도 오지리—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관계촉진협회, 빠나마—조선친선문화협회, 조선인민의 투쟁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련대성위원회,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말리련대성위원회 등 세계 5대륙의 이르는곳마다에 수많은 친선단체들과 련대성조직들 및 그 지부들이 조직되였다.

이 조직들은 전세계 광범한 인민들속에서 우리 나라에 대한 리해를 깊게 하고 조선인민과의 친선협조관계를 더욱 촉진시키며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자주적인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을 정확히 인식하게 하고 그를 적극 지지하도록 하는 사회적운동을 활발히 벌림으로써 우리 인민의 정의의 투쟁위업을 크게 고무하여주고있다.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세계 모든 평화애호인민들의 지지성원과 전투적련대성은 날이 가고 해가 바뀔수록 더욱 확대강화되고있다.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나라들, 일본, 스웨리예, 미국을 비롯한 자본주의나라들의 대중조직들과 투쟁단체들, 각계각층 인민들은 군중집회, 시위, 강연회,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조직하여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을 지지하는 동시에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의 침략책동과 매국배족행위를 준렬히 규탄하고있다.

또한 3대륙단결기구를 비롯한 국제민주단체들과 민족단체들, 친선단체들과 련대성조직들, 각국의 진보적 정당, 사회단체들, 저명한 인사들은 성명, 호소문, 담화 등을 통하여 그리고 세계 각국의 수많은 신문, 잡지, 라지오, 텔레비죤방송들은 사론설과 특집과 특별방송을 통하여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 3대원칙과 5대방침을 전적으로 지지하고 미제의 남조선강점과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준렬히 항의규탄하고있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은 세계의 모든 대륙들에서 국제적인 공동투쟁을 힘있게 벌림으로써 그 어느때보다도 더욱 활발해지고있다.

최근년간 핀란드에서 열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북구라파나라들의 련대성회의》와 뻬루에서 열린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지지하는 라틴아메리카회의》, 알제리에서 열린 제3세계청년대회, 꾸바에서 열린 세계직련총리사회 제25차회의, 오스트랄리아에서 열린 아세아학생협회 제4차대회, 벌가리아에서 열린 세계민주청년련맹 제9차대회, 이라크의 수도 바그다드에서 열린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조선인민과의 국제적련대성회의》를 비롯한 일련의 많은 국제회의들이 진행되였다. 이 회의들에서는 조선에 관한 결의, 성명, 정치선언, 호소문 등을 발표하여 미제와 그 주구들의 《두개 조선》조작책동을 준렬히 단죄하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한 우리 인민의 투쟁을 전적으로 지지하는 일련의 문건들을 채택하였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세계진보적인민들의 이 모든 지지성원은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투쟁하고있는 우리 인민에게 커다란 고무로 되며 나라의 통일을 가로막고 남조선에서 새 전쟁 도발책동을 일삼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에게는 심대한 타격으로 된다.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과 련대성이 강화되고있는것은 최근년간 우리 나라와 국가관계를 맺고 그를 더욱 발전시키려는 나라가 급격히 늘어나고있는데서 집중적으로 표현되고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우리 당의 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정당성, 우리 인민이 혁명과 건설에서 이룩한 빛나는 승리로 하여 공화국의 국제적지위는 비상히 높아지고 우리 인민의 혁명위업에 대한 세계진보적나라들의 지지와 동정은 날을 따라 더욱 커가고있다.

지난 한해동안에만도 우리 나라는 새로 12개나라와 외교관계를 맺었다. 그리하여 우리 공화국은 90여개의 대소국가들과 공식적인 국가관계를 가지게 되였다.

특히 수많은 나라들이 민족분렬과 매국배족행위를 일삼는 남조선괴뢰도당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또는 그것을 무시하고 주동적으로 우리 공화국과 련이어 국가관계를 맺는 적극적인 길로 나오고있다.

세계의 추세가 급변하는 환경속에서 이때까지 우리 공화국을 인정하지 않던 많은 서방자본주의나라들까지도 우리와의 관계를 발전시켜나가는 길에 들어서고있다.

또한 우리 나라는 최근년간 세계보건기구를 비롯한 여러 국제기구들에 련이어 가입함으로써 이미 140여개의 국제기구의 정식성원으로 당당히 활동하고있다.

실로 오늘 우리 나라와의 관계를 발전시키는것은 하나의 국제적추세로 되고있다.

이것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야말로 조선인민의 유일한 합법적정부이고 나라와 민족의 통일을 위하여 투쟁하는 애국적인 정부이며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제3세계나라들을 비롯한 세계 모든 진보적나라들의 벗으로 된다는 인식이 보편적으로 세계를 지배하게 되였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하여주고있다.

우리 혁명위업에 대한 국제적인 지지성원은 정기적으로 열리는 국제기구들의 회의에서도 날로 강화되고있다.

전체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지난해 8월에 페루의 수도 리마에서 열렸던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회의에서 우리 나라를 이 운동의 정식성원국으로 받아들이고 이 운동에 끼여들려는 미제의 앞잡이 박정희도당을 문밖에서 쫓아버린 사실은 이것을 뚜렷이 확증해주고있다.

우리 나라가 쁠럭불가담운동의 정식성원으로 된것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가 시종일관 견지하고있는 반제자주적인 대외정책과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의 빛나는 승리이며 날로 더욱 강화되고있는 우리 혁명의 국제적련대성을 시위한 일대 사변으로 된다.

우리 나라가 쁠럭불가담운동의 성원으로 된것은 공화국의 국제적지위가 날로 높아지고 그 자주적인 대외정책이 세계인민들로부터 커다란 지지를 받고있는 반면에 남조선괴뢰도당은 미제의 추악한 괴뢰로서 세계인민들의 버림을 받고 국제고아의 가련한 신세가 되였다는것을 다시금 뚜렷이 보여주었다.

쁠럭불가담나라들은 그 운동의 리념으로부터 우리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을 적극 지지하고있다.

세계 80여개 나라의 국가수반들과 정부수반들 그리고 그들의 대표들을 비롯하여 100여개 대표단의 참가밑에 진행된 제4차 쁠럭불가담국가수뇌자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천명하신

조국통일5대방침을 열렬히 지지하고 조선에 대한 미제의 간섭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을 규탄하였으며 남조선에서 미제침략군을 철거시킬데 대한 결의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 쁠럭불가담국가외교부장들의 리마회의에서 채택된 《호상원조 및 단결에 관한 리마강령》에서도 자주적평화통일을 이룩하려는 공화국정부의 정책을 적극 지지하고 유엔의 기발밑에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모든 외국군대를 철거시킬것과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꿀것을 요구하였으며 7.4남북공동성명에서 천명된 조국통일3대원칙을 준수할것을 요구하였다.

쁠럭불가담운동성원국들이 공동으로 취한 이 모든 정당한 조치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방침의 정당성에 대한 뚜렷한 확증으로 되며 조선인민의 정의의 위업에 대한 쁠럭불가담나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날로 커가는 국제적지지와 련대성의 힘있는 증거로 된다.

조선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지지성원은 유엔마당에서도 강화되고있다.

최근년간 유엔무대에서 조선문제토의과정과 그 결과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제시하신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방침에 대한 국제적 지지와 련대성이 얼마나 커가고있는가 하는것을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유엔총회 제28차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내놓으시였으며 남북공동성명에 천명된 자주, 평화통일, 민족적대단결의 3대원칙에 전적인 지지와 찬동을 표시하고 이 원칙에 따라 남북의 대화를 계속하며 다방면적인 교류와 합작을 실현하도록 할것을 요구하면서 미제의 조선침략도구였던 《유엔한국통일부흥위원단》을 즉시 해체할것을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들이 나라의 자주적통일을 이룩하기 위하여 일관하게 취하여온 우리 당과 공화국정부의 방침과 립장이 정당하다는것을 공인한것이며 조선이 두개로 갈라질것이 아니라 하나로 통일되여야 한다는것을 일치하게 인정한것으로 된다.

유엔총회 제29차회의에서도 세계 수많은 나라 대표들이 조선의 내정에 대한 미제의 간섭과 미제침략군의 남조선강점을 폭로규탄하고 미제침략군이 《유엔군》의 모자를 벗고 남조선에서 즉시 철거할것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알제리를 비롯한 40개나라가 제출한 공동결의안에 전적인 지지를 표시하였다.

특히 지난해 유엔총회 제30차회의에서는 우리의 정당한 조국통일방침을 반영하여 43개 유엔성원국들이 공동으로 제출한 결의안을 압도적다수표의 찬성으로 채택하였다. 이것은 미제가 지난 30년동안 해마다 거수기를 발동하여 유엔에서 제멋대로 조선문제에 관한 비법적인 《결의》를 꾸며내던 낡은 관례를 깨뜨러버리고 처음으로 조선문제에 관한 공정한 결의를 채택한것으로서 유엔력사에서 일대 전환으로 된다. 43개국 결의안의 통과는 조국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실현하기 위하여 억세게 싸우고있는 전체 조선인민의 승리인 동시에 우리 인민의 정의의 위업을 적극 지지성원하고있는 사회주의나라인민들, 제3세계나라인민들, 쁠럭불가담나라인민들과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공동의 승리로 된다.

조선문제에 관한 43개국 결의안이 채택됨으로써 미제의 남조선영구강점과 《두개 조선》 조작책동은 여지없이 부서졌으며 미제는 남조선에서 저들의 침략군대를 철거시킬 의무에서 더는 벗어날수 없게 되였다.

지금 대다수 유엔성원국들과 세계평

화애호인민들은 미제가 유엔의 결의대로 《유엔군사령부》를 즉시 해체하고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저들의 침략군대를 지체없이 철거시키며 평화협정을 체결할데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제의에 응해나설것을 한결같이 요구하고있다.

모든 사실이 잘 보여주는바와 같이 우리 인민의 조국통일위업에 대한 세계의 지지자, 동정자 대렬은 급격히 늘어나고있으며 반면에 《두개 조선》조작책동에 매달리고있는 미제와 박정희괴뢰도당은 세계의 이르는곳마다에서 련속 심대한 타격을 받고있다.

미제침략자들이 남조선에서 쫓겨나고 국제고아의 신세에서 허덕이는 박정희괴뢰도당이 멸망할 날은 멀지 않았다.

세계진보적 나라와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을 받고있는 우리 인민이 조국통일위업을 성취할 혁명적대사변의 날은 시시각각으로 다가오고있다.

* *

미제는 《두개 조선》을 조작하고 남조선을 영원히 식민지군사기지로 틀어쥐려는 침략적야망을 버려야 하며 남조선에서 지체없이 물러가야 한다.

남조선을 계속 틀어쥐고있으려는 미제의 부당한 책동은 남조선인민들에게 더큰 불행과 고통을 들씌우며 조선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나라의 통일위업에 엄중한 장애를 조성할뿐이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 머물러있을 그 어떤 리유와 구실도 없다. 미제침략군이 남조선에서 나가야 한다는것이 막을수 없는 시대적요구로 되고있는 오늘 미제가 남조선을 계속 강점하고있겠다는것은 시대착오적인 망상이다.

미제국주의자들은 현실을 똑바로 보고 분별있게 행동해야 한다. 미제가 남조선에 계속 머물러있어야 얻을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것은 오히려 제놈들의 침략적정체를 더욱 드러내놓고 조선인민과 세계인민들의 증오와 공격에 부닺쳐 수치스러운 패배를 당하는 결과를 가져올뿐이다.

조선인민은 사회주의나라들과 제3세계인민들을 비롯한 세계평화애호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성원밑에 원쑤들의 어떠한 침략책동도 단호히 짓부시고야 말것이며 남조선을 강점하고있는 미제침략군을 몰아내고 조국통일의 력사적위업을 반드시 성취하고야말것이다.

근 로 자 제 2 호 (루계 406호)

편 집 위 원 회

발행소 • 근 로 자 사 주소 • 평양시 외성구역 역전동
인쇄소 • 평양종합인쇄공장
인 쇄 • 1976년 2월 1일 발행 • 1976년 2월 5일

ㄱ—6535 값 50전